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와 제자 양육의 전망
PRACTICAL INDUCTIVE BIBLE STUDY AND PERSPECTIVE DISCIPLESHIP TRAINING

By

Song, Soo Ho

A DEMONA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Montclair, New Jersey

2011

ABSTRACT

PRACTICAL INDUCTIVE BIBLE STUDY AND PERSPECTIVE DISCIPLESHIP TRAINING

BY

Soo Ho Song

In this last days we have been heard more good news through all kinds of advanced technological network but most of them do not deliver us from our predicaments like our being scarce drinking water to quench our thirst after the typhoon tsunami. We grow out of our patience for saturation of nourishment and become desperate situations. This generation is facing the near total disaster.

We must go back to the basic of the truth to find out our new way out from our current difficulties. Out truth is the Scripture all the time. It described the era of Ezra and Nehemiah when they went back the God's word and read it and made their people understand the will of God by observing, understanding (interpreting) and Generalizing (applying) it. Before this scripture study, God also teaches us in Genesis 3:9 that good question must be used for us to instruct, rebuke, correct and train disciples. God did use questions to make them obtain the exact answers. Luke 2:46-47 is rare glimpse of how Bible study is like in Jesus time. He was sitting to listen and ask teachers sitting around him. Luke 10:25-28 shows the clear principle and progress the inductive Bible study. 2 Peter 1:20-21 includes ① more than two persons and ② only two authorities are the Word and Holy Spirit and ③ discussion in verse 21 for the application. These ingredients are the basic steps for inductive approaching Bible study.

The major key of this inductive Bible study must be furnished with good questions based on Word of God. The study guide question must be made with appropriate hand puller or equalizer to activate the profound discussion but neither manipulating nor using in-house languages. The discussion group must stick to the passage and be avoid of any tangent. It is very imperative for small group to know how people learn and ask and don't tell the direct answers.

In this way, we can train our disciples to learn for themselves and discover the answer for themselves. This self-discovery bring them a joy of discovery and we have other joy in sharing what we discovered (John 1:4). In verse 3, then we have a fellowship which has been enjoying of being Father and Jesus Christ. Therefore, we are in the middle of heavenly realm already with God and Jesus Christ and also Holy Spirit. Now, we must talk about the developing of competent result of Inductive Bible Study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to our ministry.

Reconfirmation of our ministry's authority;

We should reconsider who are the real authority in all our life and ministry. They are the Word of God. Jesus Christ and Holy Spirit. All others are just helpers or servant. Ask! Don't tell. Ask questions them to make them find out the answers for themselves. All our teaching, meeting, any gathering must prepare attendants to preview in advance and let them prepare or find the answer.

- Always try to give them chance to discussion.
- Return them back the joy which was prepared for their discovery and excitement. 'Don't steal' the joy from them by direct answers given to them.

- Make their joy of discovery which lead them to Jesus Christ.
- Help them find the joy of sharing of their treasure, Jesus Christ.

This joy of sharing leads the fellowship, koinoniah which is the pre taste of heavenly realm even in this worldly life. Our ministry must show this kind lives in the world. With the inductive approach to the Word of God and with unveiled faces all reflect.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as his likeness with ever-increasing glory which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Maranata.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신학학적이기보다는 성경적인 것 같다. 그러나 신학적인 접근은 연역적 방법에 가깝고 성경적인 접근은 귀납법에 가깝다. 우리 신학은 너무 오래 연역적인 것에 일변도 해왔으나 이제는 다림줄의 추는 방향을 바꿔 귀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 역사적인 변환점의 한 세기 이전에 우리의 선배이신 Dr. Wilbert W. White 는 이곳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배움의 전당을 세웠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이며 역사적 사명에 따라서 그 바통을 이어 받아야 할 것이다.

부족한 필자도 이 거대한 성역에 조그만 주춧돌을 옮기는 사역에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감사하며 물론, 실제 오른팔로 도우시는 Dr. Keith A. Russell 과 Dr. Chang K. Behk, 두 교수님, 그외 여러분들의 수고와 격려로 보이신 사랑을 무한 감사드린다.

목차

I.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주님이 뜻하시는 말씀에 가장 가까이 거하기 위해 그뜻을 아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그를 더 잘 이해하고 그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이 과정을 도우시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권고하시어 그의 말씀을 잘 받아 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사귀며 대화하기 위해 오셨고 은혜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의 말씀대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태초부터 주님은 우리와 대화로 접근하신 방법대로 진리를 발견해 나가고 우리는 그 방법대로 이웃에게도 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21 세기에 와서 통신기술의 발달로 매개체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외치는 말씀은 차고 넘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장소에 몰려들어도 그들의 얼굴에는 진리를 발견하는 기쁜 모습보다는 오히려 기갈되어 가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매마른 많은 영혼들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Back To The Bible). 즉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으나 로마 천주교 시대 이후의 말씀 탐구는 크게 퇴보하여 17 세기 이후 개신교 출현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 창조 이후부터 말씀 공부는 주께서 성경에 보이신 것으로 20 세기 초에서야 말씀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신 founding father, 선각자요 , 기도의 사람인 Dr. Wilbert W. White 는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현, New York Theolosical Seminary 를 세우시고 이 새롭고 산 길인 말씀의 접근 방법으로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를 가르키기 시작하여 수많은 주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주의 신실한 종이었다. 이는 새롭고 놀라운 성경 공부의 시도로서 이 효과는 사실상 20 세기 전 주께서 열 두 제자를 양육함으로 이미 보이신 것으로서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가 종래의 고압적인 말씀 공부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소그룹 토의식 말씀 공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개개 기독교인들은 '작은 그리스도'[1] 로서의 신분으로 양육되고 성장하여 말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월은 급박하고 주의 말씀은 더욱 절실하나 모든 역기능적인 요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뒤늦게 발견된 말씀 접근의 줄을 극대화하는 지혜와 힘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II. 문제의 제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즐겨워 하여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여 그의 뜻을 알게 되고 변화함을 얻어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시고 이루셨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그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지나간 시대와는 달리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 환경 속에서

---

[1]이사야 53 장, 빌립보서 2:5-16 에서와 같이 우리가 낮고 연약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하는 자세로 구원을 이룸.

우리는 그의말씀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보여준 온전한 순종을 배워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여(히 13:8)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여 변화받고 열매 맺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아 알게 하신다.

이 능력되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지금 우리는 말씀의 열약함과 방향을 잃고 힘이 없이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음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근본 문제는 무엇이며 말씀을 통해 그 해결책을 관찰하고 점검하여 그를 믿고자 하는 우리 모든 갈급한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말씀 공부의 방법을 반성하여 보고 이천 여년 전부터 행하신 그의 방법으로 21 세기를 사는 우리의 성경 공부를 그의 다림줄에 맞추어 관찰하고 점검하여 엇나간 것을 바로 잡고자 한다.

1. 현재까지의 교회 상황

1) 율법 시대[2] 의 말씀 공부

율법 시대에 성경의 묘사된 말씀 공부의 일별을 하여 보면, 느헤미야 8:8-10 에 한 예가 나타난다. 이것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함께한 말씀 공부였다. 8 절에서 그들은 먼저 율법책을 낭독하여 관찰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것을 깨닫아 알아서 그들의 삶에 적용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르나 성경 공부는 성령의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푸는 것이니(베후 1:21), 율법 시대는 아직도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없음을 보여주며(겔 36:26-27) 초자연적인 사람들은 없고 자연적인 사람들 뿐이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성경 공부는 극히

---

[2]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마 3:11)까지며 곧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시대 이전으로 구분한다.

제한적이다.[3]

사울왕과 삼손의 예를 들어 보자. 사울은 왕이 되기 전 겸손한 사람 (삼상 9:21)으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 예언도 했으나 (삼상 10:10) 왕이 된 후 그의 마음 속에 참된 인격의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 그의 왕위는 추락되었고 또 사사 시대의 삼손도 나실인으로 바쳐졌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의 힘과 담력이 불레셋 사람들과의 대항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했으나 그도 마음의 참된 변화가 없으므로 (삿 14:19)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맺었다. 구약 시대는 말씀 공부를 열망하여 따르게 하는 바른 지도자가 거의 없어 말씀을 진작시킬 만한 좋은 표상이나 실례가 아주 희귀하다.

구약은 '성령으로 옷입다' 또 '임하시다' 또는 '강하게 임하시다' 로 성령의 역사를 표현한다. 결국,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결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4] 율법 시대의 제한적인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눈에 가린 수건이 벗겨져(고후 3:14)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임하므로 그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것이다.

2) 은혜 시대[5] 의 말씀 공부

위와 같이 율법 시대는 마음에 열매 맺음으로 오는 내적 성령의 역사는 없고 오직 일시적인 외적 성령의 선물인 은사가 위주이나, 은혜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기간 중에 그의 율법 시대를 마감하시고 은혜 시대를 열어 그의 사역 취임사에 해당하는 "은혜의 해" (눅 4:19)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의' 를 이루기 위한 시행 세칙으로 땅을 영영히 팔지 말 것을 선언하시고 (레 25 :23) 하나님의 뜻인 '의'를

[3] 대천덕, *산골짜기에서 외치는 소리* (서울: 한국양서, 1992), 271.

[4] Ibid., 17.

[5]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시작하여 십자가에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눅 23:45)으로 은혜시대가 온전하게 시작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른다.

실천하시고 열 두 제자를 양육하여 제자도를 이루시고 또 보혜사, 즉 '도우시는 이' 를 우리에게 본받도록 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이 '은혜의 해' 를 이룰 것을 약속하신 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셨다 (눅 23:45-46).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다 이루시고 알리셔서 온 인류에게 '은혜의 해' 라기보다는 '은혜의 순간' 들을 열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요 11:44)는 그의 명령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마다 은혜를 실행하여 죄와 사망에서 희망과 구원의 삶을 선포하며 나아가 이웃에게 공포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살라고 하는 은혜 시대를 여셨다. 마지막 대선지자 세례 요한도 은혜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눅 7:28b)고 하셨다.

이제 은혜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열 두살 될 때의 성경 공부를 살펴 보자. 율법 시대를 지나 은혜 시대의 시작에서 예수님 자신이 참석하시고 그가 보이신 성경 공부는 최상의 본보기로 누가복음 2:46-47 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하시며 '묻기도'하시니 (46)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47). 여기서 그 당시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말씀 공부의 귀중한 단면을 일별해 보게 되는데 선생들 가운데 앉아 함께 공부하는 예수님과 그들의 공부 자세, 즉 소그룹 으로 참여자 모두가 서로 가르치는, 그 질의 형태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토의식 말씀 공부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의 결과는 그들의 대답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베후 1:20-21).[6]

예수님이 장성하여 공생애 말씀 사역 중 한 장면을 더 살펴보면 그가 율법사에게 시험받으시고 그로부터 받은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그에게 묻고 연거퍼 되물으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신다 (눅 10:25-28). 25 절의 이 두 질문의 첫 번째는 "율법에 '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관찰, observation) , 두 번째, 네가 '어떻게 읽느냐' " (해석, interpretation) 27 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사가

---

[6]묻는 질문이 우선 open end question이어야 폭넓고 다양한 대답이 되어 듣는 자가 한층 더 높은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되고 연속하여 증폭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답하자, 28 절에서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적용, application)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정의되고 있는 귀납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7] 진리되신 말씀 그 자체로 이 방법과 동일한 것임을 위에서 보듯이 확인된다. 은혜 시대의 시작부터 20 세기의 말씀 양육에 격는 과정을 볼 때, 처음 3 세기 동안 박해에도 전통을 유지하고 진리를 넓게 받아 드렸으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 기독교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즉 영육혼의 인간적인 것으로 말씀을 혼잡케 (고후 4:2) 하여 성경의 접근을 혼미케 하니[8] 마침내 16 세기 Martin Luther,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새로워지고 있으나 온전하게 되기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은혜가 넘치는 이 시대에 문제도 넘친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이 옳으며 그분 앞에서 이것을 행해 온전케 되어야 할 것으로 (창 17:1) '말씀에 주의 하는 것' 을 밝혀 실제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답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역사하였고, 여호와의 신인, 성령은 인류 역사를 따라 운행하심을 계속하고 한국에서도 이조가 시작되는 14 세기 말 세종대왕 (1397-1450 년)의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치적에서 성령의운행하심을 느껴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용비어천가를 보면 이 한민족 위에 역사하시는 주의 운행과 구약 역사에서 시편 기자의 묵상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13)에 비교는 말씀에서 성령의 운행함을 유추해 봐야 할 것이다.

---

[7] 필자는 묵상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납적으로 접근하심을 깨닫게 되어 예수님의 질문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8] 필자는 천주교 신부의 성경 공부 방법과 접근에 대한 신자들로부터 들은 증언으로, 오대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양혜원 옮김(서울:예수 전도단, 2005), 241.

3) 한국 교회의 말씀 공부

한국의 구교는 오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일반 신자들에게 자유롭게 허락되지 않았고 신부들만이 허락된 라틴어 성경으로 예배를 따라 그들에게 몇 구절만을 봉독하는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진정한 말씀공부를 접할 수가 없었다. 구교로부터 개혁되었다는 개신교는 신자들이 말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나 접근 방법에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9] 구교의 고압적이요 권위적인 성경의 접근이 여전히 편만하고 말씀이 말하시는 자유로운 질문과 토의가 허용되지 않았다 (베후 1:19-21). 오늘날도 여전히 수건으로 눈을 가려 벗지 못한 채 자유함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에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말씀을 대할 지를 성령께 간구해야 한다 .

더욱이 20 세기초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귀납적 접근 방법의 성경 공부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며 이 말씀 공부의 선각자 이신 DR. Wilbert W. White 는 이 방법을 미국은 물론 여러 서방세계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고 제자 양육에 크게 헌신하셨다. [10] 또 한국 교회의 목회자 중 한 분은 이 귀납적 접근의 성경 공부로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11]

오늘날 대다수의 이민 교회들을 비롯한 한국 교회들은 연역적 방법의 말씀 공부를 계속하고 마치 성경 공부는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잘못된 개념이 널리 퍼져 구태 의연한 말씀 공부로 희열과 진리 탐구에 대해 아주 소극적인 경향이 팽배하다.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이런 상황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36 년간의 이민생활에서 깊은 관심과 비교를 했고 특히 요즈음 여러 매체를 통한 한국과 이민 교회의 말씀 가르침을

---

[9] 베드로후서 1:19-21.

[10] Newsletter, 'inductive Bible Study Network ' Fall, 1998 : Dr. Wibert W. White는 1901 년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을 세우시고(지금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초대 학장을 지내신 Inductive Bible Studies 의 놀라운 역할을 하신 선각자로 신학자요 교육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11]옥한흠 목사님은 소그룹 토의식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 소개하여 많은 제자 양육에 힘을 기울이시고 이 공부 방법으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

통해 거의 전무한 귀납적 접근 방법을 관찰하게 된다. 극소수의 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가 있으나 그들의 토의 안내서(guide book) 사용을 보면 편협하거나 부족한 점을 크게 느끼게 된다. 이런 잘못된 이해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진리 발견의 접근에 흥미를 잃케 하고 그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도 일어난다. 진정한 성경 공부는 '어느 사람'의 성경 공부가 아닌 오직 성경과 성령님만이 성경공부의 유일한 권위자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 공부' 이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필자는 십 여년 전 교회 사역에서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의 방법을 택하고 실행하여 교인들 자신이 직접 진리 발견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를 가져 '어느 사역자의 성경 공부' 가 아닌 '나의 성경 공부' 가 되는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로서 교회의 참여도는 물론이고 진리 발견에 대한 열심과 관심은 대단했다. 또 필리핀의 단기 선교에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신자들의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이 성경 공부를 소개하고 함께 공부할 때 놀라운 반응과 결과를 가졌다.

필자가 참석하는 교회의 목사님 부부 기도회 모임에서 이 토의식 성경 공부를 소개하여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 공부로 인해 그들은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을 실감하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할 뿐더러 말씀의 묵상이 깊어가 더해져 가고 말씀마다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기쁨을 맛보는 일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난다. 여러해 전 사역자들의 정기 모임에서 세미나를 통해 이 성경 공부를 소개했으나 반응이 소극적이었다. 그 원인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연역법 방법에만 익숙하여 토의식 공부란 말에 생소할 뿐더러 그것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지도하게 하기에는 아직도 자유함이 부족한 것 같았다.

이런 관점은 한국 교회가 성경과 성령님만이 권위자임을 진정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 것과 또 다른 한 이유는 이 방법의 성경 공부를 통해 이단의 가르침이 쉽게 침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었다.[12] 성경은 66 권의 책으로 이뤄진 도서실이고 각 저자는

---

[12] Marilyn Kuntz, *Inductive Bible Studies*, (New York: NBS).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같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 자리에서 (in one sitting) 읽고 성경 공부도 한책을 계속하여 끝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썼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보내진 편지를 받아 읽는 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나 문맥을 발견할 때 다른 책에 있는 그말과 그 문맥이 같다 하여 서로 비교 검토하지 않아야 한다. 편지를 보낸 자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자리에서 다 읽기를 기대할 것이다. 흔히 성경 공부나 혹은 설교에서도 본문에 속한 구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같은 구절과 내용을 사용하여 서슴 없이 그것과 비교하고 그뜻을 보충하여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인용의 한계 (frame of reference)를 정해 엄선하여 토의해야 한다 (고후 4:2 -4).[13]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에 들어 오는 이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 데 서로 문맥이 같지 않아도 그 상황의 일부만 같은 것, 이 두 가지를 무리하게 짜맞추어 문맥과는 상관 없이자신들의 교리나 논리를 증명코자 말씀의 한 부분만을 사용하여 그것을 이용한다.[14] 이 귀납적 성경 공부는 모든 문맥을 참조하고 적은 관찰들도 다 모아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이단이 접근할 수가 없으며 또 이 성경 공부는 문장 전후에 문맥 (context)을 감안하고 다른 말씀을 섞지 않는 지정된 본문만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단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구절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뽑아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그들의 주장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것을 막게 한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주께로부터 나왔는 지를 분별하고 확인해야 한다.

---

[13] Marilyn Kuntz and Catherine Schell*, How to start a Neiborhood Bible Studuy* (New York: NBS publisher 2002), 14.

[14] Marilyn Kuntz, Inductive Bible Studies, (New York: NBS): 신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면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말씀만을 취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 자신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 대부분의 분열은 연역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인 것 같다. 성경은 수많은 말들이나 실례의 사건들이 있어 그것들을 여기 저기서 연역적으로, 문맥을 무시하고 나열하여 말을 만들면 무슨 주장이나 거짓도 성경이 말한다고 하며 말을 만들 수 있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행 17:11)."

2. 연구 목적과 목표

1) 하나님의 본체로 변형되는 성경 공부 방법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고한 성품을 몇 마디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정의하는 말들이 없으며 Fredrick Verinder[15] 의 저서 <나의 이웃의 경계, My Neighbor's Landmark> 에서 "신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법의 근원으로서의 정의의 개념은 율법서와 예언서의 가르침 속에 모두 들어 있다" 라고 그는 말했다.[16] '정의'란 말은 그뜻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고 단순히 이것이다 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개념이다. 구약에 나타난 부와 빈곤, 압제자와 피압제자 사이에 보이는 사악한 조건들이 끊임 없이 반복되어 왔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지적되었다. 또 사회가 변화 발전되어가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신 '정의' 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십계명도 정의의 율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인류와 자연을 다스림의 근본되는 그분의 성품이 '공의' 임을 성경에 나타내시며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된 것이 그분의 성품의 근간이고 이 개념은 우리 안에서 한결같은 기준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 을 적용하여 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기초로 하여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레 25:23a)고 함축하여 말씀하시며 그 분의 의의 개념이 우리 인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와 빈곤의 문제를 바로 다루도록

---

[15] Frederick Veinder, *My Neighbor's Landmark; short studies in Bible land laws* (London: Land and Liberty Press, 1950).

[16] 대천덕과 헨리 조지, *토지와 자유—성서의 경제 원리* (서울: 생명의 샘터, 1987), 8. 이 책의 머리말로 성경의 정의관 이란 제목으로 Robert Clancy의 글이다.

명령하셨다.[17] 예언서들의 많은 부분은 땅에 연관된 일들을 나타낸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인 '공의 문제' 에 뿌리를 둔 사건들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고 중요한 가치관으로 표현된 이 희년의 선포하심은 그분의 정의의 요체가 된다.
하나님이 영구히 소유한 땅을 나그네된 우리가 이생에서 받아 쓰는 것 (은혜)과 또 그 땅이 남에게 팔렸어도 자동으로 원주인에게 되물려 (도로 사는 것, redemption) 돌아오게 되는 일이 (freedom) 매 오십 년마다 일어나 백성들이 이 '해방의 기쁨' 을 맛보고 시행하므로 '하나님의 공의' 를 잊지 않고 기억나게 했다.

땅에 관해 좀더 고찰해 보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겨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후 희년을 통해 되무름 (구속), 은혜, 자유가 가능해 졌다. 이 세가지의 개념은 신약의 주제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요 새로운 백성들의 기업으로서 땅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다.[18]
즉 이 땅의 개념은 현재 우리가 처한 삶에 빈부간에 격차를 해결하는 근원이 된다.[19]
구약의 유대 백성들은 그분의 뜻을 충실히 지키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택하며 바알법을 들여와 하나님의 의를 거스려 실효를 보지 못하는 말씀의 열매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때마다 일마다 직접, 간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함으로 그의 약속을 변함 없이 끝까지 지키신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하심이라 하라(수 4:24)."

2) 복음서의 성경 공부

[17] Ibid., 64.

[18] ibid., 68.

[19] Ibid., 7.

은혜 시대의 공생애 기간으로 들어와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말씀의 실제이며 실습이니 이것은 ‘산말씀’ 을 ‘산공부’ 로 하는 귀중한 시대이다.

신약을 처음으로 공부하도록 권장하는 기독교인은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서 신약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처음으로 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필두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다음으로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이렇게 할 때 그 그룹은 요한복음의 공부에서 얻는 큰 유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20] 마가복음은 문장이 짧고 직접적인 스타일과 거의 사용치 않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다루기 쉽고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요한은 역사적인 사건을 자세히 다뤘으나 사건의 깊은 뜻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것의 의미에 주의를 집중했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은 초보자에게는 힘이 드나 곧 그들 자신들이 깊은 물가운데 있게됨을 발견할 것이다.[21]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서두로부터 유대인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되는 조상 아브라함을 같은 혈통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며 그의 계보들 중에 훌륭한 조상과 또 자랑스럽지 못한 자들을 적라나하게 밝혀 명기하여 진실을 숨김 없이 나타내는 유대인을 위주로 한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 3:2)” 고 말한다. 그는 나라와 ‘오묘한 의’, 나라의 모형,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나라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 율법은 산상에서부터 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산상에서 천국의 헌법을 정하셨다. 모세의 율법은 외면적 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이 설교는 내면적 생활에 관한

[20] Marilyn Kuntz and Catherine Shell, *When To Study The Gospel of John of John Book 1*(New York: NBS, 1973), 10.

[21] D. L. Moody, Pleasure and Profit in Bible Study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54), 54.

것이다. 태양이 촛불보다 밝은 것처럼 산상보훈은 모세의 율법보다 밝히 비췬다.[22]

첫 복음서로 보이며 가장 간결하고 진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마가복음의 최고조는 아마 5 장일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 최악의 상태인 마귀, 병,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 해결은 단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뤄진다.[23]

요한복음은 '말씀' 이란 단어로 시작하며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 안에 거하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냄을 소개하는 말씀의 증언이다.[24]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또 완전한 신이심을 나타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이것은 주로 영을 주제로 쓰여진 점으로 보아 육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복음서이다. D. L. Moody 는 복음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요한은 그리스도와 숨김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사이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 그것은 요한이 주님을 제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
> 마태는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메시야로
> 마가는 활동적인 일꾼으로
> 누가는 사람으로써 나타냈으며
> 요한은 개인적인 구주로서 하나님의 품안에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 본서에는 '회개의 말씀이 한번도 없지만 '믿는다'는 말씀은 98 회나 있다."[25]

누가는 이방인이며 의사로서 누가복음을 쓰기까지 그의 세밀한 관찰을 기록에 표기하여 예수님이 열 두살 되던 그 당시 유대 성전에서 하시던 성경 공부의 장면을 살펴 보는 계기를 준다 (눅 2:46-49). 그때의 성경 공부의 진행 형태와 방법과 목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부모의 핀잔 섞인 질문에서 소년 예수님의 대답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혹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

[22] Ibid., 57.

[23] Ibid., 60.

[24] 윌치만 니(Watchman Nee), *말씀의 사역*,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206.

[25] D. L. Moody, *Pleasure and Profit in Bible Study* (서울: 생명의 말씀사), 66.

하신 대답에서 복음서의 성경 공부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 예배하는 것 혹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하는 것이 복음서 시대의 성경 공부의 목적임을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눅 2:10-14)의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보고... 전하니 (15-17) 듣는 자가 다... 기이히 여기되(18)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느니라 (19)." 여기서 듣는 자와 마리아는 두 가지 각각 다른 반응들을 나타낸다. 듣는 자 는 모두 '말한 것' 을 듣고 놀랬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 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묵상' 하였다. 고로 복음을 듣고, 찾아서 보고, 해석하여 그것을 적용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성경 공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묵상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나 관계된 일이 아닌 (not about word), 오직 예수 그리스도 (word Himself) 자신이시다.

누가복음 4 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받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준비를 하신 후 그분의 사역의 시무식과 같은 18-19 를 공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의 실천으로 레위기 25:23 의 희년의 뜻을 이어 받는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해 지는 은혜의 해를 언급하신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이며(22)" 그가 명하는 명령은 권위와 능력이 있어 더러운 귀신도 떠나게 된다 (36). 이와 같이 우리 자신과 제자들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로운 말과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에게 명령함으로 사역에 임해야 할 것이다.[26]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후 예수님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이야기하며 토의할 때 그는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고 문의하시며 가르치시어 성령으로 깨우치시는 그들과 주고 받은 대화의 시작을 질문으로 하셔서 서로 묻고 답하시는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어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신다 (눅 24:32). 그들은 가던 길을 바꾸어 되돌아감으로 그 말씀의 뜻을

---

[26] Tim White, *The Voice of the Martyrs*, (Nashville: W. Publishing Group, 2001), 153.

[27] Ibid., 155.

실천했다.[27]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지도하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복음은 바울의 지도 하에 기록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케논 휘라는 누가복음에 7 가지의 복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찬미와 노래의 복음이며 ... 둘째, 본서는 감사의 복음이다 ... 세째, 기도의 복음이다 ... 네째, 부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다섯째, 가난한 자, 낮은 자에 대한 복음이다... 여섯째, 잃은 자에 대한 복음이다... 일곱째, 인내를 가르치는 복음이다.[28]

성경을 권위자로 삼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이끌어진 접근은 관찰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뜻을 해석하여 해답을 찾고 그것의 해결책을 우리 삶에서 뜻을 찾을 때 이 성경 공부는 주를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눅 24:52-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 제자들의 양식도 주님을 본받아 그분의 뜻을 그들의 삶에서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사도 시대의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

(1) 사랑의 공동체의 목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일백 이십명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그들의 온전치 못했던 행함을 회개하고 그들의 부족했던 것을 고쳐 나아가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기를 기도했다. 오순절이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였다 (행 2:1-4). 얼마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후 운명하실 때 (요 19:30) 그의 영혼이 떠나가고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므로 (마 27:51, 막 15:38, 눅 23:45) 성령의 시대는 개막된다.

구약의 율법 시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성령의 역사 아래였고 그 역사도

---

[28] 케넌 휘, 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어났으나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고 죄를 깨끗이 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선지자 요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시며 만민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실 것을 약속했다 (욜 2:28-32a, 행 2:16-21). 그리하여 예고했던 때가 되어 그들은 성령이 충만케 되니(행 2:13)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을 때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밑받침하고 또 다윗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니 그의 권유에 저들이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명이 더하였다 (행 2:37-41). 그들이 죄인이며 상처를 입었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해방을 주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그들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다.[29]

이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데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제것을 제것이라 하는 사람 없이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믿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 갔다(행 2:42-47). 이렇게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신 공의가 여러 선지자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뤄지기도 했으나 진정 희년인 오십년마다 일어나는 자유 의지의 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에 정해진 희년을 기다리지 말고 순간순간 모두 긍휼과 구속과 해방의 순간을 너희 공동체에서 실천하라는 뜻이다.[30]

---

[29] 헨리 나우엔,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옮김 (서울:두란노, 1999), 118.

[30] 대천덕, *토지와 자유 – 성서적 경제관* (서울:도서출판무실, 1995), 67.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의미한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의 심판 (denouncement)과 재편성 (ennouncement)이라는 양면성으로서 역사 안에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 가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다.[31]

(2) 성령을 받았느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고 말씀하시어 (욜 2:28a)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새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마음을 너희에게 줄" 약속을 하신다 (겔 36:26a).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 사역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요 3:5). 이 시대는 율법 시대와는 달리 이 물붓듯 하시는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은 '진정한 희년의 일어남' 이며 오십 년만에 일어나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삼년 반만에 희년이 온전하게 이뤄졌다.[32] 더 큰 새로운 희년을 이뤄나가기를 당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리라고 부탁하신다 (요 14:12). 이 모든 자격이 갖추워진 제자들은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계시와 감동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눅 2:25-35).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 성령의 감동'을 가진 자이었다. 이 위의 세 과정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중요한 과정이며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접촉하여 우리의 삶으로까지도 연결시켜 어떤 환경이나 무슨 사역을 하든 지 필요불가결한 자세다.

---

[31] 은관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5), 104.

[32] 대천덕, *토지와 자유 – 성서적 경제관* (서울: 도서출판무실, 1995), 196.

이런 사람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몸인 공동체의 제자들이며 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이 자격을 가진 지도자 중심의 준비는 열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의 말씀에 훈련되어져 그들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시청각 교육과 실천적인 삶으로 그 결실을 맛본 자들이어야 될 것이다. 이 열 두 제자에 120 명의 제자가 되도록 합류된 자들의 수가 커지면 분리하여 그룹의 수의 정원은 7-8 명으로 고정되어 토의를 원활케 하며 그룹의 분리로서 그 정원으로 늘 유지하여 사랑의 공동체로 활발한 삶을 유지는 그 수가 적정선이 된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다른 곳에 또 하나의 공동체를 분가시킬 때 현 지도자가 나가 새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말씀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로나 일로나 성령의 도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하며 그것을 순종하여 지키어 사는 것이 성경 공부의 실습이어야 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간결하고 명료할 것이며 더욱이 여러 성경 구절을 망라하여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 것이며 많은 시간을 간구와 기도로 이루어진 이들의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사랑의 공동체의 예배는 율법적인 얽매임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의 해의 뜻을 어떤 환경에도 그분에게 맡기면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33] 또 지도자들은 믿음에 앞장 서서 권능을 나타내며 이 권능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탕이 되어 은혜를 끼쳐야 한다 (행 4:33).

John H. Westerhoff III (웨스터호프)[34] 의 교육론의 핵심은 신앙 공동체 중심이다.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신앙 안에서 사람들을 양육시킬 자리가 없다고 할 만큼 그는 교육에서공동체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다.[35]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이며

---

[33] Ibid., 13.

[34] Dr. John H. Westerhoff III was a priest and advocated through his writing, teaching, pasturing And educational work an enculuration model he called “catechesis” or christian formation.

[35] 고용수, *신앙 공동체 중심 교육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3),

양육에 중요한 과정 중 필요 불가결한 것들은 박해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의 경험일진대 이것을 이겨 나아갈 때 온전한 제자의 훈련이 되어 이 어려움들은 도리어 고도의 제자 훈련이 될 것이다. 사도 시대에 크고 온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자 일찍이 없었던 박해가 시작되었고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그것이다 (행 7:54-60). 이 첫 순교의 피로 인해 열매를 맺은 사울의 회심으로 바울이 된 일이며 또 여러 지역으로 성령의 사역이 확산되어 나갔다 (행 8:1).

사도 시대의 성경 공부는 그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진지하고 뜻깊은 성경 공부이었으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며 또 가르치시는 분으로 (요 14:26) 우리 안에 계신다. 또 성령으로 지시받고 성령으로 감동받아 살게 되는 그 삶 자체는 성경 공부이다. 이것이야말로 삶과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이 하나되어야 함이 우리의 간증이 된다. 여기서 받는 암시는 우리의 참된 진리를 배우는 성경 공부의 방법, 환경 또 조건들을 명백하게 나타내 보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공생애의 공부는 오늘날 그때의 환경이나 가르침이나 적용이나 결과를 그대로 본 딸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본땀' (copy) 은 언제나 동일하신 성령으로 옷 입고 그의 지시를 따름이며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늘 그분의 뜻을 묻고, 그때그때 따르는 지시와 명령에 순종함이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인 것이다.

웨스터호프에 의하면,

신앙은 인격이 지(知), 정(情), 의(意)의 총체적 행위 (a total act)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자 양육이 바로 이루워진다고 보며 이것은 Toennis 의 Germeinshaft 란 개념 이해로 그 뜻이 더욱 선명하게 될 수 있다. 그의 Germeinshaft 와 Gesellshaft, 1957 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연 ... 이다. 이 게마인샤프트적 관계는 부자, 친지, 친구와 같이 혈통이나 우정으로 엮어진 것이며 이는 자연 발생적이어서 사무적이고 관료계급 또는 타산적인 관계인 게젤샤프트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체 내의 의식에 기초하고 신앙, 동지, 사명 의식 등의 전체성을 따고 있다 ...

게마인샤프트의 개념에 기초한 교육체제는 합리성, 의도적 의지 그리고 목적을 향한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강조를 피한다. 그것은 성격상 '무의도적으로' 혈통, 우정에 근거하므로 교육적 기회는 계획된 환경보다 오히려 자연 발생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교사, 학생의 분명한 역할 구분이 없고 따라서 전문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36].

이처럼, 우리 세대의 자녀 교육이나 제자 훈련도 위의 그의 결론과 복음서의 제자 훈련에서와 공히 그 방향과 목표와 환경이 부합되며 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교사시다.

(3) 사도 시대 공동체의 필요 조건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의 생각과 사고와 생활이 달라지면 우리의 육의 생활도 함께 달라지며 이런 적합한 환경과 방식을 병행하여 바뀌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삶은 주어질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함께 육의 삶도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영과 육이 동일하다 (창 1:30).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5)." 특히 탐심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고 말세에 특히 빌립보서 3:19 절과 같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많은 올무에서 우리의 육체를 구할 것이며 삶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은 새부대에 담은 새술과 같을 것이다 (막 2:22).

(4) 공동체의 구성 여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할 때 우리는 교회의 크기나 공동체의 위치나 경제적인 관심사를 성령이 인도하심에 맡기게 된다. 인간의 육적 기준의 성공은 이미

---

[36] Ibid., 503.

우리의 관심사 밖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크기는 사도행전 2 장에 나타난 대로 열 두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백 이십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것은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인 단위가 되며 수가 더할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을 증축하거나 이사를 한 적이 없이 아마 분리하여 나간 것으로 사료된다. 말씀에서와 같이 경제적인 것도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께 순종함으로 일어났듯이 복잡한 이 시대에 공동체인 교회가 진정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눌 때 이 지구의 빈곤과 식량 문제는 사라질 것이 확실함을 말씀을 통해 보이신다[37]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순종 외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좋은 것을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31).”

(5) 제자 양육을 위한 성경 공부 내용과 방법

이 성경 공부의 연구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첫걸음이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단계로 승화되어 자라서 제일인 사랑의 경지까지 이르러 신성한 성품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에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다.[38] 우리가 말씀을 풀어 나갈 때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를 베드로의 말씀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발견해 보도록 하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말한다 (벧후 1:1-2). 즉 믿음과 아는 것은 같은 뜻이나 이 두 가지의 말들에서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안다고 하는 것에 더 늘푼수가 있는 것을 뜻하는, 믿음도 자랄 수 있으나 앎은 더 쉽게 자라가며 기대가 되는 것으로 믿음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더해 나가 종래는 사랑에까지 이른다 (벧후 1:5-7). 성경 공부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며 진정 제자 양육이 되어 많은

[37]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예수원 편집, 1988), 282.

[38] 홍성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서울: 예수 전도단 편집부, 1999), 158.

열매를 맺고 제자로 부르심과 택하심에 실족치 않게 되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 (베후 1:8-11). 또 이런 목적이 확고할 때 말씀 공부와 양육을 받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 은 '생각나게 함' 과 같은 뜻으로 (벧후 1:12-15) 동전에 앞과 뒤와 같다. 베드로는 위에 언급한 진리 (벧후 1:5-7)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또 그의 삶 전체와 사후에도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보고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벧후 1:16-18). 이제 세 번째로 더 확실한 예언 즉 성경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샛별같이 떠오르는 것을 주의해 봐야 한다 (벧후 1:19)고 말한다. 성경 말씀은 독자적으로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여러 '사람들'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서로 나눠낸 말씀이어야 한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듯이 (요 14:26)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에 언급한 진리를 생각나게 하며 우리는 물론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여 또 경험이나 해석을 통해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말한 것들이 우리와 그들이 발견한 진리가 되어야 한다. 즉, 그 진리나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지의 관찰 (observation)과 그것이 어떻게 혹은 왜에 대한 대답을 주는 해석(interpretation)과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적용 (application)으로 성경은 이 세 단계의 접근으로 나타내고 있다.

(6) 소그룹 토의

예언은 …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는 말씀에서 (벧후 1:21), 사람들이란 '복수'이며 말한 것도 '사람들이' 말한 것으로 서로간에 토의했음을 가리킨다. 이런 토의식 접근의 과정은 감동케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토의해야 하는 중요함을 나타내고 이 과정은 결론으로 유도되는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치 이것은 식물의 엽록소가 태양의 빛과 뿌리에서 받는 영양분과 또 공기로 필요한 광합성(photosynthetic) 작용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구상에 오직 유일한 방법과 같은 원리로 비교할 수 있다.[39]

A 소그룹 토의 안내 내용[40]

-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지를 당신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 사람들은 스스로 발견한 것 혹은 그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것을 대부분 기억하게 된다.
- 그것이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뜻하며,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나간다.
- 위의 세 가지 과정에서 관찰이 제일 중요하여 시간을 더하여 신중히 관찰해야 한다.
- 삶에 적용하여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관계와 삶의 질에 어떤 차이를 가져야 한다.
- 이 성경 공부의 권위는 언제나 성령과 성경 말씀 뿐이다.
- 이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의 인도자, 즉 질문자 (question-asker)는 그룹의 참가자 각자가 돌아가면서 인도한다.
- 성령의 감동으로 결론된 접근은 먼저 본문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고 다음은 구분된 단락을 적은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며 연구해 나간다.

B 소그룹 토의 방법

- 언제나 본문에만 집중하여 생각하고 토의한다.

---

[39]조한규 와 조주영, *자연농업* (서울: 씨지엔에프, 2008), 33.

[40] Neiborhood Bible Studies, Inc. (A. B.C. D.)

- 성경 자신이 말씀하게 하여 성경이 말하도록 억지나 짜마추지 않아야 한다.
- 말씀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삶에 적용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발언은 언제나 경청하며 따듯하게 받아드려져야 한다.
- 모임, 전 주간에 각 토의의 구분과 성경 공부 본문를 읽고 문제와 해답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C 소그룹 토의 도움말

- 성경의 다른 번역본의 몇 가지를 비교하며 본문을 읽으라.
- 그날의 토의 질문자 (인도자)는 문제를 읽고 토의를 자극하여 활발히 이끌며 대답은 삼가며 참가자들이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토의가 본문의 내용 이외의 것으로 탈락되거나 혹은 빗나가는 것을 절대로 삼가야 한다.

D 소그룹 토의대화의 형태

- 여러 가지 감각을 총동원하라.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거의 잊어버리고 20% 기억하며 볼 때는 이해하고 30% 기억하며, 그 해답을 발견하여 행동으로 참여할 때는 90%까지 기억한다.
- 토의의 장소는 안락한 분위기 유지가 필요하다.
- 노력을 통한 발견이 중요하다.
- 아는 사실에서부터 모르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 토의는 원탁으로 둥글게 앉고 들러 앉은 자는 누구도 권위가 주어지지 않고 평등한 대화를 골고루하여 그 대화의 관계로 서로 통해서 마치 별표와 같고 부채꼴과 같지 않아야 한다.
- 질문자 (인도자)는 참가자들이 토의에 참여도를 파악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토의에 참여하는 정도를 질문자 (인도자)는 파악해야 한다.

- 어느 참가자가 어떤 것에 확실한 설명을 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 지를 본문 안에서 파악하게 해야 한다.

- 발견이나 생각을 충동이는 어떤 증거들이 있는 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 토의의 대화는 잘 지켜지고 닫히지 않으며 넓게 개방적인 사고로 이끄는 질문과 대화인 지를 점검해야 한다.

(7) 소그룹 토의 안내서(Small Group Discussion Guide Book)

좋은 그룹 토의 안내서는 발견의 기쁨을 최대로 증가시킨다. 다수의 등산객들이 산의 최고의 경치를 갖기 위해 첫째는 유명한 사진사를 대표로 등산시켜 최고의 사진을 선정하게 하여 그들 모두에게 사진을 송부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등산객 전원 모두가 산에 올라가 각자가 선택한 최고의 경치를 뽑아 촬영한 후 내려와 서로의 촬영을 비교 검토케 할 때 물론 어느 등산객은 등산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가며 다 오르게 하고 선택하게 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전경을 폭넓게 이해하는 좋은 경치를 보게 되겠는가? 물론, 후자의 결론으로 유도되는 것은 이 성경 공부의 방법으로, 이 등산 안내를 하는 것같이, 토의를 진행하게 인도하는 것이 안내서이다.[41] 이 안내서는 질문이 까다로와 보이거나 또 너무 작은 것같아 보이나 정밀한 관찰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서 결정적인 진리 발견의 단서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치 탐정 이야기인 Doctor Watson 과 Sherlock Holmes 에서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Doctor Watson 은 완전한 진상을 보지 못하나, 주의 깊은 관찰자인 Sherlock Holmes 는 미세한 단서라도 잘 파악하고 전체를 정확한 해석과 옳바른 적용을 하는 것과 같다.[42]

토의 안내서는 질문의 이해를 고르게 해주는 역할의 도움을 받는

---

[41] Marilyn Kunz, *The Philosophy of Neighborhood Bible Studies,* Associated Director and Co-Author of NBS.

[42] Sir Arthur Conan Doyle, *The Great Advebtures of SHERLOCK HOLME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pocket books, 1976), 34.

(equalizer 혹은 handpuller),[43] 토의 질문 자체들이다. 또 성경을 아는 정도의 차이와 상관 없이 그룹 참가자들,각자는 '돌아가면서' (rotating) 토의의 질문자 (인도자)가 된다. 이러므로 참가자 모두는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므로 더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며 배우게 된다. 참가자에게 질문의 이해를 고르게 해주지 못하는 성경 공부는 진리 발견의 기쁨을 줄 수 없어 지리 멸렬한 성경 공부로 끝나기 쉽상이다.

토의 안내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44]

A 끌어당겨 돕는 것 (질문의 이해를 고르게 하는 역할, equalizer 혹은 handpuller)

B 토의 안내서의 평가 기준

a 우리 그룹 정도에 적합해야 한다.

b 본문을 교묘히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c 참석자를 교묘히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d 특수하게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을 쓰지 말아야 한다.

e 결론으로 유도되는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C 토의의 역동성

a 성경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토의에 함께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2 대 6 으로 소수의 성경 이해자만 있으면 된다.

b 토의 인도자 혹은 질문자ㅡ역할이 극히 제한적.

질문을 하는 역할.

---

[43] Discovering truth & building friendship through Small Group Bible Study 1993 ⓒ Neighgorhood Bible Studies, Inc.
질문 직전에 삽입함으로 그룹 토의자 전원의 이해도를 평준화시킴으로 성경 지식의 전문가가 아닌 자도 같이 참여하여 위화감 없는 토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44] Neighborhood Bible Studies (A, B, C, D, E) – The How & Why, 1993 ⓒ Neighborhood Bible Studies, Inc. Dobbs Ferry, New York 10522

질문의 역할은 '돌아가며' 한다.

c 전적으로 참여되도록 해야 한다.

D 그룹 토의의 안내

a 본문에만 집중해야 한다.

b 곁길로 빠져서는 않된다.

c 성경과 성령만이 권위자다.

E 그룹 토의의 형태[45]

질문자 (인도자)는 실제로 질문만을 읽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간의경직된 사이가 아닌 자유로운 대화 방식으로, 질문자는 다른 참가자들 각자가 해석과 적용 문제에서 그들의 생각과 발견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데, 가능한 한 시간을 기다리며 돕는 역할을 한다. 이 토의의 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부채꼴(fan like) 같지 않고, 별모양(star like) 같이 참가자 누구나 서로 대화하며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나눔을 가져 기쁨을 누린다.

4) 로마 천주교의 성경 공부

AD 313 년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들의 정치와 콘스탄틴 대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16 세기 초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2 세기 동안 군림한 종교로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초대 기독교가 아닌 변질된 기독교의 이단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눅 12:10). 삼 세기에 걸쳐 초대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에도 이는 더 융성하여 내실을 거두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로마 제국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넓혀 나갔다.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문제의 근원인 교회 신앙에 합세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진리를 왜곡한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부패와 추문을 일으키고 있다.

---

[45] Gladys Hunt,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Wheaton: Harald Shaw Publishers, 1984), 52.

오랫 동안, 그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자처하며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교리적, 이교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였다. 특히 십자군의 미명 아래 수백 년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과는 전혀 관계 없는 종교 전쟁을 일으켜 중동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을 회교도로 개종시킬 만큼 기독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들 싸움의 핵심은 겉으로는 종교 전쟁이었으나 실제로는 토지의 약탈이 주원인으로 그들의 관심은 토지 문제이었고 [46] 지금도 그것은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토지를 빼앗아 약탈를 일삼고 땅 주인들을 몰아냈으며 이에 반해 회교도는 그들의 빼앗긴 땅을 찾아준다는 알라 신의 '모든 땅은 알라의 것' 이라는 기치 아래 그들을 회교도로 개종토록 회유하여 세력을 확장하여 나갔다.[47] 이때, 극소수의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 , 재침례파, 메노나이트, 를 극심히 박해해 그들을 본거지에서 몰아내니 그들은 1709 년 이후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1717 년에서 1732 년까지 가장 많은 수천명의 신자들이 Pennsilvania 주로 이주했다.[48]

기독교의 한 지도자의 로마 천주교에 대한 논평을 여기에 정리해 보면 첫째로 천주교 타락의 근본은 교황무오설이다. 이것은 명악관화한 신성모독의 교리며 천주교의 위선의 극치다. 둘째, 그들은 성경보다 교파를 우위에 두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권위이고 이 말씀을 대치할 다른 아무 것도 없으며 이런 그들의 주장으로 말씀 아닌 교파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은 말씀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치 않은 것으로 말씀에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세째, 미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선지자 다니엘은 "멸망할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 (마 24:15)" 라고 경고한다. 네째, 천주 교회는 자기 교파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다섯째로

---

[46] 대천덕, *토지와 자유* (서울: 도서출판실, 1995), 68.

[47] Ibid., 67.

[48] John a. Hasterler, *Amish Society* (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52.

천주교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신부들만 라틴어 성경을 전유물로 사용했다. 근래 50 여년 전부터 일반 신자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나 성경 말씀의 해석 권한은 교회로만 제한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는 그의 은혜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방법이다. 이 상황에서 성경 공부는 형식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한정되고 그들의 신자들은 성경 공부의 인도가 허락되지 않을 뿐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 공부나, 교회 전통을 강조 혹은 강화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여할 수도 없고 더욱이 박해나 어려움을 이길 능력조차 없음은 당연하며 이미 지난 세기 말 중국의 공산당의 탄압 아래, 천주교는 그들의 믿음의 공력이 불같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마른 풀뿌리같이 흔적도 없이 타고 말았다.[49]

어려움 속에서도 참다운 신앙으로 의연히 열매를 이미 맺어 왔던 중국의 지하 교회들은 공산당의 극심한 박해에도 더욱더 돋보이는 승리의 결실을 보게 된다. 이 세기적인 비교에서 천주 교회는 허상으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인류 역사에 나타냈다. 이제 천주 교회의 미명 아래 진리를 전혀 모르는 많은 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참된 빛이 비춰져 그들이 이단인 것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와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기를 진정 원하는 바이다. 여섯째,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숭배하니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잘못된 교리이다. 이와 같은 천주교의 비진리와 허상을 말씀에서 밝혀 그 진면목을 드러내야 한다.

또 종교 행위들로 시종일관하는 그들을 일명 '구교' 혹은 '큰집' 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신교' 혹은 '개신교' 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전혀 적합한 교회의 명칭이 아니다. 또 그들은 정통성이나 이단 시비의 문제를 가진 교회로 그 피해가 크며 예수님 유년기 당시에 예배나 성경 공부와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그들의 예배는 말씀의

---

[49]보언 리즈(Vaughan Rees), *예수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 송용자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145.

자유함의 진리가 없는 이단과 같이 인간적인 예식과 형식으로 짜여져 있고 그 부패 또한 중차대하다. 오늘날 개신교도 천주교의 잔재가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온전치 못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또 교회의 모든 규범까지도 바르지 못한 영향이 역력하다. 개신교인 기독교도 이런 비진리를 버리고 새로워져야 하고 (골 3:5-10) 또 큰 개혁의 거보를 디뎌야 한다. 그것은 믿음의 진리를 바로 찾는 것인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5) 21 세기 이후 개신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을 위한 관찰, 해석, 적용의 세 단계를 거치는 묵상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관찰의 단계는 바라본다든지, 진리임으로 자세히 봐야할, 또 우리의 관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우리 자신보다도 더 귀하거나, 크거나, 닮으려는 대상들이다. 이런 관찰 단계를 지나면 해석의 과정으로 이미 전 단계인 관찰에서 해석할 자료들을 걷우게 된다. 이 해석의 단계는 우리 자신의 지, 정, 의 혹은 우리의 사고를 통해 그 관찰의 대상이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단계' 이며 또 관찰을 더욱 깊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 심각히 받아들여 객관화된 사실을 바꾸어 주관화하는 단계이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노라 (벧후 1:12)." 이것과 진리는 같은 대상이고, '알고' , '이미 섰으나', '생각나게 하노라' 의 이 세 가지 말들은 다 같은 관찰에 관한 뜻으로 다른 점은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가 다를 뿐이다.[50]

열 두 제자 중 수 제자인 베드로의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요긴한 시간을 경험하고 그의 특유한 삶의 역경인 예수님의 삼년 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며 보고 배운 증언자로 그는 우리에 대한 그의 소원으로 관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임을 간과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가 받은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증언한다. 이후에 사도 요한도

[50] B. B. S., School of Biblical Studies: the Basic of Bible Study.

베드로와 같이 간증하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 14:25-26)고 말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적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 단계로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두 제자의 증언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진리는 관찰과 해석을 지나 성령의 도움으로 적용하게 된다. 적용 단계는 가장 육적인 혹은 기계적인 단계로 보기 쉬우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라고 말하신다 (롬 12:1-3).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마다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신 두 세 사람이 모이거나 또 말씀 공부에서 성령 감화 받아 토의로 내려진 결론인 진리가 우리 삶에 행하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용이다.

성경 공부가 육적인 생각과 일들이 중점이 되어 보낸 시간 ,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도전도 없고 기쁨도 맛보지 못하면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런 성경 공부의 토의의 과정은 진리 발견의 기쁨이 매마르기 쉽다. 이 '발견의 기쁨' 은 우리 은혜의 삶을 성취하는 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하여 (렘 1:13) 우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서 '인치심 (deposit)' 인 것이다. 이것의 파급 효과는 토의중 각자가 발견한 것을 서로 나눌 때 기쁨이 더 증폭된다. 또 이 성경 공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크므로 그 사역이 융성해 진다. 기독교의 초기 사역은 미약해 보이나 그 결과는 창대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대형 교회를 속히 이루려는 계획은 참으로 재고해야 할 교훈이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성경 공부가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여 나아갈 때 큰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이, 천국은 보이지 않게 자라나 종내는 큰 결실을 이룬다.

(1) 하늘 군대의 보충부대

위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한번에 한사람씩 그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의

통치영역이 그 만큼 넓어져 천국은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51] 평신도라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두 가지만 가지면 누구도 하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투부대의 군사를 키울 수 있으며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빛으로 점령하기 위해 훈련시켜 파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성령이 허락하시면 세상의 누구도 직분도 관계 없이 이 진리를 따라야 한다.

필자는 수년 전 Florida 에 있는 Ft. Meyer 에 평생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를 하며 평생을 사역해 오다 은퇴 후에도 이곳에 모여 여전히 이 사역을 5 -7 그룹들을 지도하시고 함께 하는 그들의 뜻깊고 헌신된 아름다운 삶을 방문해 보고 참으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놀랍고 영향력있는 삶을 사는 자들' 임을 실감하였다. "야곱이 잠을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 28:16-17)" 라고 하였듯이 이 세상 어느 곳이나 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때,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을 그 곳에 파견하여 그 나라 확장을 위해 말씀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룹으로 공부할 때 위의 두 가지의 필요한 자격과 뜻깊은 대화를 인도하는 토의 안내서를 가지면 어디서나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따르면 저들은 열매를 맺는다 (갈 5:22-23). 오직 그의 뜻을 따르는 순종만이 필요할 뿐이다.

(2) 영적으로 개선된 환경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된 성경 공부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삶은 보편 타당한 적용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환경이나 다른 상황 아래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며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들이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를 이루는데 이들 중에는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자의적으로 가난과 어려운 삶의 환경을 택하는 사람들이나 또 어려운 체제하에서 정치적, 지리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51] Gladys Hunts,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Wheaton, IIlinois : Harold S. Publisher, 1994)

사람들에 대한 성경 말씀과 성경 공부의 전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시를 떠나 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은 육적인 중요성도 인식하지만 오늘날 도시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다.[52] 그들 중에는 자연농사를 좋아하며 간결하고 풍성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산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후 식물을 다루심에서 진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알게 된다. 또 이 일을 통해 식물의 탄소동화 작용과 빛과 물 그리고 합성의 오묘한 원리가 원초적 모양으로 보존 운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재발견 하게 된다.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신 '공의의 개념' 이 그의 말씀을 통해 면면히 흐르는 진리를 깨달아 레위기 25 장의 말씀인 "땅을 팔지 말 것은 그것은 영영히 내것" 이라고 하신 그분의 근본 뜻과 땅의 귀함과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운영해야 하는 교훈이 우리 인류의 가난을 물리치는 가장 근본 해결책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세상은 탐욕과 정치적 속임수인 죄악들로 방해 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된다.

희년으로 (레 25) 땅을 되물리는 구속, 땅을 희년에 돌려주는 자유, 희년마다 모든 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은혜의 근본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완되고 구약의 사상을 새롭게 하여 그의 '정의의 개념' 을 더욱 완전하게 하심을 보게 된다 (마 5:17). 이 운동은 가장 가까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에서 명백히 나타내 보인다. 그 중에는 Alaska 에 있는 힌돌농장(Whitestone Fellowship) 그리고 한국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53] 을 들 수 있다. 예수원의 설립자이신Rev. Reuben Archer Torrey III,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실험하기시 위해' 1965 년 강원도에 예수원을

[52]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예수원 편집, 1998), 324.

[53] Jane G. Torrey, *예수원 이야기*, 양혜원 옮김 (서울: 홍성사, 1999), 286.

세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시며 제자 양육과 실습과 실기를 실천하여 삶 자체가 말씀 공부이며 그들의 노동이 바로 그들의 기도가 되는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주께서 구약 에 보여 주신 그 당시의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차이의 사건을 도시를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하고 숙고할 만한 사건으로 깊이 묵상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3) 자의적 가난을 택한 자들

물질이나 재물은 우리의 삶에 수단으로 훌륭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나 대부분은 인간성의 연약함 때문에 그 반대로 얽매이기 쉬워 어두움의 종이 되는 삶으로 이끄는 경우가 더 많아 부정적인 결과를 보는 것은 명확관화한 이야기다. 이 사실을 직감하고 사려 깊는 사람들은 자신과 후손을 위해 자의적 가난을 선택하며 그 수는 많치 않으나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역사하는 진리임을 굳게 믿고 관찰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했던 깊은 사고의 경제 학자인, Henry George 는 그의 <발전과 빈곤> 에서 레위기 25 장 희년의 개념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발전시켜 우리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simple taxes, 단일세 라는 편리한 방법을 주창했다.[54]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인 '희년' 은 레위기 25 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복잡 다단해진 이 세상에서 그 희년을 실행하기 쉽지 않으나 그 희년과 같은 효과를 주면서 거의 비슷한 근본 개념인 공의 즉,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명령은 단일세론이다.

수백 개가 넘는 세법의 공평성이나 정의에 입각한 법이 아닌 누가 누구를 위해 법을 입안 했느냐에 따라 그 세법의 목적이 혼잡하고 복잡 다단해 진 세법들은 그 효과에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방대하다. 그러나 단일세를 택하면 그 간편함과 그 목적하는 바 공평성은 말할 것이 없다. 더욱이 단일세는 땅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준가가 정해진 뒤

[54] 대천덕, *토지와 자유* (서울: 도서출판무실, 1995), 118.

사회적,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오로지 잉여의 가치분만을 부과함으로 그 많은 명목으로 무원칙적인 부과보다는 간단하고 편하게 되어 그 땅의 가치는 어느 특정인이 소유함으로 부가가치가 더 폭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신 것임으로 당연히 어느 한 개인에게 돌아가게 함이 아닌 골고루 그 부가된 가치를 함께 나누어 사용하게 됨으로 그의 정의의 개념은 실현된다. 또 그 부하 가치가 세입이 되므로 너무나 충분한 세수입이 생기게 된다.[55]

이런 좋은 해결책도 인류의 탐욕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역사상 헨리 죠지의 단일세론을 단시간에 시행했던 몇몇 나라들은 엄청난 효과를 누려왔던 것으로 그 실효를 증명하고 있다. 그 단일세보다는 미흡하나 비슷한 효과가 있던 토지 개혁을 통해 한국이나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호주, 캘리포니아, 뉴질랜드 등이 행하여그 땅의 본래 주인에게 돌리는 일들로 시작한 것만으로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적화통일을 막는 효과가 있어 6.25 동란이 역전을 이룬 일이라든지, 기타 국가들이 부유하게 살았으나 그후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졌다. 그들은 바알의 토지법을 주장하는 세상의 탐욕에 이 법의 효능은 상실해 가기 시작하고 그 개혁의 효력은 동시에 떨어졌다. 사회적인 문제와 빈곤이 늘어 갈수록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될줄 믿는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으로 그 분의 뜻을 성령의 권능으로 순간적인 희년을 이룸은 우리 전체의 삶의 목표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 온전함을 이뤄야 할 것이다.
또 신용조합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하며 그들에게 농업 기술을 자문하여 주고 땅을 거져 빌려주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

[55] Ibid., 120.

(4) 억압과 박해가 극심한 지역

터키나 중동 혹은 아프리카의 유달리 박해가 심한 지역들은 주로 10/40 윈도우 지역으로 불리는 가장 심한 박해가 상존하는 지역을 말하며, 수 세기 전 그들의 나라를 따라서 나있던 비단길 (silk road)을 통해 중국 지하교회는 '백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이라고 하는[56]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뤄야 할 마지막 전도의 과제로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믿기로는 이 마지막 험난한 미종족의 선교를 그들 중국 지하 교회에게 위임하도록 자청하고 있는 데 그들의 여건과 이 험한 마지막 전도는 중국 지하 교회와 같이 극한 고난과 극한 어려움으로 훈련되지 않은 제자들은 감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방 교회는 중국의 토착 지하 교회의 의견에 협조하고 기도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라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분담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 농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리가 반영된 곳에서는 이미 알려진 indigenous micro organism, 토착 미생물 만이 그 어느 지역을 잘 알며 오랜 세월을 번성케 하는 방법을 알아서 가장 잘 발육하듯이[57] 우리의 전도나 선교도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를 알아 말씀을 효율있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억압과 박해를 받은 자들이 이런 능력으로 선교의 발판을 놓게 된다.[58]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며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한 것은 우리들에게 제자 삼는 좋은 본보기다 (행 19:1-9). 이와 같이 우리도 중국 지하 교회와 함께 한몸되어 주의 사역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인구 대비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통계 숫자를 만족하게 여기고 약 이 만명의 선교사가 나가

---

[56]윈형제, 해터웨이 폴, *백투 예루살렘*, 류응렬 옮김 (서울: 홍성사, 2005), 157.

[57] 조한규, 조주영, *자영농업* (서울: 씨지엔에프, 2008), 45.

[58] 김광식, *토착화와 해석학*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3), 116.

있음을 자랑한다. 나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또 물을 주는 자가 다르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고전 3:7). 이러한 협동의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이 그들에게 보이는 전도이고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이고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보이는 선교를 해야 한다.

(5) 중국 지하 교회와의 협력

한국 교회는 현재 많은 노력을 선교에 힘써 일을 하고 있다. 중국 지하 교회는 1920 년 이후 오랜 시간을 공산화된 중국과 홍위병의 봉기로 고난을 겪고 시련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 있다. 이 두 교회는 성격이 상반된 점이 많으나 이 두 교회가 세계의 남은 종족의 선교에 힘을 합하여 함께 사역하는 것이매우 좋을 듯하다. 이것은 정(正)과 반 (反)이 합(合)하여 Synergy 를 내듯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해방이 될 것 같아 보이므로 우선 북한을 복음화하고 그들도 동반자로 세워그들의 견뎌옴을 통한 know how를 동원한 그 경험으로[59] 중국 지하 교회와 합쳐지면 여러 면으로 유익한 점을 키워 가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야말로 삼겹줄의 굳건한 선교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는다 (전 4:12).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 파송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크게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성령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점이 아닌가 한다. 다다익선이라 하여 많이 보낼수록 좋기만 한 것인가 혹은 성령님께 확인 받고 나가야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고린도전저 1:16-21 에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많이 세례를 주어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있는 힘대로 할 때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으며 많은 파송만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일이다.

---

[59] 오대원,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Vancouner, Canada: 안디옥 선교 훈련원, 1998), 3.

중국 지하 교회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제자가 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일 때 해외 선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필자는 수 백명의 한국 선교사가 그 곳에 파송되어 있으며 그들은 한번도 그 지역의 선교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서로 한몸되어야 하는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전 1:13) 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이런 상태에 숫자만 많은 한국 선교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발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염려되었다.

중국에서 17 여년을 지하 교회들과 변방에서는 삼자 교회를 선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며 병고침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선교사님을 따라 중국 동북삼성에 선교를 단기로 참여하였다. 그들은 그 기간에 방언도 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변화를 받았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듣기 원해 모이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자신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어야 하나 매끼, 매번 말씀을 먹이는 것으로 만족함보다는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이 얻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것 즉 용서를 믿고 있으면 (벧후 1:5-7) 그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닌 믿으면 행하여져서, 덕으로 나아가 그분을 알게 되고 이 지식에서 절제를 키워나가게 되는... 종래는 사랑에까지 이른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움에 가리워 옛 죄가 깨끗게 된 것을 희미한 사실로 잊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 희미한 믿음만이 있거나 혹은 죽어갈 것이며 또 믿음은 약화되어가고 성장이 없어 죽어갈 것이다. 누가 '오직 믿음'이라 했는가? 또 믿음만이... 이라고 잘못 표현했는가? 믿음은 물기가 닿은 씨앗이요 곧 싹이나서 자라가든가 싹이 나오지 못할 때는 죽어 없어지든가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은 곧 자라야 하며 주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전도하고 구령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60]

이 선교사님의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의 영적 배고픔을 해결한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 식사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식사를 만들 줄 알면 그후로는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 선교사님 없이도 그들이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는 법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다[61]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면 그들에게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선교사가 그곳을 다시 방문하지 못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가능하고 또 외부 지도자 없이도 그들이 성령을 믿고 성경 말씀만 있으면 이미 주신 이 두 가지 도구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토의와 묵상을 통해 진리의 보화를 케내어 서로 그 과정을 나눌 때 '발견의 기쁨' 과 '나누는 기쁨' 의 이중의 상급을 얻는 진리 위에 추가된 유익함을 얻게 된다.

이 성경 공부 인도에 갈급한 그들에게 전할 때 이 두 가지 기쁨은 다른 세상의 어느 상급보다 귀한 것이다. 이 기쁨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편만하게 된다.

최적의 토의 그룹 숫자는 7-8 인으로, 최하 숫자는 2 명도 가능하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신다" 는 말씀에 의해서다 (마 18:20). 예레미아 31:33 과 에스겔 36:26-31 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왔던 성령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물붓듯이 주시며 요엘 선지자의 말씀 2:28 에서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한 약속이 이루워졌다. 우리의 불순종과 경건치 못한 삶이 경건을 열매 맺어 사랑까지 자랄 수 있어야 하는 데 맹인같이 되어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벧후 1: -9)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열매 맺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식에 싸여 본래 주시려는 그 영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은 안타까운

---

[60] Hollis L. Green, Th. D., *Why wait till Sunday?* (Minneapolia, Minnesota: BETHANY FELLOWSHIP, INC., 1975), 21.

[61] Howard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옮김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2), 54.

일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여 기억할 때 이 말씀을 믿게 되고 심령에 이 진리가 마음에 샛별같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벧후 1:15-19). 가장 좋은 교사요 도움되시며 능력이 크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 분의 뜻하는 인도로 말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며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으시는 (고후 4:2) 주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동원해 성령님이 더 자신을 의지하여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묵상을 통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토의식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간추려 간추려 본다.

- 필수적인 것은 성령만이 권위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발견하는 성경공부.
- 참가 인원은 한 그룹이 2 인이상 7-8 명이 한 그룹, 그 이상은 그룹을 나눠야 한다.
- 불필요한 것은 이 성경 공부의 모임은 특별히 준비된 자나 선생은 없고 그룹 전원 전원이 성령의 인도로 함께 묵상하며 준비하고 질문자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선정한다.
- 때와 장소는 그룹 전원이 동의 하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고 한번 모임은 한 시간 전후로 한다.
- 토의 질문 안내서는 말씀 묵상을 오래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만든 좋은 질문 토의를 위한 안내서는 하나님의 뜻만 따른 안내서이어야 하며 사람이나 말씀을 사람의 뜻대로 다루려 하지 않아야 한다.
- 공부의 특징은 a. 토의 질문자 (인도자)는 그룹 토의 참가자만이 돌아가며 질문하여 그 토의를 이끈다. b. 미리 지정된 본문만 취급하고 본문의 내용에만 집착한다. c. 이 말씀은 무엇이며 (관찰),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 변화를 주는 지 (적용). d. 본문과 질문 외에 다른 논제를 취급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공부 적용 장소는 성령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 (가정, 교회 소그룹모임, 학교 방과 후, 군대, 교도소, 여행중, 운동과 오락 시간에 곁들임, 여객선상 혹은 창의적인 전자시대에 가능한 곳)

오늘날 사회는 점점 복잡 다단하여지고 우리의 삶은 분주하여져 세상적인 것을 멀리해야 하며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중에 하나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의 선택이 중차대하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의 일에서도 큰 경고가 있고 (창 13:10)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하여 그들의 삶을 바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데 이제 말세가 된 이 세상에서는 그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 도시의 삶은 현대인의 삶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도시를 떠나는 것은 그분의 뜻과 일치한다고 느끼고 있다[62]

영적으로는 이런 선택이 평강과 안위의 삶으로 이것은 물질의 다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마음의 정함의 상태가 중요하며 바울은 먼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빛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골로새서에 잘 표현하고 있다 (골 1:10-12). 이때에 우리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함이 아니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됨을 잊지 않게 된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여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진리 전달의 방법이나 분위기는 하나님의 근본 정신인 '정의' 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을 택하여 진리를 배우는 자들 자신이 생각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존중하는 분위기와 방법이며 진리 전달자는 긍휼과 인내로 인도하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설교 자세에서 설교할 주제나 본문을 한 주일 전이라도 미리 공포하여 교우들이 묵상하게 하며 다음 주에 들을 말씀에 준비케 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또 그 날의 설교에서 그들의 반응과 의문과 혹 시정하고자 하는 각종 의견들과 질문들을 서로 나누고 토의하여 더 깊은 말씀의 이해를 가져 진리를 더 확고히 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설교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아닌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말씀을 널리 알리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가 아닌 열린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

---

[62] Group dynamics-How to maintain heathy group ⓒ 1992 Neighborhood Bible Inc.

몇년 전 필자는 Florida 에 있는 한 미국 교회의 성경 공부와 예배에 참석하고 듣고 본 예로서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 공부로 교인 모두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 정도와 년령에 따라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부반으로 나누어 제자 양육에 힘쓰는 말씀 공부를 하였고 말씀의 적용이 쉬운 방법으로 시작하여 성령이 지혜주시는 대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었으며 그 특징은 전 교인이 같은 말씀의 구절을 따라 묵상하며 언제 어디서나 또 가족이나 교우들간 그들 각자가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배워는 기쁨과 공통된 말씀의 훈련과 양육으로 서로 권유하며 기도하는 귀한 사역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 주간의 설교 본문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위한 말씀의 절수를 선택하되 연속적으로 계속될 성경 공부 교재를 택해 (토의 안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도록 한다. 그 주일의 주보에는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예습과 묵상 자료로 토의 안내 질문들과 '본문과 제목을 미리 게재한다. 이를 위해 각자의 적합한 시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가정 예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보를 이렇게 사용할 때, 교회의 주보는 가장 생산적이며 창조적으로 묵상의 도구가 되고 기도의 동반자요 지침서가 된다. 준비된 교인들은 매 주일의 본문, 제목, 설교의 내용, 설교자가 나눌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참여도는 달라지게 변화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의 기회에 공평한 나눔이며 교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필자는 개척 교회부터 주보를 예배 순서지로만 사용하지 않고 위에 언급한 대로 게시하며 또 토의안내 문제 몇 가지를 함께 포함하여 전 교인 모두가 실행하지 않터라도 말씀을 은혜롭게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 보다 좋은 말씀의 안내가 없었다.[63]

그 다음 문제는 반응하는 (responsive) 설교이어야 한다. 인간적인 권위가 절대적인 천주교는 이런 실현성이 전혀 있을 수 없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도출되는 성경 공부나

---

[63] 1997 년 필자의 개척교회 당시 본 내용의 게재와 실천을 하였다. 로잘린 한인교회, 140 East Broadway Roslyn, New York 11576

설교가 있을 수가 없다. “먼저 알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벧후 1:20-21)” 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천주교는 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따르지 않으며 우리 개신교도 이 말씀에 비추어 현재 우리의 설교나 성경 공부가 말씀대로 행하여 지는 지를 엄격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진리의 자유함을 따라 더욱더 이 말씀의 뜻대로 다수가 말씀을 푸는 것에 참여하여 이 ‘반응하는 설교’ 를 은혜받는 통로로 선용해야 한다.

시간이나 장소가 허락되면 설교 끝에 시간을 넣어 질문, 반응이나 의문을 받을 수 있고 혹은 교제 시간에 그것을 다룰 수 있거나 혹은 구역 예배나 수요 예배에 혹은 그 주일의 편리한 시간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의 적용과 결과를 나누는 시간은 설교의 한 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적용과 결과에 대한 재평가가 없다면 교인들에게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 가는 것에 심각한 권유 없이 교회만 나와 듣기만 하여 구체적인 열매를 가질 수 없고 또 다음 주일 또 새말씀을 소개받음으로 이런 과정이 반복 될 때 시간만 낭비하는 종말로 우리 예배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듣고 공부한 말씀을 다음 주일까지 적용하도록 권유하고 말씀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 행하여 온전하라 (창 17:1b)”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행함을 이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 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중보기와 공동체를 보살펴야 할 것이다. 또 행함에 있어 도전이 될 때 사역자는 그것을 받아 들여 다음 주 말씀의 새본문의 설교를 뒤로 연기하더라도 한 주간 더 보완하는 하는 실행의 어려운 점들을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러므로 매주 새본문의 설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III. 귀납적 성경 공부의 이해

1. 성서적 이해의 배경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되시는 성경에서 나타내 지는 영적인 감동으로 도출된 성경 공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약에 나타난 귀납적 성경 공부의 이해—창세기, 느혜미아, 욥기

-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과 먹을 거리와 육신의 삶에 필요한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가 보시기에 좋은 것만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온전하고 그가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셨다 (창 3:25).

그러나 지으신 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불순종했을 때 [64]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성서에서 율법의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고 바울이 말하듯이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이라 (고전 15:56)고 말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는 시편 1 장 1 절의 말씀과 같이 죄악은 우리의 속한 곳에서 떠나게 하도록 그의 꾀로 이탈시키고 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들이 속해 거하는 장소에 대해 우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해 거 (居)할 천지 (땅을 포함)를 창조하셨다. 그의 관심은 그들이 몸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들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사는 삶에 그분의 뜻이 행하여

---

[64] Rick Joyner, *There were two trees in the garden* (New Kensington, PA: Whitaker House, 1992), 10.

지기를 기원하셨다. 아담과 이브, 이 두 사람은 동산의 자유를 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자유까지 누렸다.[65] 즉 그들의 불순종이다. 그것은 적은 죄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개입하시고 그의 관심을 보이시며 그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그들이 한 일을 그들 자신이 알게 하고 또 깨우쳐 회개케 하시는 질문을 통해 인간의 참상을 알게 하시고 그들 자신이 저지른 것이 무엇이며 결론으로 자복케 하는 데에까지 이르도록 조급하지 않으나 엄격히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창세기에서 그들은 첫째로 그들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인지하여 그분의 높으신 사랑과 뜻을 아는 믿음으로 둘째,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언약의 성취를 바라고 인내하며 시행착오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세째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는 성취을 통해 진리되신 분을 부르며 바라고 따른다. 진리를 주의해 보고 육적인 지, 정, 의, 의 뜻으로 아직 묻고 있는 '네가 어디 있느냐 ' 라고 묻고 계시는 그분을 따르려는 노력과 그 땅을 정복하고 얻어내는 신뢰와 순종의 결과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여 성령의 지시로 체득된 말씀 공부를 육체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의 가나안으로의 이주 역사는 말씀의 과정과 같은 삶으로 쓴 그분의 이야기이다.

여호와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는냐" 는 질문으로 그것은 아담이 불순종할 때에 묻은 질문이었다 (창 3:9-11). 다음으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는 질문을 하시고 세째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며 그의 회개를 촉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그의 불순종의 죄를 다스리기 위한 처음 질문들이다. 이 세 질문은 아담과 이브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며 또 유의할 것은 이 세 질문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모범을 보이신다.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은 이 세 가지 질문들 (9b, 11a, 11b)은 인간에게 한 최초의

---

[65] Marilyn Kunz and Catherine Schell, *Genesis I* (Dobbs Ferry, New York: NBS, 1995), 27.

질문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시이며 인간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할 그분의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또한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묻는 질문이요 우리는 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귀중한 질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실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점검한다 (자기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 (깨우침)을 통해 고쳐나가 변화를 궁구하게 된다.[66]

(1) 창 3:9b ㅡ "네가 어디 있느냐"

주의 깊게 무슨 뜻인 지 (성령의 도움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다. 문맥에 따라 판단한다. 문장에서는 글이 쓰여질 당시에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관심이 크시다.

(2) 창 3:11a ㅡ "누가 너의 벗엇음을 네게 알렸느냐?"

전후의 상황 아래서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의미는 무엇인가? 본래의 독자들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들에게 너의 대적을 판별하라고 경고하신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돌아보라 고 하신다.

(3) 창 3:11b ㅡ "내가 네게 먹지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 나의 삶에 이 진리는 어떻게 적용되며 성령의 감동으로 귀결되어지는 나의 현재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저지른 죄나 잘못을 되돌이켜서 현재의 삶을 변화, 회개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사랑을 읽어야 하겠다.

위의 (1), (2), (3) 을 각각의 질문에 따라서 주는 대답을 종합해 보면 1 은 관찰로 2 는 해석을 3 은 적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를 때 위의 세 종류의 질문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순서로 질문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되는 접촉의 방법의 핵심이며 이 방법으로 문제되는

[66] Rick Joyner, *There were two trees in the* garden (New Kensington, PA:Whitaker House, 1992), 11.

대화를 시작하셨다. 이 과정의 대화를 거쳐 전에 아담에게 없던 자의식은 그가 벗었음을 알게 하고 그 결과로 숨는 일이 일어난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자의식을 낳아 그를 숨게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과 멀게 하며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또 불순종의 결과에서 오는 자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마음 속에 두려움을 유발하게 되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67] 이 세 가지 질문에는 하나님의 다목적인 의도가 있으셨다. 먼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즉 사랑으로 그들의 처한 곳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며 그의 그들에게 공히 느낌은 그들의 불순종의 잘못을 돌이켜 보게 하여 이런 곤란한 지경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 출구를 암시하시는 회개, 마음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출발, 거듭남을 가르치신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복음에 대한 핵심이 다 들어 있음이 사료된다.

이제 아담은 그의 행동에 대한 삶에 적용으로 그가 잘못 행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12b) 여전히 핑개를 대고 있는 실토였으며 온전한 회개가 아닌 피치 못해 하는 회개였다. 중대한 순간이 닥아 왔으니 그 과일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사실이었다 (창 2:17). 또한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완전한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삶이 소실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으셨고 그들이 과일 먹은 것을 시인하시고 제한적이나마 그들의 삶을 긍휼이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창 3:21). 에덴 동산에 살 동안 필요치 않았던 가죽옷은 달라진 환경을 위한 그분의 사랑으로 준비하신 것이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류 최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이 실락원으로 추락하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이브를 다루시는 그의 모든 방볍과 그분의 뜻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이그러진 양심과 그들의 불순종에서도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시인하여 그분의 긍휼로 언도 판결을 받게 된다.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설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다. 창세기의 복음서(창 50:15-21)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낙원을 잃었을 때 우리와 교제하시며 손수 지으신 만물을 누려보기 원하시는

---

[67] Ibid., 11.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인간은 그분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낙원을 잃어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심으로 낙원을 잃은 그들을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창 3:23).[68] 이제 그들은 바뀌어진 열악한 세상을 살아야 했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위의 언급한 본문 15-19 절을 묵상할 때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잘못한 죄로 인해 두려워하며 그들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떳떳치 못한 구실을 대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나 요셉의 믿음의 관점은 형들의 초라한 관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의 형들과 요셉의 다른 점은 믿음의 관점이며 그 형들은 죽음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고 하는 불신앙의 관점이었으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속사의 모형이다. 형들의 관점은 바르지 못하여 요셉을 그들의 주관자로만 생각하는 잘못을 나타낸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와 사랑은 그들이 상상치 못한 은혜와 긍휼함이며 요셉의 용서하는 사랑을 그들은 꿈도 못꾼 것이었다.[69] 이런 판이한 관점에 대해 요셉의 진상을 밝히는 이 사건의 설명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하고 (20 절) 그는 하나님되심을 나타내시며 전능자의 위엄과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됨을 나타낸다. 요셉의 관점은 그의 신앙과 그의 삶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해석했던 것이며 21 절에서 형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권고하며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라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보증한다.

이 이야기에서 인간들의 선악을 앎으로 오는 비극과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 결과에는 형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워 하는 죄에 매인 모습과 요셉과 같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 중심과 그의 뜻을 궁구하며 행하는 (창 41:16…) 요셉을 애굽왕 바로는 그에 대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다' 고 (창 41:38-39) 극찬하며 그를 애굽의

---

[68]조한규, 조주영, *자연농업* (서울: 씨지엔에프, 2008), 25.

[69] Gladys Hunt, *Genesis 2*(Dobbs Ferry: New York NBS, 1998), 89.

총리로 삼았던 승리의 풍성한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사건의 15 절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들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그들 각자가 보는 관점과 믿음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이어지며 (창 41:16-19) 이 두 가지 극명한 대조와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해석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점이나 믿음에 의해 판이하게 달라지며 이것은 구약에서 보는 예수님의 구속사며 구약의 복음서이다.[70]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 49:22)" 라는 그의 아버지의 유언과 축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만 하다.

- 느헤미야 8:8, 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여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를 살피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읽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를 알게 하고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 그들의 삶에서 이 율법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느 8:8).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 읽으며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렸고" 에 무슨 뜻인 지를 궁구하는 장면으로 (8:1-6) "백성이 제자리에 서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는 해석의 장면으로 (7-8 절) "…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9 절)" 는 적용 결과의 장면으로 그들을 회개케 한다. 느헤미야서는 총독 느헤미야와 제자겸 학사 에스라가 그들이 실행하지 못했던 희년이나 안식년의 시행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준수가 중요한 것으로 우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그 공사가 끝나자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게 하여 율법을 상기시킴으로 백성을 근심에서 떠나게 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느 8:9) 백성들을 말씀으로 계몽하자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계몽운동 겸 회개운동 에 나타낸 말씀은 그들이 성령의 지시로 체득한 성경 공부의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공의의 자유 선포 시행하는 일을 버리고 오랜 세월을 잊어버리고 지나다가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기

---

[70] Ibid., 67.

위해 먼저 회개하게 하였고 이 목적을 위해 말씀을 가르쳐 읽고 듣게하여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개혁자인 총독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퇴패하고 허약해진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에스라와 함께 중흥을 일으켜 믿음의 대각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듣게 하고' '그 뜻을 일깨워 주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무슨 뜻인 지 살피고' 전후 상황에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며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심대로 시행하는 것, 이것은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말한다.[71] 또한 현대인이 소원하는 자유는 신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다.[72] 이런 자유에 대한 회개운동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다.

-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 변론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을 가르치시며 또 그와 함께 묵상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근본 뜻을 성령의 지시로 체득한 접촉과 말씀 묵상을 통한 대화로서 욥기서 전편에 그의 삶과 행함과 또 그 결과로 얻는 축복된 생의 결말은 나는 욥의 한평생에 걸친 대드라마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절정을 이른다. 우선 욥은 하나님께 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 지를 내게 알게 하소서 라고 말한다 (욥 10:2). 이것은 욥의 성경공부의 전체 제목이 되며 41 장까지의 해석이 있고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성경 공부의 결론의 해답은 42:4-6 에 나온다. 욥이 여호와께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는 관찰로 앞에 전체 제목인 '하나님께서 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 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의 질문을 알려 달라는 부탁이다. 주께서는 우리와 변론하자고 하시며(창 2:9)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의 말씀은 (42:5) 전에는 듣기만 하였으나지금은 눈으로 주를

---

[71] School of Bible Studies: the Basics of Bible Study.

[72] 박아론, *현대신학* (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75), 135.

뵈어서 마음으로 깊이 알았다는 고백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 절의 이 말씀은 자신을 개탄하고 혐오하며 재 가운데 통회하는 것으로여호와께서 이런 회개를원하시며 이것은 욥기의 최종으로 목표하는 결론이 된다.

이 세 절들의 대화의 접근으로 우리 인간의 회개를 통감케 하시지만 여호와의 인격이 단번에 단죄케 하심이 아니요 오래 참으시는 과정을 거쳐 인격을 대우하시며 진리나 사실을 관찰하게 하므로 그 내용을 잘 듣거나 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시고 이것의 결과로 어떤 관계나 영향을 끼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계시로 체득케 하는 성경 공부이다. 욥기 전체를 통해 직접 변론을 하신 말씀은 9:3, 10:2, 13:8, 15:3 그리고 23:7 로 변론을 강조하시며 욥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권유하시며 (40:7) 또 욥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묻거나 (42:4)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해야 할 이유까지 묻는다 (10:2). 그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로운 대화나 변론을 제의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토의하는 (벧후 1:21) 성경 공부는 여호와의 뜻으로 그 말씀을 받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며 또 제자 양육도 이런 성령의 계시로 체득된 것으로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햇빛과 공기를 더 얻기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하든가, 꽃에 더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나, 식물이 더 푸릇하고 생기 있게 함으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꽃과 열매가 자유롭게 맺어지도록 조용히 평정을 잃지 않고 줄기에 붙어 있는 것 뿐이다.[73] 이 성경 공부의 근본은 묵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욥기 38:4 에서 나타난다. 창세기 3:9 에서 언급한 대로 이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지은 죄를 다루실 때 처음으로 쓰신 질문이며 이 질문을 근본으로 하여 모든 우리 문제들의 근본을 다루는 조물주의 관심으로 이것은 그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을 계속 보이고 계시며 이

질문의 대답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 여호와의 질문은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하며주께서는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우리의 어디있음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나누며 전하는 것이다.

2) 신약의 나타난 귀납적 성경공부의 이해 ㅡ누가복음, 사도행전,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 누가복음 2:46-47 에 나타난 당시 성경공부의 광경에서 주님의 공생애 사역 직전 구약 시대의 말씀 공부 광경을 언듯 일별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구절에 묘사되어 있다. 의사인 누가는 그의 특유한 섬세한 관찰로서 이 장면을 묘사하여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나 자세가 둘러 앉아서 토의하며 질의 응답하고 또 예수님을 포함하여 듣는 자들 모두는 서로 배우고 나누는 기쁨의 진리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74] 이 광경은 오늘날 불리고 있는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과 형태가 너무 같 다.

위에 기록된 누가복음의 광경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 데도 성경 공부의 말씀에 따른 방법과 형태에 변함이 없음을 보게 된다. 어느 곳에서는 이것보다 더 뒤떨어진 형태의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이것은 14 세기 동안 로마 천주교가 기독교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되어야 하는 (막 2:22) 말씀 공부와 기독교 전파에 인간적 중심의 외형만을 중시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다루며 등한히 하여 후퇴된 실정이었다. 오늘날 여전히 율법의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으로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벧후 1:19).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그 안에 있는 뜻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

[73] V. Raymonds Edman, *They found the Secret* (Grand Rapids, Mich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0), 6.

[74]필자가 이 구절을 묵상 중 이 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셨다.

바른 교육을 한 중국 지하 교회는 오랜 동안 공산당을 능히 이긴 믿음을 지켜 왔으나 반면 천주 교회는 공산당에 의해 뿌리채 뽑힌 것을 중국 교회의 역사는 증명한다.[75]

- 누가복음 4:18-19 에서 그리스도의 공생애 취임 사역를 공포함에 저자 누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정확히 기록한 것은 다른 복음서보다 특이하다. 예수님은 어떤 삶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의 말씀과 삶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76]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먼저 성령의 충만을 입으신 후 광야에서 사십 여일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직후 앞으로 하실 일의 취지를 공포하시고 이사야의 말씀 (사 61:1-2)을 인용하시어 신약에서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을 선포함에 있어 그의 공생애 사역의 선포는 '은혜의 해' 만 있고 '보복의 날' 은 인용을 생략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 24:51).

누가복음 4:18-19 를 다시 보면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성령님이고 우리는 그의 존재와 사역을 관찰해 보게 된다. 그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게 기름부으심으로 그의 능력을 옷입고 가난한 자,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그분의 목적인 은혜의 해, 희년의 일들을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 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 개체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풀어놓음의 역사 하심을 해석해 보며 이런 일들은 과연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자 뜻인 공의의 일,

---

[75] 보안 리즈(Vaughan Rees),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 송영자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148.

[76] Marilyn Kunz, Schell Catherrine, *How to start a Neighborhood Bible Studies* (New York: NBS publishers, 1978), 26.

자유케 하는 희년의 일환이다. 예수께서도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이 일을 그의 사역의 시무식의 말씀으로 하셨고 이런 그리스도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요 우리가 말씀을 성령 충만의 인도로 푸는 삶이 우리의 일인 것이다.

위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예를 잘 드러내며 우리 삶에서 주를 위한 봉사에 그분의 하신 본을 따르고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적인 일임은 물론이다. 그 다음 주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의 일도 당하게 하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는 단련의 훈련도 필요하게 하신다. 그때 우리도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되 하루의 시작이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닥아오는 문제와 염려와 고난을 기도로 또 그의 행하심을 묵상하여 서로 나누며 배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누가복음 4:1-14 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 공부로서 아기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관계를 잘 나타낸다. 이 단락을 풀기 위해 눅 2:25-30 절에 아기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관계를 참고하자. “그당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이 그가 죽기 전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가 간증하며 구원을 보았고 만민에게 예비하신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 이라고 예언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보려는 그의 기다림과 준비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배우게 되며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도 시므온과 같이 성령이 그 위에 늘 계시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행함도 성령의 지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제자들로 양육되는 모든 자는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남과 같이 준비되고 이루워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런 마음의 자세일 때 말씀으로 쓰여진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게 되어 성경 공부의 필요한 요건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성령님과 말씀이신 그리스도이며 그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시므온과 같은 삶,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의 말씀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이웃의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사 (눅 4:18-19)인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은 성령이 위에 계심과 지시받으심과 감동하심을 지나 충만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준비하심을 위의 말씀에서 보게 된다 (눅 2:25-4:1). 이 말씀은 에스겔이 묘사한 예언대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줄 자유를 예언하셨다 (겔 47:1-12). 이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의 일어날 사역을 관찰할 때 (18a)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18b)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눈먼 자를 보게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해석이 되며 이러한 성령을 받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며[77] 이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 후에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우리를 통해 그의 영으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하신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 응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접촉으로 말씀을 직접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눅 10:25-28)는 당시의 가르침 사역의 전문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떠보는 질문을 하자 이를 받아 예수님은 되돌려 물으시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5 절) 하는 율법사의 묻는 질문에 중요한 진리가 있고 예수님의 되물으심에서 그의 대답을 유도하시며 구약 시대의 율법에 과거에 어떻게 쓰여져 있으며 지금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신다 (26 절). 이것은 해석하는 질문으로 주의할 것은 관찰 질문에 대한 해석을 위해 때에 따라 변형된 질문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다. 즉 해석할 때나 혹은 해석자에 적합한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 율법사의 이 질문은 (27 절) 율법에 쓰인대로 (신 6:5) 대답하자 예수님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28 절) 적용의 단계로 이끄시고 우리가 행하여야 영생을 얻어 산다고 교훈하신다. 해석의 단계는 사람에 따라 그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 해석으로 인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

[77] Stan Guthrie, *All That Jesus Asks* (Baker Publishing Group, 2010).

성경공부의 가장 적합한 예이며 예수님의 가르키시는 방법에 질문을 잘 이용하시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성경은 질문서다.[78] 성경은 많은 질문들로 되어있으며 우리는 성경에 질문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성경 공부는 질문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질문의 효과에 대해 정리하여 보면;

- o 질문자의 가장 큰 관심사를 나타낸다— 질문자와 대답자 서로가 배우고 알게 된다.
- o 대답자의 이해 정도를 높이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다.
- o 대답자의 생각의 방향을 질문으로 조정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
- o 질문은 교육과정에서 가장 잘 이용되는 수단이다.
- o 질문으로 '생각나게' 혹은 '기억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o 질문은 진리탐구, 말씀공부, 발견, 개척 등에 길잡이다.
- o 질문은 관찰과정, 해석과정, 적용과정에 가장 큰 도움을 주며 인도한다.
- o 질문은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최초로 인류의 불순종에서 일어났으며 그것이 늘 문제의 근원에 있다.
- o 제자 양육에서 적절한 질문을 바르게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o 인생을 바로 인도하는 길과 방법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다.

질문을 작성하는 데 특히 토론을 통한 진리 발견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질문을 하기 위해, 또 진리 탐구를 위해 등산을 할 때, 많은 등산객들의 능력이 다름으로 손을 잡아 끌어당겨 돕는 (handpuller) 다시 말하면 질문이 여러 다른 이해 능력을 가진 참가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게 하는 문제로 질문을 해야 한다.[79] 토의

---

[78] 특히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 장부터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많은 질문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심을 볼 수 있다.

[79] Group Dynamics-How to maintain a Heathy Group ⓒ 1992 NBS, Inc

그룹에 모인 천차만별의 이해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토의가 되도록 준비하는 질문이 절대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 (handpuller or equalizer) 질문을 할 때는 토의 문제가 모든 참가자에게 이해가 쉬워 열띤 토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더 깊이 발견하게 되며 서로 나누게 된다.

질문의 예로 마가복음 2:18 에서, 금식의 한가지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잠시 동안 금식할 필요가 없는가 라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토의식 성경 공부의 문제에서 금식의 한가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위의 이야기한 handpuller 혹은 equalizer 가 도우는 질문을 함으로 참가자는 다 함께 이해되어진 상태에서 토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80]

o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만인 위에 성령 충만의 약속을 당부하심 (눅 24:44-49);

관찰 ㅡ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뤄지리라 하는 모든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한다 (눅 24:44).

해석 ㅡ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적용 ㅡ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직전임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분부를 하신다 (눅 24:49).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지키어 이뤄진 것을 본 증인이다 (눅 24:45-48). 구약을 통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고 또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그리스도 (골 1:27)는 우리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영원한 도우심과 진리되시며 말씀이신 성경을 성령의

---

[80] Discovering truth & building leaderships through small group bible studies ⓒ 1993 NBS INC. Dobbs Ferry, NY 10522.

인도함을 받는 성경공부의 권위로 여기야 함은 재삼 언급이 필요치 않고 다른 어느 인간적 요소는 권위를 줄 수 없으며 공부를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o 사도행전 2:37-47 에 마가 다락방 성령 충만 이후 곧 하루에 삼천 여명이 성령으로 구원받고 희년의 삶을 이룸에서 마가 다락방의 120 명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건은 그 집회를 위해 한곳에 모여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며 준비하여 성령의 충만이 일어났고 (행 2:4) 사도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삼천 여명의 신도들이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유하기를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행 2:40)" 는 관찰로서 그들의 한 모든 일들은 주님이 말씀한 은혜의 해 즉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행 2:41-46) 해석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행 2:47b)" 는 적용을 뜻한다. 주께서는 삼년 반만에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자의적으로 이루셨고 이 과정을 우리에게 권유하시며 한량 없이 자유롭게 주신 성령으로 도움받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자유의 해를 이루어 나가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크게, 잘, 속히 자유의 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권유을 하신다 (요 14:12). 이런 은혜의 해도 회개로 이루어지며 자아와 죄에 대한 '매일의 죽음' 은 영적 유아 상태가 아닌 진정한 성숙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의 표지이다.[81]

o 베드로후서 1:4b-8 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주를 더욱 알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 성장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듯이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떠나 그분 위해 살 수 있게 하신다.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 즉 신의 인격을 소유한 자 (4b) 가 되는 것을 '관찰' 하면 믿음 위에 다음 단계로 더 자라가는 '해석'으로 (5-7)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

[81] 브루스 밀른, *복음주의 조직신학 개론*, 김정훈 옮김 (고양, 경기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213.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 행동함이 포함되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주심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덕을 ... 마지막으로 사랑까지 자라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 (요일 2:5).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어 온전한 성품에 자라가게 되는 것으로 '적용' (8) 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알게 되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더하여 져진다 (2 절). 이것은 그를 더욱 아는 것은 말씀이다. 또 말씀을 받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를 신이라까지 (요 10:35)도 [82] 말씀하신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아서 경건한 삶으로 신이라고까지 격려하시는 그 분의 심정을 넉넉히 이해할 만하며 이 말씀을 이루워가는 순서는 귀납적 접근과 일치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진정 알아가는 것이며 그를 앎으로 그분을 믿는 것과 또 생각나게 함이다.

o 베드로후서 1:1b-21 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1:10-11)" 는 관찰로서 즉 우리의 주제로서 '넉넉한 구원' 을 얻기 위함으로 "이러므로 이것을 알고 ...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1:12-20)" 는 해석의 구절이며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1:21b).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구원의 확실한 보장은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 눈으로 보고 듣고 귀에 들었던 주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친히 본자의 직접적인 사실을 순교자적 간증을 심각하게 받아야 하며 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이 진리를 어두운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의 빛, 계시의 빛비췸이 일어나지만 순간적이며 쉽게 시들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빛은 눈으로 보라고 하여 있는 것이므로 머리로 기억해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빛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표한다. 이 빛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 으로 변하게 한 후 능히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 지를 기억하게 된다'. 우리가 빛을

---

[82]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gods로 God가 아니다.

가지고 기억할 수 없지만 오로지 '생각을 기억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83] 샛별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떠오르는 이 빛을 생각으로 받게 하시고 등불같이 비취는 말씀이 마음의 어두움을 걷우게 하며 떠오르는 새벽같이 나타나게 한다 (베후 1:12-15). 사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한 삶에서 일어난 직접적이 간증들 (16-17)과 더 확실한 성경 말씀 (19 절)이 있어 우리를 부르심과 구원의 방도들을 택하여 행할 때 실족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게 된다. 샛별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사도 베드로가 특별한 경종을 울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예언을 '홀로 풀지 말라' 는 것이며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 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신다(21 절).

이것은 그룹으로 성령의 감동된 자들이 서로 받은 말씀을 묵상하여 토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말씀은 더 인간적이요, 우리 인간을 인격으로 인정하여 진리 접근이 부족한 인간의 이해를 돕는 전능자의 긍휼과 사랑의 방법이요 성령의 귀납적으로 참가하는 자들을 인격으로 대하는 방법이고 또 받아들이거나 안받아들일 여지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로운 은혜의 방법이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말씀을 다루어 배워나감이요 또 이것을 이웃과 제자들에게 나누며 가르치는 방법이다.[84]

o 요한 일서 1;1-4 에 생명의 말씀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찰이요 목표다.[85] 우리는 그를 바라보는 자로서 어떻게 관찰하며 어떻게 이 반응을 주위에 전달하여 이 과정을 사귐의 교제와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는 교제이다. 고로 이 말씀에 써있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

[83] 웥치만 니, *말씀의 사역*,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204.

[84] Ibid., 205.

[85] 현대인의 성경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396.

'행하면' 너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사랑받은 열 두 제자 중에 요한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요 21:20) 우리는 저자의 특유한 위치와 경험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한 목격자로서의 증언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복음서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1 절의 천지 창조와 같이 초두에 써야 할 형태로 쓴 것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한 세대가 지난 후며 (AD85-90) 믿는 자에게 심한 박해와 세상의 유혹, 거짓 선지자 등으로 교회는 심히 침체되고 변질되어 믿음이 떨어질 때 저자는 진리를 본 괴도에 다시 올려 올바른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특히 사귐의 바른 관계인 '교제' 를 중점으로 하여 죄의 씻음이 목적과 의도이다.

첫째로 '생명의 말씀' (요일 1:1a)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진리를 관찰하는 주제로 묵상하며 이 관찰를 통해 아는 것은 생명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활발한 행하심이 있으며 말씀은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성경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떻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지를 해석해 보는 과정으로 (요일 1: 1b-3) 제자 요한이 그의 삶 가운데서 듣고 본 바며 만져보고 품어본 바라고 증언한다. 이 표현의 목적은 듣는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하여 이 '사귐' 혹은 '교제'를 가르치며 이 교제의 특징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사귐이다. "너희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마 18:20)." 결국 우리가 이웃과의 나눔의 교제를 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교제 안에 그분들과 함께 계시니(요일 1:3)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전파가 된다.[86] 즉 교제가 가장 좋은 전도이다. 세째로 '이것을 씀' 또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공동 번역) 이 복음서를 쓰는 것 즉 전하는 것은

[86] 현대인의 성경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5), 396.

적용이나 진리의 제목인 말씀으로 (요일 1:4) 어떻게 이 생명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느냐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체득한 말씀 공부를 하여 관찰과 해석을 했는데 앞의 두 단계는 우리 각자가 묵상과 공부로 '발견하여 그 기쁨' 을 누리게 되나 이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침은 혼자가 아닌 다수가 토의나 토론으로 나누는 과정을 통한 결과로 오는 기쁨으로 이 성령의 지시로 체득하여 배운 말씀의 특징을 경험하게 되고 보상은 영적인 것으로 오는 '나눔의 기쁨' 을 묵상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 결론이며 적용인 이 진리 발견의 기쁨과 함께 나눔의 기쁨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으로 전파하기 위한 것이며 하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신 공의를 전파하는 목적과 그가 오심으로 이 목적 위에 그분이 새롭고 확대된 완전해진 사랑을 알리는 것이 삼위일체의 뜻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골 1;27)를 말씀 사역으로 하여 그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가르칠 때 '발견의 기쁨' 과 '나누는 기쁨' 을 우리에게 삯으로 주신다.[87] 이것은 영광스러운 삯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천국이나 가정이 있다고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 ... (갈 2:22)에서 사랑은 일방적일 수도 있으나 희락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여 나눔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상승하는 즐거움을 주는 필수적이고 말씀으로 나누어진 교제의 관계로 토의할 때 오는 영적인 열매로서 이 말씀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 제자로 기꺼이 나아갈 때 제자 양육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성령의 지시로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종래의 지식이나 사고는 새것되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야 하며 (막 2:22) 가르치는 자와 제자가 위계 질서의 위 아래의 관계보다는 우리의 사귐 안에 들어오게 하는 만이 진정한 제자 교육으로 세상적인 가르침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사귐 안에 들어오는, 즉 '너와 나' 보다는 '우리' 가

---

[87] Gladys Hunt,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Wheaton, Illinois: Harold Show Publishers, 1994), 26.

되어진리를 전하고 기쁨을 나눌 때 주 안에서 진정한 제자 양육이 이루워진다.

우리가 주 앞에서 자라가며 충만할 때까지는 모두 자라는 자 일 뿐이며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 지시받고 충만해져서 그의 능력으로 변화 받아 하나님의 나라을 확장해 나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민 21:9) 그분의 주장으로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다. 신앙 (信仰)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여 그를 바라보라는 뜻이다. '바라봄' 에서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늘 바라보며 관찰하고 묵상하고 꿈꾸며 기대하는 삶을 살듯이 그 바라보는 목적물이나 일들을 '해석해 볼 때' 참된 이치나 진리를 발견해 나가게 되어 발견의 기쁨을 가지게 되며 이 진리를 나 자신의 삶에 옮김으로 오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그 결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즉 적용을 하게 된다.

성령의 열매에서 처음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하신 큰 사랑이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은 우리는 그 수고의 열매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다음으로 희락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그의 나무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요 15:4)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성장된다.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실제와 그와 함께 해야 되는 필요성을 깊이 깨닫도록 만드셨다.[88]

[88] Bruce Miline, *복음주의 조직신학 개론*, 김정훈 옮김 (고양: 경기도,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3), 233.

2. 신학적 이해의 배경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는 창조하신 만물에 나타나시며(롬 1:19-20)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말씀 안에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인간도 함께 지으셨으나 사람에게만은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으며 이것을 자의로 선택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여 순종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의 하신 일과 성품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한편, 창조하신 만물 중에 동, 식물의 자연계를 지으시고 오늘날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의 모든 사랑을 나타내 주며 식물 중에는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다 (창 1:29). 그가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 식물의 특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89] 태초부터 주신 식물의 특성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인 식물에 관한 농업을 천하지대본 (天下地大本, 땅)이라 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땅과 우리의 먹거리에도 인간을 향한 변함 없는 그의사랑과 자비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89]

하나님 뜻인 ‘의’ 를 행치 않았을 때 모든 만물이 신음하며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땅이나 식물에서도 나타나는 그 결과는 우리의 생존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스리라” 하신 (창 1:28) 그의 말씀은 우리를 그의 맡겨진 청지기로, 또 자연의 관리자로 지명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그의 명령이다. 만약 인간이 그의 대자연을 인간의 탐욕과 불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이용할 때는 ‘의’ 를 행치 않은 결과를 보게 된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의’ 를 행할 때 올바른 결과를 보게 되어 진리의 힘을 재발견하게 되므로 그가 우리의 조물주되심을 의심치 않게 되며 신뢰하게 된다.

[89] 필자는 현미 채식에서 일체의 육식을 금하고 현미와 생야채만으로 식사하는 식사법을 실행할 때 다니엘의 말씀(단 1:15)의 진리를 체득하고 또 10 여 일만에 눈으로 증명되는 효과로 아름다운 살이 더욱 윤택하여 ... 더 좋아 보였다고 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신학적인 이해로 접근하는 성령의 감화로 체득되는 성경공부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시요 기독교의 근본되시는 하나님에 대비하여 우리 동양 문화와의 관계에 비교하려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로 유교 (儒教), 불교 (佛教), 선교 (仙教)가 있다. 유교는 현세의 문제를 취급하는 것으로, 불교는 내세에 관심이 깊고, 선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굿을 하고 삼신에게 제사를 바치기도하며 산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성경에는 천사들과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적인 능력을 알게 된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나타나며 또 천년 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란 내세 문제도 나온다 (계 21:1). 세계와 성경은 유교처럼 현재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닥아올 세계와 초자연의 세계 이 모두를 다루고 있다. 오늘의 세계와 목회자들,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강조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치중된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성경 말씀은 다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다.

한국의 고유 문양 (文様) 가운데 '삼태극' (三太極)이 있으며 이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중국이나 일본도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나가려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바로 진정한 토착화 (土着化)작업이다.[90] 이 작업과 함께 우리가 받은 것과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융합하여 그들에게 다시 선물로 돌려 전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91] 여기서 말하는 음양사상 (陰陽思想)에 한국 특유의 초자연적 세계를 같이 융합하여 이 세 가지가 합한 사상을 관찰하고 주목하여 연구하는 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수용하는 성경을 토대로 하여 관찰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묵상하며 연구하여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

[90] 박정식, *네비어스 선교 방법*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0, 349.

[91]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예수원, 1988), 167.

균형잡힌 신학이 될 줄 믿는다.

3. 사회학적 이해의 배경

1 세기 초 기독교가 모진 고난과 순교를 당했던 수난이 급변하여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순복하여 받아 들이고 교회에 황제가 들어오자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달라져 세상적이고 권력과 육체적인 향락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자 교회나 말씀의 가르침은 변질되어 점점 무기력하게 되고 말씀의 사역과 역사는 약화되거나 세속화되었다.[92] 이런 현상이 천 여년이 넘도록 지속되니 1517 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진리가 무기력화 되다가 양심이 되살아 나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93] 말씀의 진리는 변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새로와 지는 것으로서 새 시대에 일치하도록 날로 새로와지는 적용과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공의의 사상이 재발견되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사회적 이해로 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체득되는 성경 공부의 진리인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또한 예수님 공생애 중에도 이미 적용되었던 것임을 전술하였거니와 20 세기 초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과 이해에 대한 연구, 즉 귀납적 성경 공부가 다시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관심과 연구 적용이 시작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선구자인 Dr. Wilbert W White는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었다.[94] 17 세기나 뒤진 말씀의 사역인 성경공부는 그 본래의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준 데로 돌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체득된 성경공부로 사회적인 이해를 배경으로 연구하기 위해 현재에 처해 있는 사회적 형편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 개인주의, 인본주의, 극도의 이기심과

---

[92]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249.

[93] Ibid., 223.

[94] NEWSLETTER, INDUCTIVE BIBLE STUDY NETWORK, Fall, 1998.

향락으로 치닫는 사회가 되어 이들의 충격과 허탈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르게 접근하여 묵상하고 서로 진리 발견의 나누는 삶을 살도록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앞서 토착화된 신학을 언급한 대로 이어서 한국의 고유한 사회적 근본 철학인 오륜(五倫) 으로 한국사회의 사상인 의(義), 친(親), 별(別), 서(序), 신(信)을 검토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95] 첫째로 왕과 신하 시대의 군신유의(君臣有義)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다스린다' 는 뜻에는 '공의' 가 요구된다. 인간은 대자연보다 강한 장점이 있다. 그러면 공해란 무엇인가? 강한 인간이 대자연을 잘못 관리하고 '불의' 를 자행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자연의 생산과 농약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의' 를 행치 않은 탓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의' 가 있어야 한다. 대자연은 자유 의지가 없는 고로 우리가 책임자며 자연은 기계적인 법칙에 종속되어 있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릴 때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만 자연을 인간의 이용물로 사용하기만 하면 대자연도 반발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AIDS 는 대자연의 반발이며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이상 기후나 모든 생태계가 하나님의 법칙에서 이탈되어 우리의 삶을 격심하게 도전하고 재앙의 징조는 곳곳에서 일어남을 보게 된다.

이처럼 '의' 를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성경에서 '의' 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 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공의' 는 점점 찾기 어려우며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한자의 '의(義)' 는 양 (羊) 밑에 내 (我)가 들어 있는 글자로서 '내가

---

[95]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예수원, 1989), 167.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들어가면 의인이 될 수 있다' 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나 세계

사회가 점점 부패하게 되는 것은 '의의 열매' 가 없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양' 을 통해야만 '의' 가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96] 하나님과의 옳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불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이나 피조물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계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옳바른 관계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의' 을 뜻한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창조하신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피조물인 이웃과 함께하는 사귐이나 교제도 똑같은 원리의 관계가 성립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과 함께 사귀며 묵상하고 대할 때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 비록 우리가 이해의 정도나 취향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토의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적용하여 교제의 관계로 대해 말씀을 토론하고 혹시 나와 의견이 달라도 그를 따뜻하게 받아 들이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할 자세나 언행이라도 우리는 그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여(골 3:23)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권위적인 즉 연역적 접근의 성경공부는 교리나 인간의 관습 주장을 주입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는 이와 같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된다.

둘째로 부자유친 (父子有親)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하시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아버지' 라는 중요함과 우리 동양사상에서의 아버지와 자식과의 중요한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밀접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유교 사상에 젖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엄부로

[96] Ibid., 168.

표현하여 상상하고 기도하는 경향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은 주로 율법적인 관점과 구약의 율법에 대한 모세의 수건이 아직 가리워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생각이었다. 이제 은혜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친밀함이 넘치고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토론하고 발견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97]

세째로 부부유별 (夫婦有別)로 부부간에 관계는 차별이 아닌 유별하다고 하여 서로가 다른 역할과 기능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룸이다. 현대의 시대는 이 부부유별이 점점 희박하게 되어 젊은이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워 나갈 때 그 각자가 할 일을 따라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대개가 한 가지 목표 즉 직장을 잡아 취업하기 좋은 학과에 전공을 함으로 구분이 없는 가정의 부부가 되고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여러가지로 우리의 삶을 혼돈시키며 효율이 떨이지고 서로의 기능을 살려 가정의 조화가 원만하게 한다. 우리는 이 '유별'을 구별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여 (고전 2:13) 이 부부간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게 된다.

성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보완적인 교육을 통한 기능을 하나로 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 이런 준비를 위한 부부의 대학 과정과 그 이후의 일들이 대개는 한 가정에 두 사람의 수입을 얻게 하는 기능만 있고 각자 고유의 기능은 무시할 때 자라는 자녀들의 배움의 본은 어떠하겠는가? 이런 환경에서 부모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뤄지는 가정교육, 후세의 제자로 키우는 본분을 바로하기 위해 주의 뜻인 성령께 의지하여 그의 지시하시는 가르침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근본되는 가정을 잘 인도하여 우리가 배워 확신하고 있는 진리에 따라 계속

[97] Ibid. 169.

생활해야 함 (딤후 3:14-17)의 중요성과 이유를 말하며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관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알게 되고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 또 성경은 성령의 감화 받은 자들이 기록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며 우리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훈련된 사람은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런 부부가 각자 지체로서 온전하게 되어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인 공의로운 사랑의 가정으로 훈련되는 장소가 되어 좋은 제자를 양육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네째로 장유유서 (長幼有序)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특히 형제들 간에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흔히 성경에서나 한국의 예절에서, 장자에게 특권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상례이다.
고대 농경사회 이후 최근까지 장자에게 더 많은 유산의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노후 장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장자의 권리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야곱의 열 두 아들에 대해서도 장자 르우벤, 둘째와 세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대량 학살을 했음으로 네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된다 (창 49:4-5). 나중에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권위를 옮겨 (창 48:15-16)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각각 분깃을 준다.

이 사실을 보면 성경에서의 질서는 '융통성' 이 있고 '변화가 있는' 질서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과 같이 낮은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교만하지 말며 섬기는 자로서의 겸손과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을 존경할 것을 말한다 (빌 2:6-8). 질서만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니며 특권이 인정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

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98] 이 양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의 교육이 결국은 단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부모와 자식들, 우리 자녀와 그 다음 세대 간에, 대대로 오는 세대에 관계의 회복을 좁혀 책임지는 바르게 함의 교육과 참된 제자의 양육이 첫걸음임을 통감하게 한다. 성령의 가르치심의 역사가 이런 관계를 이루워 회복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시킴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질서일 것이다.

다섯째로 붕우유신 (朋友有信)은 친구 간에 서로의 신의에 관한 것으로서 서양에서는 전혀 이해 못하는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이 신(信)이라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쌍방 통행이다. 서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15 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고 말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 준다.[99]

이렇게 우리를 심령으로 북돋아 주고 희망을 주며 이끄는 그분의 풍성함을 볼 때 우리도 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겠구나' 하는 결심으로 친구가 친구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간다. 동양에서는 '사귐' 이라 하고 서양에서는 '코이노니아' 라고 하는 데 이 관계는 서양 사상에는 없고 우리 고유의 사상에 이런 진리가 있어 이어오는 전통에 더 깊은 귀중한 개념을 이해하여 우리의 것으로 귀하게 활용해야 한다.[100]

이 사귐은 서로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며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

[98] Ibid. 172

[99] Ibid., 172.

[100] Ibid., 173

너희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하신다 (마 18:20). 우리 동양사상을 오륜으로 , 의 친 별 서 신에 대한 개략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시요 신랑이시요 '형' 이시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 중 가장 친밀히 부를 수 있는 것은 친구이다. 다정다감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용기를 북돋우고 결심시킴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기대하며 느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 할 수있는 친구는 절대 불가결한 큰 자원이다 우정이 충성심을 더할 때 그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며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북돋아 사소한 것까지도 사용하신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이런 친구되신 예수님께 대답할 때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대답을 나누며 토의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적용의 삶을 살게 되는 이 가운데에 서 제자로 양육되어져 간다.[101]

빈부 차이의 문제와 인구 과잉의 문제에서 인간 모두가 함께 균등한 여건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단일세를 시행함으로 희년의 효과를 가져 모든 억압과 불의와 가난과 묶임에서 풀어나게 되어 사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요소 (natural element)는 모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고 있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고 살 권리와 일할 권리와 일의 댓가를 향유할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생산의 기초가 되는 요소, 곧 토지에 동등권에 입각한 제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며 인간 생활의 근간이고 보고이며 저수지이자 모든 물질적으로 충족시키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으로 와서 땅으로 돌아 간다. Henry George, 헨리 죠지의 19 세기 초에

---

[101] Jean Vanier, *Community and Growth* (New York: Paulist Press, 1989), 183.

희년의 회복을 오늘의 환경에 명령하여 그대로 직접 적용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하거나 하지 않고도 단지 토지 부가 가치세 (land-value tax)를 단일세로만 부과하여 다른 기존의 모든 세금은 철폐할 수 있게 한다.[102] 인간 모두가 함께 균등한 여건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단일세를 시행함으로 희년의 효과를 가져 모든 억압과 불의와 가난과 묶임에서 풀어나게 되어 사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나 누적되어 가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해의 결실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주님이시다. 사건이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책임도 따른다.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서 조금 볼 수 있다고는 하나 조건 없는 예언이란 거의 없다.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는 오히려 '만일 네가 그러저러하면 이러지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예레미야에서도 볼 수 있는 거와 같이 "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 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준 이 땅이니라 (렘 7:5-7)." 또 미가서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수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 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공의' 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7-8)?" 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과 그것에 대한 보답은 땅이라고 말씀하신다. 즉 이 땅은 공의의 근원이며 이 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주시는 지혜를 통해 (고전 2:7) 우리가 그의 뜻에 적합하며 그 시대에 적용되는 시행 방법을 위에 언급된 토지부가 가치세와 같은 지혜를 얻도록 간구해야 한다.[103] 이렇게 하여 빈부의 차이를 없애고 경제 번영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빈부의

[102] 대천덕, *토지와 자유* (황지: 도서출판무실, 1995), 119.

[103] Ibid., 84. 1984

차이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탐심의 정도는 수입이 평균보다 두 배만 되어도 대단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욥 42:10) 오늘날의 개인별 소득 차이는 10-20 배는 보통으로 운동이나 연예계 또는 대회사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100 배 이상이나 소득을 얻는 사회의 불균형들 이루나 낮은 소득자들이 하나 같이 조물주에게 탄원하기보다는 이들 고소득자들을 부러워하는 잘못된 세상의 관심사로 저들 대부분들도 탐욕화된 소망으로 그들을 부러워하고 선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16 에서 "...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 씩 거두되... " 20 절에는 "...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오늘의 사회는 그분의 뜻에서 너무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부패된 현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먹거리로 식물를 주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만족하시며 또 상황이 달라진 광야에서도 그들을 위해 만나를 주시고 그의 공의의 정신을 시행할 규례를 주신 그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 지. 우리 사회는 그 욕심을 채우고 있는 자나, 못 채우고 있는 자가 오로지 한 목표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이 탐욕의 성취를 높이 이룬 자들에게 찬탄과 부러움을 보이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봐야 하고 이것은 어두움으로 빈한 자나 부한 자가 모두 참 진리인 인생의 평등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여 그 거두어 들인 더 많은 사람들의 결말과 부패와 파멸의 독소를 방지하여 그분의 공의인 은혜의 순간을 되찾아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인 '주의 은혜의 해' 를 전파하는 사역을 이어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처럼 빈부의 문제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온 것임을 세계 곳곳에서 보게 된다.

필자가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가서 본 것은 그 나라 기후는 벼농사에 적절하여 일 년 동안 삼 모작이 가능한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그 당시 이 나라는 쌀을

수출하고도 남는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도 쌀이 모자라서 수입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국토의 대부분이 사 오명의 대지주가 전 국토를 소유하여 그들 손에 있고 그 땅을 빌려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려면 땅 빌린 값과 여러 가지 비료와 농약과 살충제와 제초제의 대금과 세금을 합하면 쌀을 팔아 50% 의 땅 빌린 값을 제하고 남는 것이 거의 없어 그들은 아예 농사를 짓지 않고 굶는 한이 있어도 노는 형편이 되었다.
그들의 초막 뒤에는 논에 물이가득하고 경운된 땅이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이 좁은 집에서 무위도식하는 처참한 광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랄한 풍자 (irony)임을 느끼게 하였다.[104]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 잘 쓰이기보다는 탐욕의 지주들은 그 땅을 그분의 뜻대로가 아닌 인간의 뜻대로 쓰는 극 소수의 지주들 그들의 단합으로 빌리는 땅 값을 낮추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105] 여기서 그분의 뜻을 빌리는 땅값에 적용하여 현저하게 인하할 때 희년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내 것이라' (레 25:23)는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함을 강조한다. 공의롭게 운영하지 못한 일의 결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 큰 불행을 당하게 되며 그 중 큰 문제로 빈과 부의 차이며 그와 유사한 문제로 인구 과잉이 있다.

빈부의 문제와 똑같이 인구 과잉의 문제의 걱정과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여 살펴보면 이 시간까지 우리 일반 상식의 식단에서 6-7 개월 전부터 현미밥 채식으로 된 식단만으로[106] 아침 한끼는 현미생식으로 반 컵 정도로 하여 하루 전날 물에 불린 것으로 식사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그 맛과 양과 효과 등에 대해 영양학적으로나 또 배고픔과 충족함에 대한 많은 궁굼증과 의심을 나타내는 것이

[104] 필자가 Kona Hawaii에서DTS를 마친 후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실제로 본 경험이다.

[105] 강사문, *창세기 1:26-28 의 생태 신학적 이해*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23.

[106] 황성수, *현미밥채식 - 병안걸리는 식사법* (남양주: 페가수스, 2010), 163.

대부분이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나 자신은 시행해 보지 않는 사람들의 염려와는 달리 더 신나는 유쾌함과 기쁨을 또 건강 검사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것으로, 행하여 보지 않고는 진리의 참된 진실의 답이나 진리 자체의 진의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구가 과잉이라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심을 심증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뢰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6 장에 언급된 말씀대로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심을 더 확신하게 되고 다만 우리의 탐욕으로 이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초래함을 재확인 하게 한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그 말씀대로 시행하여 해결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의 기틀을 잡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행 2:44-47, 4:32-35).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는 지혜를 가지고 20 세기 지구촌 여러 곳 즉 홍콩, 대만 ,싱가폴, 호주, 캘리포니아 주 (State of California), 일본, 한국 등에서는 성경에 지적된 그 말씀으로 주의 뜻을 시행할 때 그 효과들을 확실하게 보았으나 세상법인 바알의 제도와 인간의 탐욕의 증가로 위에 열거한 나라들의 효력은 현재 많이 줄어 들고 있다.[107] 이제 인류는 빈과 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인구 과잉에 대해 현재 세계 인구 전체를 미국 대륙으로 옮긴다고 가정해 볼 경우에 미국의 인구 밀도는 남한 인구 밀도의 1/4 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 인구가 지금보다 4 배로 증가한다고 해도 미국 한 나라에서 다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도 세계 인구 밀도는 현 남한의 수준 밖에 않된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불의와 착취에

[107]대천덕, *토지와 자유-성서적 경제관* (서울: 도서출판무실, 1995), 67.

있는 것이지[108] 인구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만 하면 다 함께 충분히 살 수 있다.[109]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근본되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나 순간들을 펴시는 것으로 이 사역의 근본 원동력이 되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은 그가 하심 그대로 본 받는 자이다. 그의 사역을 본받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우리도 이 역사를 이루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앞으로 수면에 운행해 나가신다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 창 1:2). 이 성령의 역동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바라고 믿는 진리나 사실을 보며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해 보아 그 뜻을 더욱 알게 되며 이런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110]

창세기 1:1- 3 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과 빛, 이 세 가지로 나타내신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추리라 (고후 4:6a)" 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다. 이 빛은 그리스도를 가르키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의 모습' 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이해하게 된다. 이런 역사는 밝음 아래서 일어나고 어두움은 쫒아내야 하며 이런 빛 가운데 행하는 성령의 인도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

[108] 필리핀의 놀랍도록 안타까운 실정과 후진국를 방문해 볼 때 빈곤은 천재(天災)라기보다는 인재(人災)이다.

[109]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예수원 편집, 1989), 345.

[110] *Teaching the Bible From the Inside Out* (David Cook Publishing Co., 1978).

4. 교육학적 이해의 배경

Howard G. Hendriks 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써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즉 친밀한 관계 (rapport)를 확립하므로써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111] 그리하면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청중들이 부담 없이 당신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알라. 그들의 욕구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 잘 채워줄 수 있다. 둘째, 듣게할 권리를 얻으라. 먼저 신뢰가 있어야 전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들어주는 귀를 확보하라. 세째는 듣는 이들에게 기꺼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치는 자가 되라. 당신이 과거 있었던 고민하던 문제들도 알리며 실패한 경험을 나눌 수도 있다. 이 때 그들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어 그들이 당신과의 토의도 할 수 있는분위기를 만들라 고 말한다.[112]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나 모임들은 이런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받아 들이려는 태도에 매우 인색하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자들의 눈높이를 알아서 여기서부터 질문과 가르침의 나눔으로 그것의 높이를 점차적으로 올려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토의와 대답과 사랑의 격려가 필요하다.[113]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 사이에 화기애애한 친밀한 관계로 이런 관계의 형성은 사도행전 2 장에 나오는 성령강림 직후의 그 모인 자들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의 배움의 관계에 잘 나타났고 이런 성령의

---

[111] Howard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08

[112] 이와 같은 조건들은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113] Allen Tough, *How do adults learn best?* (Neighborhood Bible Study).

역사하심에 여러 사도들과 수많은 군중이 와서 배우되 시청각과 실제 참여한 산 배움의 현장이었고 자연스럽고 능력이 충만한 제자 양육이 되었다.[114]

이런 가르침을 사귐의 공동체로 옮겨 활용하면 공동체란 서구에서 시작된 교파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의 삶의 체험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중국 예수가족교회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시대적 편견, 지역적 편견 그리고 교파적 편견이라는 우물울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준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의 가르침의 실천은 우리의 비인간적인 풍토 아래 놓여 있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얻는 풀어 놓음을 입어 자유로와 지므로 창의성과 진정한 발견과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여 이 가르침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함 (눅 4:18)으로 시작된다. 이 성령은 천지창조 때부터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115]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중재하는 대화' 의 관계는 인식력이 있는 '행동의 상징' 이며 비판적 풍토를 가능하게 한다. 이 대화식 관계는 '의식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행동인 가장 고도의 상호 작용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간파하는 제 삼 세계의 거성인 Paulo Preire, 파올로 프레이리는 말하기를 나는 '부모 및 교사 서클' 이라고 부르는 모임에서 교육 기법을 시켰다.[116] 이 모임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공개 토론회' 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또 이어서 '나의 교육 활동에 있어서 그들을 매우 중요한 피교육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바로 그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교육자는 모든 것을 알며 피교육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루하고 오만한 엘리트적 전통주의의 사고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

[114] Dale Galloway, *The Small Group Book* (Grand Rapids, Michigan: Fleming H. Revell, 1995), 63.

[115] 창세기 1:2, 현대인의 성경.

[116] Paulo Preire, *The Politics of Education* (서울: 일월서각, 1986), 113

라고 주장한다.[117] 그의 연구의 주장에서 교육의 도구로서 중요한 핵심은 '비판적 사고' 와 이것을 향상시키는 '공개 토론회' 와 똑같은 원칙, 비판적 관점 훈련을 통한 토론 형식을 사용한 교육 방법은 그룹 토의식 귀납적 공부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 방법의 추가되는 중요한 정신은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일을 통해 (눅 2:46b) 진리 발견의 기쁨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해 지는 것이다.

금세기 북반구에서 대표적인 Howard G. Hendricks, 하워드 헨드릭스와 남반부의 Paulo Preire, 파울로 프레이리 를 대표로 간단히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썼으나 이와 동 시대에서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의 가르침이나 제자 훈련에 대한 언급을 신약 시대의 가르침과 제자 훈련에 이 두 문화권이 비슷한 형태를 대동소이하게 갖추어 있다고 보아 함께 비교하고자 하면 특히 로마 천주교 이전의 3 세기간의 초대 교회와 중국 지하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가난이라는 점이 매우 비슷하며 그리하여 그들 교회의 생존과 영적으로는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유사하다. 그들이 어려운 여건을 이겨나감이 성령께서 말세의 현상에 (딤후 3:1-5) 생생한 표현과 같이 그들이 그 고난을 의연하게 대치함을 보게 된다.[118]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교회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위와 같이 남, 북반구의 교회들이나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이루어진 후자의 교회들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후자에 지적한 초대 교회와 오늘날도 존재하는 중국 지하 교회들의 삶과 결실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들은 말씀에 더 가까이 순종하여 행함이 월등하고 말세의 영향에 더 냉담한 것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1)" 고 말씀하셨다. 이 여호와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하게 됨이 남들과 비교하라는

---

[117] Ibid., 223.

[118] 보언 리즈, *중국의 예수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 송용자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7.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만을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웃과 비교할 때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해 한다.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성령을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갈 6:3-4)."

남, 북반구와 초대 지하 교회들에서 뚜렷한 다른 현상을 보게 된다. 전자의 복음주의적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고 삶이 편안한 환경과 박해가 적어 평강을 누리며 선교사들을 곳곳에 많이 보내나 교파는 나뉘어 그들간에 불일치로 상충하고 물질이 족한 정도를 넘어 더 많이 받을수록 축복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판이하게 다른 형편으로 말씀의 전달이 풍성하지 못하며 삶은 어려움과 때로는 극한 가난에 쪼들리며 박해는 한계 상황을 넘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도 그들의 신앙과 소망은 쇠하지 않고 더욱 강건함을 볼 수 있게 된다. 초대 교회 이후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속해 온 교회들이며 그들의 각 형편과 상황은 이렇게 전혀 다른 양상을 보는 데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감동 으로 체득하여 얻은 생명과 능력의 삶을 얻을 수 있겠는가 또한 말씀하셨던 진리는 오늘날에 무슨 뜻인 (적용)지를 깊이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희년의 기쁨인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역사로 일어난 사도행전 2 장에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는 배우며 우리의 후손들과 제자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행 2:43-47, 4:32-35).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가난을 대단히 감소하는 방식이었다.[119] 첫째, 이런 영적, 육적 혁명의 역사는 회개함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로 영적 구원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다 (행 2:38,40, 4:34). 둘째로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됨이다 (행 2:44b, 4:32). 오늘날의 삶에서 자기의 재물을 이웃과 통용함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다 (마 19:21-22). 그러나 마태복음 19 장, 그때에

[119] *The Revell Bible Dictionary* (Old Tappa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 1990), 591.

구약의 가르침도 믿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믿는 자들의 진정한 보답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우리의 믿음과 봉사에 대한 보상은 영원한 세계에서 주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땅에서도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이 약속의 시행이 우리 삶 중에 맛배기 (Pretaste)로 약속이 온전히 이뤄질 때의 맛을 미리 보이신다 (고후 1:22).

실제적으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자의적 가난을 통하여 할 수가 있는 데[120] 그 예로 물질의 풍부함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가 되는 것을 알아 만약 우리가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금액을 전부든 혹은 일부분이든 자선단체에 헌납하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그들이 굳이 땅을 팔기를 원하면 (행 2:45, 4:34)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구약에서 '정해진 것 이상의 과다한 헌물이나 희생을 가리키는 데 자주 쓰인 "자유의사 (free will)" 란 단어는 헬라말 (70 인 역에서) "dektos" 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받아 들일만한 (acceptable) 자유의지의 해" 를 선포하는 데 썼다. 누가 4:19 의"주의 은혜의 해" 를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었다.[121] 이 사상과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 성경 공부에 부여한다. 예수님께서 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인 희년 즉 자유의 공포를 시행하시며 그 중 성도 간에 이행할 근본적인 일은 나눔 (sharing)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나눔의 은혜를 저들이 물질적인 것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나눔' 에 사용하신 것을 요한복음 4:32 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 먹을 양식 즉 '나의 양식' 이라고 표현하시어 그분의 말씀이라는 뜻이며 이 양식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나눠야 하는 것이다. '만나' 라고 '이것이 무엇이냐' 고 했듯이 그 양식을 '나누라고' 하신다.

---

[120]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예수원 편집, 1989), 320.

[121] 대천덕, *토지와 자유-성서적 경제관* (황지: 도서출판무실, 1995), 65.

그러므로 신 (信, faith)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며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체는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나 말씀을 받아 들이는 것은 '나눔' 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34 절에 그분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 이라고 강조하신다 (창 17:1) 성경 공부에서 나눔의 중요성을 알고 이 나눔으로 발견하는 기쁨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며 그의 뜻인 공의를 이루는 여호와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라고 권유하신다 (창 17:1). 특히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 즉 나눔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신다.[122]

문호, Leo Tolstoy, (1828-1910, 레오 톨스토이) 는 러시아의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노후에는 그의 기독교관 (christian philosophy)과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 (personal belief)으로 사회적인 기준 (social norm)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의 많은 재산을 그의 종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신은 농노로 빈한하게 살면서 전보다 더 큰 다른 종류의 자유함과 평강의 삶으로 크게 만끽한 삶을 살았다.[123]

또 도시를 떠나는 운동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을 당시 한국의 인구의 85%가 농촌에 살고 15%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80 년대에는 전인구의 85%가 도시에 살고 15%만이 농촌에 남아 있는 실정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는 바람에 땅들이 많이 버려졌다. 지금은 그 수치의 차이가 바뀌었겠지만 탐욕으로 가득찬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나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토지를 올바르게

---

[122] 요한일서 1:3.

[123] 대천덕, *토지와 자유 – 성서적 경제관* (황지: 도서출판무실, 1995), 192.

사용하여[124] 버려진 땅을 개간하고 효과 있게 활용하여 그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역사의 전제 조건는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관점으로는 불가능하나 성령과 기도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되며 이런 믿음을 진작시키는 환경과 사회와 가정여건이 크게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말세적인 현상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는 삶으로 성령과 기도 밖에는 이런 능력의 삶을 이룰 수가 없다. 세째로 이 사귐의 나눔 공동체에는 사도들의 계속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를 공급받아 채우심이 필요하다. 네째로 위와 같은 단계의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 16:18)."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위의 성경에 쓰여진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잇이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공생애에 나타내신 모든 언행은 똑같이 우리의 관찰의 대사이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는 자나 듣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는 오늘날 읽는 자들이 단지 이해하는 뜻만을 찾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우선 그 구절의 앞뒤에 있는 구절들과의 문맥이고 다음은 본문의 구절상에 있는 절수와의 문맥이며 그 다음은 그 책으로 보는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문맥 관계며 마지막으로 성령이 전체를 이해하시는 관점으로 본 문맥 관계로 검증되어야 한다. 언제나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마음 속에 본문 전체에 대한 큰 그림에서 물어야 하며 또 이것을 현재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여야 한다.[125]

---

[124]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예수원 편집, 1989), 336.

[125] BBS (the basics of bible study concept).

그리고 관찰과 해석을 한 후 성경 공부의 최종 단계는 반응과 변화를 요구한다. 이 과정의 성경 공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귀납적 토의식 성경 공부' 라고 말한다.

20 세기 초 서구의 교회들은 이 새로운 성경 공부의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신자들의 놀라운 영적 변화와 부흥을 가져 왔다.[126] 한국 교회들도 지금 이 방법에 관심을 갖고 소수의 교회는 이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보였으나[127] 여전히 대다수의 교회는 이 새로운 변화에 둔감하다. 우리의 관심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말씀에 집중하고 관찰하여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따라야 하며 그의 공생애의 제자 양육과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 A. 요한복음 1:35-42 에서 안드레와 베드로, B. 34-51 절에 빌립과 나다나엘, C. 요한복음 3:1-21 는 니고데모 에 관한 그리고 D. 4:1-42 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전도하시기보다는 제자로 삼으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그의 사역의 초석과 같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으로 그 사역의 시작은 이처럼 미약하다 . 위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과 해석과 적용을 하여 보자.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공생애 초기에 제자를 삼으시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부르신다', 혹은 '제자로 부르신다' 는 제자 양육의 뜻으로 그의 공생애 사역에 핵심이 된다. 수 천명의 많은 무리를 가르치신 적이 가끔 있으나 그의 사역에서 말씀과 행동의 중심된 사역은 곧 제자 양육이다.

그의 제자 양육의 특징은 소그룹 토의식 교육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다른 제자들을 삼는 것이며 그것은 또 그의 지상 명령이다. 이것은 윤리적 요구나 관념적 지식

---

[126] Marry Graham Ph. D., *'inductive bible network'* Fall 1996.

[127] Http:www.sarang.org.

습득이 아닌 인격의 변화를 뜻하며 메시지와 같은 사람 (a messageful person)을 만든 데 집중되어 있다.[128]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고전 2:13)."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성경 공부를 의미하여 언제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모세의 법대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의 날에 시므온 (말씀을 듣는 자)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리스도를 만나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역사를 보게 되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아가 아기 예수를 만난다 (눅 2:25-27). 이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받는 자격 요건과 성령이 시므온에게 역사하시는 순서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 (공의)대로 사는 자 또 그 민족에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의 역사를 보게됨을 알게 된다.
환언하여 1. 임재하시는 성령은 분별의 영이심으로 분별과 관찰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2. 목적하는 사건이나 일에서 종합적인 뜻을 보게 되는 능력이 주어져 3. 진실과 사실을 근거하여 우리 삶에 지시하심을 나타내신다.[129]

이 역사로 인해 진리나 사물 또는 말씀을 대하게 될 때는 1.' 말씀의 본문이나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 지를 분별, 관찰하고 그 본문에 포함된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하여 그야말로 일점일획을 신중히 살피는 분별력이 있어 (빌 1:10)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2.' 발견된 모든 크고 작은 사실들이 어떠한 뜻이 있는 지를 물어서 그 발견된 전체의 그림을 합성하며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게 되고 그리하여 3.' 이 구절의 본래 쓰여졌을 때의

---

[128] 서정운, *예수의 제자 교육과 오늘의 신학교육 – 이종성 고희기념 논문집 교회와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3), 529.

[129] School Biblical Studies- the basics of bible study.
1.Observation: What does the text say?
2. Interpretation-exegesis: What did it mean to the original readers?
3. Applidation-hermeneutics: How does the truth of this book apply to my life in 21st century?

뜻을 파악하게 되며 성경의 저자되시는 성령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게 된다(revelation). 또 성경을 쓸 당시 전하고 싶은 뜻이 완전히 나타나도록 그의 뜻을 밝히게 된다. 이 본래의 뜻이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를 묻는다.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이 발견된 진리를 권유하신다. 이러므로 말씀의 거울을 드려다 보아 그리스도롤 옷입어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 (골 3:12). 위에 이 모든 것 (1-1', 2-2', 3-3')을 묶어 귀납적인 접근의 성경 공부로 1-1'은 관찰, 2-2'는 해석 그리고 3-3' 를 적용이라 부른다.[130]

위에 언급한 요한복음 1:35-42 구절에서 이 세 단계인 관찰, 해석, 적용을 하여 제자 양육에 본을 보인 과정을 통해 주님의 가르치심을 알아 보며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 첫 번째: 관찰 (요한 1:35-42 는 무엇을 말하는가?)

앞서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 로 증언한 이 후, 35 절의 첫마디인 '또' 는 '이어서 다시' 라는 말이다. '이튿날' 은 위의 구절들과 계속된 내용으로 중요한 일을 제자들과 계속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함께 섰다가' 는 함께 주의를 집중하며 기다린다는 뜻이다. 36 절에서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 는 증언자로서 행하심을 보는 것으로 올려다 '보고' 쳐다 보고 하여 '보라' 는 증언자의 외침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는 그들의 관점과 앞으로 그들의 믿음에 따라 변화 되어가는 명칭을 보게 된다. 37 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로 듣고 나서 생각해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닌 듣고 즉시 따르는 것이 배움의 가장 올바른 단계임을 강조한다. 38 절에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에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서' 물으신다.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서야

[130] Robert A. Tranine, *Methodical Bible Study*, Zonderuam, 1952. 6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더 나아가 해결에 도달하게 하신다.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심을 보아 전인격적인 삶을 배우는 것으로 제자됨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랍비' 에서 그 따르는 제자들의 신분은 배우는 자 임을 자인하고 주님을 선생님으로 여긴다. 39 절에 '와서 보라' 는 제자들이 주님의 거처에 머물며 교제하는 것으로 교제 없는 가르침이 아닌 참으로 함께하고 서로 나누는 친밀한 시간의 교제로 영적 관계의 핵심이 된다. '그날 함께 거하시니' 는 예수님의 삶의 하루라도 온전히 봐야 하는, 그분을 아는 것에 최소의 시간일 것이다. 40 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이라는 구절은 율법에서 은혜 시대 로 넘어가는 바통 (baton)의 의미가 있고 '들음' 은 즉 믿음이다.

41 절의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에서 안드레는 제일 급하고 귀중한 만남인 예수님를 만나도록 소개하고 돕는 일이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안드레의 증언이요 그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를 만나게 한다. 주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시며 그가 주님 공생애 시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에서 반석과 같은 삶으로서, 전혀 반석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를 반석이라고 격려하시며 부르신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오랜 동안 그렇게 못 살았을 지라도 그것을 목적하고 불리우는 자는 후에라도 반석과 같은 성품으로 바뀌어짐을 보게 된다.

- 두 번째: 해석 (요한 1: 35-42)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앞 구절에서 계속되어 그의 제자인 안드레와 그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말하기를 ' 하나님의 어린 양' 으로 소개했다. 그의 두 제자는 그의 증언을 믿고 지체함이 없이 곧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느냐' 고 친절히 물으시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의 거처를 묻으며 살펴 따를 때 주님은 그의 거처를 그대로 보이신다. 그들과 하루의 일과를 함께

지내시고 교제하는 전인격 교육으로 그들을 가르치신다. 인격의 변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교육의 진수를 나타낸다. [131]

- 세 번째: 적용 (요한 1:35-42)

21 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를 알아 보자. 35 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신자들이 모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가[132]   36 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 이로다” 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같으신 진리의 내용을 성령으로 인도케 하시어 라는 뜻으로[133] 37 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신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생활에 적용하여 따르게 되는 뜻으로[134] 38 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에서 신자들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지를 질문해 보며 그 진리 말씀이 어디 있는 지를 찾아 본다.[135]   39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

[131] 서정운, *예수의 제자 교육과 오늘의 신학 교육 – 이종성 고희 기념 논문집*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539.

[132] 율법 시대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이 은혜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하며 오실 예수님을 위해 그의 제자를 준비케 하고 안내함으로 우리의 성경 공부는 이런 영적인 뜻이 있어 이웃과 친구를 그리스도 즉 말씀에 안내하는 역할이다.

[133] 우리는 그들에게 ‘보라’ 고 하여 말씀을 따르도록 즉 예수님을 ‘관찰하도록’ 하는 요한의 역할을 하며 그들을 예수님 즉 말씀까지 소개한다.

[134]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거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본래의 제자들에게 하신 뜻을 궁구하는 일을 하며 말씀을 해석하며.

[135]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며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함께 거하니 ... 하신 그 말씀은 믿는 자들 마음 안에 거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여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뤄진다.[136] 40 절과 41 절에서 이 때 믿는 자들 중 가까운 이웃에게 나가 그들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대망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 그들의 삶의 변화를 전파한다.[137] 42 절에 이런 간증으로 새로 들어온 자들에게 말씀을 그들이 공부하게 하여 그들 삶의 목표가 바뀌는 새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이 계속할수록 그 목표가 이루어져 제자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자라 확장되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 간다.[138]

이제 위에 언급된 A. 요한 1:35-42, B. 요한 1:43-51 과, C. 요한 3:1-21 과, D. 요한 4:1-26 의 네 단락으로 구분하여 예수님의 제자 양육를 비교 검토해 보자.

- 주관자의 명칭들;

권위자의 명칭은 A 에서 세례 요한이 소개한 명칭은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칭했고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소개한다. B 에서 빌립은 그이, 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라고 소개한다. 대화 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 이라 칭했다. C 에서 니고데모는' 랍비' 로 즉 '선생님' 혹은 '당신' D 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당신 (9')' '주여 (11, 15)' 또 '선지자 (19)' 로 종내는 '그리스도 (29)' 로

[136]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눈 삶은 새 삶과 역사가 일어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137] 위의 '진리를 발견하여' 말씀 공부의 관찰, 해석, 적용을 한 후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보화를 나누는 기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138]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눈 삶은 새 삶과 역사가 일어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알기에 이르렀다.[139]

- 배우는 자 혹은 제자의 명칭과 특징

A 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 그는 장차 '게바' 라 불리게 된다. B 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로 그는 나사렛 을 폄하했으나 이스라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C 에서는 니고데모로, 시험하는 신자로서 밤에 주께 왔다. 그는 거듭남과 영의 일을 모른다. D에서는 우물가에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다.[140]

- 권위자와 배우는 자의 접촉

A 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가 구속자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증언하여 인도했다. B 는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인도하고, 한 동네 사람을 인도했을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증언하여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C 는 회의적인 (tentative) 신자인 니고데모는 자진하여 밤에 예수님께 찾아 왔다. D 는 예수께서 우물 가에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시며 말을 걸어 오셨다.[141]

증언의 전도를 따라 나다나엘이 주께 올 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란 것이 없도다' 라고 그를 인정하시자 그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로 되묻는다. C.

---

[139]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명칭에서 그들의 생각과 믿음의 상태를 한마디로 나타낸다. 우리가 '그리스도' 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를 이미 높이고 믿게 되며 행할 것이다.

[140] 우리가 피조물을 부를 때 아직 그 이름의 뜻에 도달하지 못한 자라도 그에게 목표를 세워 제자들에게 이름을 불러서일생을 그 이름대로 세운 삶을 살게 해야 한다.

[141] 주님을 찾는 자 (보화를 찾는 자)는 기다리며 주의하여 관찰한 후 주위 형편을 따라서 최종 단계의 접촉을 한다. 증언하며 인도하든가, 독자적인 결단을 하든가, 또는 주께서 긍휼이 여기셔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 예수님의 첫 질문이나 평가 이후에 오는 대화의 요점

A. '무엇을 구하느냐?' 의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대답을 겸한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의 답은 주님계신 데를 '와서 보라' 는 대답이었다. B. '와서 보라' 한

니고데모의 주께 대한 고백에 대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며 이어 그의 의문을 풀어주셨다. D.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고 하시며 이 물에서 생수 이야기, 그 여인의 삶으로, 영적인 예배의 문제로 대화가 발전되고 그 결론으로 여인이그리스도를 발견함에 이르게 된다.[142]

결론으로 각 구절들 즉 위의 A,B, C, D 의 각 항목을 통털어 결론을 내리면,

- 권위자 혹은 가르치는 자에 대한 결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자요, 주관자이시다. 이분을 소개하든가 그분께 인도하는 일은 사건이나 배우는 자의 믿음, 신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심을 주의해 보자.
A 에서는 은혜 시대의 새롭고 광대한 길로 준비케 한 역할이 그의 제자들을 주님께 소개함으로 간결하게 이뤄진다. B 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그 이웃에게 전함으로 요한모형을 따르며, C 는 니고데모도 회의적인 신자이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고, D 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나 주님은 사마리아를 복음화하실 계획이 있음으로 사람들은 그 지역을 모두 피해 지나가나 그 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4:4)' 고 말하신다. 여기에 그분의 뜻과 의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임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피전도자의 표현은 여러모로 다르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통과하여야 하겠다' 는

[142] '와서 보라' 하신 주께서는 각자의 형편과 사고로부터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다.

그분의 은혜대로 이루워짐을 찬송드리자. 권위자는 4 곳 모두 예수님이시다.

- 배우는 자 혹은 제자들의 상태들

인간의 상태가 천태만상과 같이 양육을 받을 자들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를 알아 가다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결국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로 만드셔서(에 1:10) 십자가로 화목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양육자와 배우는 자들은 차별이나 편견이 있을 수 없으며 이들은 우리의 변화를 그의 뜻에 맡기고 서로 섬겨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양육의 대상자요 그리스도가 그들 각각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인 것이다.

A 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며 그의 소개를 받은 자들이고, B 는 친구들인 제자이었고, C 는 반신반의 하는 신자며, D 는 전혀 주님를 전혀 모르고 만난 자였으며 그들에 따라 제자 양육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야 했다. 그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본문을 묵상해 보자. 그러나 그들을 주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다.[143]

- 가르치는 권위자와 배우는 자들의 접촉 방법의 실제

우리가 서로 접촉할 때, 문제를 서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의 해결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접촉은 첫단추같이 매우 중요하다. A 에 있는 구절과 같이 은혜 시대를 연결하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그가 가르친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사적인 접촉을 이루었다. 그후로부터 믿는 자가 수시로 성령 받을 준비가 되면 그의 계시와 운행하심으로 인해 접촉되어 전도나 선교를 하게 된다. 믿음에 회의적이거나 혼돈된 자들에게도 생각나게 하거나 (벧후 1:12, 13, 15) 그리스도를 가르쳐서(눅 24:45)

[143] 성경에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룬 대표적 인물로 요셉을 들고 싶다. 창세기 37-50 장까지의 그의 이야기에서 특히 50:15-21 은 그의 용서를 통한 주 안에 하나로 만드시는 화목,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주요 목적이다.

그분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주께 나온 이유일 것이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도자의 소개나 도움 없이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눌린 자이나 예배에 대한 관심과 사물에 대한 판별력은 탁월한 여인이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사마리아에 친히 '가셔야 하겠다' 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본을 받아 그들에게 가야 한다. A 와 B 에서 소개나 인도함을 받고 주 앞에 나갔으나,

C 는 니고데모의 반신반의하는 회의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제한된 만남에 있고, D 경우는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자나 소개하는 자가 없어도 성령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신다. 주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구원의 소식이며 그 방법과 접촉은 양육받는 자의 본이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여 공부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도 "가셔야 하겠다 (요 4:4)" 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역의 지경은 끝이 없다. 다만 우리의 이상 (vision)의 한계가 끝이므로 이 이상을 제한 하지 말아서 그것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144]

- 예수님의 첫 질문이나 평가와 이후의 대화들

우리가 권위자와 접촉한 후 다음 단계로 문제의 발견임을 본문에서 보게 된다. 그 이후의 대화는 일단 문제를 알고 나면 그것의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 A 의 대화에서 권위자와 제자 간에 서로 사전의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문제가 무엇인 지를 묻게 되고 제자들은 이에 대답하면서 되묻게 된다. 그로부터 대답은 주의 계신 곳에 가 보고 배우는 것이다. 이전에 선생인 세례 요한을 통해 훈련된 제자들은 그들의 질문과 판단은 간결하나 정곡을 찌른다. 또 이들이 즉시 행하는 순종도 특출하다. B 에서, 나다나엘은 친구을 통한 증언도 들었고 토론도 한 후에 주님을 찾아가니 예수님은 먼저

[144] Dale Galloway, *The Small Group Book* (Grand Rapids, Michigan: Fleming H. Revelll, 1995), 31.

그를 평가하시며 격려하신다. 이 과정에서 주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고 주를 ‘이스라엘의 임금’ 으로 고백한다. C 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주님의 평가요 교훈은 ‘중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없다’ 는 경고와 권유하심이다. D 에 주님의 첫 질문인 ‘물을 좀 달라’ 고 물으신다. 처음 만남 사람에게 첫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오래 기억 될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자의 의도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여인의 질문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시의적절한 질문과 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다면 우리의 여생에 기억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145]

5. 연역적 성경 공부에서 귀납적 성경 공부의 이해

만약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한다면, 이들은 성경 말씀이 그들의 입장에만 동의하는 것을 원하므로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성경 자신이 뜻한 바’ 를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된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분열은 성경을 연역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인 것 같다. 성경 말씀은 많은 말들과 아이디어와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므로 사람들은 이것들 중에 한 가지만을 뽑아 문맥 (context)과는 상관 없이 없이 자기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까지도 할 수 있다. 지난 역사의 흐름의 어느 시기에서나 큰 관심과 주의력을 집중했던 주의나 주장은 이런 주의의 관심을 받기 그 이전에 수 세대를 걸쳐 무시되었던 기독교 신앙의 한 견해들임을 주의해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 개인이나 그룹이 어느 한 주의에 지지자가 되면 이 주의가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서로가 분리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145] Mary Schaller, *How to start a Q place* (Dobbs Ferry, New York: Q place Publisher, 2008) . 여기서 Neighborhood Bible Studies 는 2008 년에 Q place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Dr, Carl E. Armerding [146] 은 성경에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역적 성경 공부는 주의나 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주장이나 일반화된 사실을 증명하려고 자료의 집합체 (성경 자신)로 가서 그 주장을 뒷바침할 것을 찾아낸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의나 전통에 익숙되어 이미 확고히 고정된 생각를 옹호받기 위해 성경으로 접근한다." [147] 기독교의 모든 이단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며, 성경을 높이 존경한다고 하는 정통파 기독교회도 그들이 성경 공부에 접근하나 성경을 증거로써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그들은 전통이나 주의만 신뢰하고 단지 성경은 그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만을 만족시키려는 것 같다. 많은 그룹이나 교회들이 성경의 66 권 중 어느 한 책의 첫 줄부터 그 책의 끝까지 연속하여 설교나 공부하거나 가르치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실 때 그 대화의 통로를 중단하여 끝까지 말씀을 듣게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이다.[148]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역적 접근은 첫째로, 논제 (주제)를 가지고 본문에 접근하여 이 논제를 옹호하는 구절을 찾아낸다. 둘째로, 앞뒤 상황을셋째로, 성경 자신이 말하게 하도록 하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의 뜻을 받아 드릴 것을 강요하듯이 이용한다. 이러한 연역법의 특징은 말씀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뜻인 자유롭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함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특성과 모든 성품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맞지 않는 정반대의 접근과 해석함이 문제이다. 진리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를 (히 13:8) 연역법으로도 증명하지도 못하며 또 그분의 뜻을

---

[146] Dr. Carl E. Armerding was a founding faculty member and the second president of Regent College and retired as Academic Director of Schloss Mittsill Study Center Mittersill Austria.

[147] Marilyn Kunz, *Inductive Bible Study.*

[148] Marilyn Kunz, *Inductive Bible Study.*

찾을 수도 없다. 더욱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귀납적 접근임을 이제껏 설명하였고 역사적으로 로마 천주교의 성경 접근은 너무나 연역적이며 그 폐쇠되고 전통적인 인간의 교회들은 그 가르침의 열매를 보게됨을 주지하는 바라고Marilyn Kunz[149] 는 말했다.[150]

토의식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려면 토의에 참가하기 한 주일 전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준비가 필요하지만 고정된 사고의 연역법 접근은 이런 준비가 필요치 않는, 듣기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치 않게 하므로 간편하여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토의식 접근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가장 좋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전도를 위한 그룹 성경 공부에도 이 토의 형태가 아주 효과적인 공부이다. 이 성경 공부는 단순히 사실을 배워서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변화를 가져오는 배움이라면 토의 방법이 강의식 방법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151] 또 성경 공부의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옴으로 터득되는 변화와 삶의 방식과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데 있다.

---

[149] Marilyn Kunz is the founder of Neighborhood Bible Study and one of the 100 Christian Women Who Changed the 20th Century.

[150] Marilyn Kunz*, Inductive Bible Study.*

[151] 메릴 F. 엉거, *강해설교의 기술* (서울: 보이스사 편집부, 1991), 161.

IV. 실제 귀납적 성경 공부의 이론

1. 성경 공부 말씀의 권위자와 근본되는 말씀 묵상

1) 성경 공부 말씀의 권위자

성경 공부의 권위자나 주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의미한다. 사도 요한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 20:30)."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며 또 어떤 다른 권위자를 선정하여 이끄심이 아니라 이 보혜사로 도우시는 '성령과 말씀인 성경' 만으로 이끄신다.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를 할 때 공부의 순서를 이끄는 사람인 질문자 (인도자)는 성령의 지시로 참가자들에게 질서를 유지시키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돕는 자며 참가자들은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하며 계획하고 진리를 나타내 보이도록 묻고 간구해야 한다. 이때 질문자는 성령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보혜사의 역할을 해야 하며 토의의 도전이 되는 것으로, 참가자 자신들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끼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그룹이어야 한다. 오늘 과제에서 너무 많은 분량을 다 알아야 할 위협이 없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자유와 이해가 안되어 혼돈되는 질문들도 자유롭게 받아 들여져야 한다.[152]

[152] Gladys Hunt,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Wheaton: Harold Shaws Publisher, 1994), 45.

질문자 혹은 인도자 (question-asker)가 그 역할을 할 때 그가 성경을 연구한 자 혹은 교회 지도자 혹은 성경에 박식한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관자의 역할이 아니고 돕는 자의 역할이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 아래 도울 수는 있으나 성령의 도우심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진정 성경 공부의 선생이 될 수 없으며 또 필요도 없고 온전히 돕는 자로 말하기보다는 질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로 참가자로 돕는 것이다. 이런 과정까지 이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책을 근거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하신다. 이 때 우리는 베드로후서 1:19 에 있는 '빛비췸' 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치게 된다. 진리를 발견하여 이것을 자유롭게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귀납적 성경 공부의 토의 진행을 위해 권위자의 뜻과 지시가 우리에게 영감으로 전해져 그에 따라 토의를 규례 있게 진행하고 또 각 참가자 모두는 고르게 참여되어야 한다. 한 토의가 끝나게 되면 진행을 해야 할 다음 질문자 (인도자)를 참가자들의 형편에 따라 의논하여 정하여 돌아가면서(rotating) 혹은 변동하여 (floating) 그 역할을 감당한다. 여기에는 좋은 뜻이 포함되는 데 이것은 참가자 전원에게 지도력을 개발시키고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다음 질문자로 하여금 토의를 진행 인도하게 한다.[153] 필자는 지난 십 여년 간 실제 현장에서 7-8 인을 한 그룹으로 한 성경 공부에서 토의 진행의 본을 보이기 위해 토의를 인도하며 익숙해 지면 그들이 진행하도록 질문자를 정하고 돌아가면서 그 일을 참가자가 감당하도록 맡겼다. 이때 질문자 (인도자)는 가능한한 설명이나 박견의 말을 하지 않고 대답을 삼가며 참가자들의 토의의 질문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에만 신경을 쓴다. 이렇게 토의 인도를 돌아가며 해 나갈 때 그 공부 모임은 훨씬 참여도가 높아지고 흥미와 관심은 모두에게 커 갔다.

---

[153] Ibid., 25.

2) 성경 공부에 근본되는 말씀 묵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일이다 (시 1:3).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경고와 견책 그리고 교훈을 준다. 수도물이 수도관을 통해 흐르듯이, 기도가 아닌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나가며 읽히는 것이 또한 아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마음 판에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단계를 아담 (창 3:8-19)과 시므온 (눅 2:25-35)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성령의 도움으로 묵상하며 공부하는 단계를 본따 우리 삶에 적합한 모형으로 습득한다.

1 단계: 마음의 준비 (그분이 우리와 교제의 사귐을 원하심과 마음의 준비)
불순종의 범죄 후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창 3:8).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다리심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눅 2:25).
죄지음에서 하나님의 교제의 응하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한다 (오늘의 나이다).

2 단계: 말씀을 듣고 접촉하여 그 앞으로 나아간다. 아담을 부르시고 그가 어디있음을 물으신다 (창 3:9).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는 성령의 지시 (예고)를 기다린다 (눅 2:26). 듣고 만나려는 지시의 말씀이다 (오늘의 나이다).

3 단계: 만나 문제의 발견과 해결책을 가지는 하나님과의 대면과 문제 발견을 하게 된다 (창 3:10). 성령의 감동과 부모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눅 2;27), 불순종 이후 하나님과 대면하고 문제 발견을 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해결을 알게 된다 (오늘의 나이다).

4 단계: 응답으로 문제의 해결로서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렸느냐, 먹지 말라고 명한 그 과일을 먹었느냐 (창 3:11),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눅 2:28),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고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된다 (오늘의 나이다).

5 단계- 적용과 결과 (심판과 영광)로, 죄의 실토와 회개 (창 3:12)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구원을 보게 한다 (눅 2:29). 불순종한 자는 회개케하시고 경건한 자는 평강을 주시며 자유와 구원에 이른다 (오늘의 나이다).

위의 1. 마음의 준비, 2. 부르심을 듣어 접촉하기, 3. 만남과 문제 발견. 4. 응답과 문제 해결 5. 적용과 결과, 이것들은 묵상을 통한 성경 공부의 단계들이다. 1 과 2 의 단계는 관찰이며 3 과 4 의 단계는 해석으로, 5 단계는 적용이다.

2. 소그룹 토의의 의미와 진리 발견의 방법

소그룹 토의의 시작은 당신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과 의미있는 대화로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접촉하면 이것은 대개 다음 중 하나로 연결되게 된다. 실제로 함께 성경을 읽는 일이나 함께 성경 공부를 제의하게 된다. 시작할 때에 큰 진전은 <그것을 하려는 결정>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제의하는 그에게 큰 신뢰로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주신다. 2000 여년 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며 순박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이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즉시 그를 따랐다.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감격이나 기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주께서 고기를 낚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일에 그들을 참여시킬 것을 짐작했다. 사람이 마음 속에 터득되어지는 진리를 알게 될 때 오는 순전한 모험과 삶의 변화를 보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 된다.

소그룹 성경 공부는 중립적인 (neutral) 분위기에서 성경 공부할 기회를 주게 되고 그 안에 쓰여 있는 것을 토의하게 된다. 이 토의는 삶의 의미를 숙고하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영적인 문제나 질문들로 질문하는 자연적인 연결을 열어나가게 된다. 당신은 친구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대신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당신과 함께 발견하도록 그들을 초청한다. 이것은 설교를 할 기회가 아니고 발견하기 위한 협동의 진지한 시간이다. 성령의 빛비췸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고후 4:6 , 벧후 1:19)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이 엄청난 진리를 직접 발견하여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발견된 진리를 우리가 토의를 통해 함께 나눌 때 나누는 기쁨을 연거퍼 누리게 된다.[154]

3. 소그룹 토의 안내서의 효능 극대화[155]

- 소그룹 토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을 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발견한 것또는 이것의 뜻이나 혹은 이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에 고무적인 장소가 좋으며 또 그룹 내에서 읽고 공부하며 나눌 때 서로 배우기 위해 질문하고 이야기는 가능한 한 줄여 성경만이 그룹 토의의 유일무이한 자료이고 권위자이어야 하며. 이 시대에 나온 다수의 번역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지(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 지 (어떻게, 왜), 본문이 내 삶에 무슨 뜻이 있는 지 (그래서 어떻게, so what)인 귀납적접근의 성경 공부이어야 한다.
-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적절한 토의 공부 안내서이다. 당신이 공부하기 이전에 성경의 어느 부분을 깊이 공부하여 그 본문의 보석들을 혹은 진리와 연관성 또 적용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룹이 자신의 힘으로 성경 내용을 파고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발견한 것들로부터 질문들을 만든다. 잘 만든

---

[154] Oletta Wald, *The Joy of Discovery in Bible Study*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5), 7.

[155] Ibid., 15.

질문들은 성경 공부 그룹이 대답을 발견하도록 본문에 더 깊이 집중케 하며 피상적인 대답을 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156]

- 또 특수한 기능을 가져야 하는 이끌어 주는 의미(handpuller) 는 참가자가 골고루 정보가 알아져서 토의 전에 균일한 지식을 갖게 하여 토의가 원만하게 또 활발한 나눔과 발견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서로의 정보를 고르게 함 (equalizer)이 중요하다.

- 안내서 (guide book)가 가져야 할 조건은[157] 본문 자체의 뜻을 임의로 변형시키지 않어야 하며 참가자에게 임의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종교적 냄새를 풍기는 전문적인 용어나 말씨를 삼가야 하고 귀납적 접근의 내용이어야 한다.

- 그룹의 역동성은 소그룹이 8 명이라면 2 사람은 이런 공부에 경험이 있든가 혹은 소그룹 토의를 아는 사람으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면 더 좋다.

질문자 (인도자)의 권한과 한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는 (인도자)안내서의 질문을 읽어서 묻기만하고 토의 진행을 원할히 해야 한다. 참가와 토의의 형태 는 골고루 질문에 대답해야 하며 질문자 (인도자)는 참가자들을 격려해야 한다. 토의의 형태는 부채꼴보다는 별모양의 토의이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들을 소그룹에 적용할 때,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친구와 사귐이 일어난다.[158]

- 토의 그룹의 진행은 토의 본문 내용으로만 토의하며 혹 인용의 한계 (frame of reference)를 정한다. 주제를 떠나 딴 곳으로 빠지는 토의를 금하라 (No tangent). 성경만이

---

[156] Marilyn Kunz, *The philosophy of Neighborhood Bible Study.*

[157] Gladys Hunts, *You can starts Bible Study Group* (Wheaton, Illinois: Harold Shaw Publishers, 1971), 49.

[158] Neighborhood Bible Studies Inc. Dobbs Ferry, NY 10522   9/95.

언제나 권위자다.

위의 방법들을 다 종합하여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복음을 이해하고 죄용서함과 영생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된다.

4.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배우는 법

인간의 존엄성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즐길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제의를 받아 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고 말씀을 질문하거나 연구하는 자유를 주어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위탁을 받았다. 이런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듣는 것에 10% 밖에 들은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들이 들는 것 뿐 아니라 들은 것을 눈으로 보고 본 것을 발견하는 일에 가담하고 참여하여 발견한 사실은 90% 까지 기억한다. 교육 프로그램에 유명인사가 쓴 유치원 교실의 뒷면에 쓴 표시판에 전시된 구호들은 선생님들이 보도록 쓴 것 같아 보이는 데 '나는 읽는다'- 즉 '나는 잊어버린다', '나는 본다'-'나는 기억한다', '나는 시행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한다' 라고 쓰여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이미 생각 되어진 의견을 그의 머리 속에 주입시키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19 세기 어느 철학자가 갈파했다.

이 원리에 대한 좋은 훈련으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질문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의 질문이라도 하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그런 분이 왜 질문들을 하시는가? 당신이 읽어가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의 대답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즉 그들 자신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참여케 하고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힘으로 대답을 찾을 수 있게 하며 주님이 물으신

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해 정도를 민감하게 알고 계셔서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해답을 발견하도록 적절한 질문으로 도우신다. 성경 공부에 참가자들 가능한 한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참여케 하라.[159]

- 효과적인 소그룹 토의를 위해 유의할 점들은[160]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함께 가져오고 일어나고, 배움이란 자의적인 과정으로 모든 참가자는 지식과 경험을 가져온다 (이것들을 서로 배운다). 참가자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은 서로가 배우는 쌍방통행이다. 변화를 준 가르침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풍성하게 하며 성령은 참가자가 배울 수 있는 양 만큼 가르친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하라는 요한복음 11:44 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기본권까지 그의 뜻대로 자유롭게 하시고 존엄권을 인정하신다. 우리는 말씀 공부를 통해 그분을 찾아 나가는 길도 조급하지 않게 우리를 이해해 가는 정도 만큼에서 도우시며 격려하신다.[161] 주님은 그분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룰 것이다.

5.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경 공부의 특징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모신 삶은 어떠할까? 그분과 함께한 삶은 폭풍우 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늘 안전하며 (막 4:39) 그분을 모신 삶 자체는 모험적이고 혁신적이다. 이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풍랑이

---

[159] Neighborhood Bible Study Inc., Effective Discussion Bible Study.

[160] Discovery truth & building friendship through small group bible studies ⓒ 1993. NBS Inc. Dobbs Ferry NY 10522 9/95.

[161] Marilyn Kunz, *The philosophy of Neighborhood Bible Studies.*

와도 무서워 마음쓰고 주의를 빼았기지 않아야 하기 보다는 그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앎이 중요하다. 이떤 위험과 어려운 일에서도 사탄은 우리 관심을 그 대상물 자체에 돌릴려고 하나 우리의 무기는 주님이며 그분에게 사랑과 순종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이다. 이것은 사탄이 도무지 이해치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말씀에 바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맞추어 나갈 때 우리의 모험적인 일들도 능히 이길 힘을 얻기 때문이다.[162]

- 주께서 바리새인이 세리요 죄인인 레위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고 한 마가복음 2:14-17 를 여러번 읽고 다음의 토의 안내 질문에 대답해 보자.[163]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을 때, 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는 누구를 위해 세금을 걷우는가? 그는 로마 정부와의 관계로 그들의 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받는가? 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는가? 당신은 그가 제자의 후보 자격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당신은 왜 세리들이 폭넓은 교제를 못한다고 보는가?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 그는 무엇을 하는가? 레위의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심에 바리새인들의 반응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반응을 당신 자신의 말로 나타내 보라. 이 사건에서 다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한 당신의 판단, 세상에서 당신의 연관됨, 당신이 나누어야 할 메시지, 등등.
주께서 오신 것은 혁신, 모험적인 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는 평강의 변화이다.

---

[162] 최형섭, *성령의 학교* (서울: 도서출판, 예수 전도단, 1999), 296.

[163] Marilyn Kunz, Schell Catherine, *마가복음(guide book),* 송수호 역 (Montclair, New Jersey: 물가에 심은 나무사, 2010), 17.

6. 귀납적 성경 공부 적용에 주의할 점

귀납적 접근의 성경 공부에서 관찰, 해석, 적용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관찰에 큰 관심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주의 깊고 꼼꼼한 관찰을 하므로서 정확한 해석과 근거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장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를 물을 때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성경 공부가 아닌 '느낌' 을 주고 받은 것 뿐이다. 어떤 그룹은 성경 공부에 귀납적 접근을 사용하나 성경 말씀 자신이 말하게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성경이 말씀 해설 사전과 같은 해답집 혹은 참고서 혹은 기타 가르침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이 유일한 권위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에 그들의 권위자로 여긴다. 이 현상은 사람들을 늘 어떤 '인물이나 사물' 에 의지하게 하여 그들이 정한 권위자를 배척할 때는 언제나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한 권위자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게 만든다. 이것은 그들에게 성경은 굳게 닫혀진 책이 되고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 말할 수가 없게 된다.

V.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양육

1. 예수님이 행하신 제자 양육 모델

예수님은 종종 큰 무리를 가르치셨으나 그의 공생애의 주된 사역은 열 두 제자를 택하사 함께 있게 하시고 사역에 동행하여 제자들은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배웠다. 사역을 마치신 후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사로이 질문도 하시고 그들이 관찰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막 9:28-29). 어떤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지' 에 관한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옳바른 성경 공부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본문이 뜻하는 것' 을 서로 교감하면서 함께 토의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성경을 심중하게 대하는 태도다.[164]

1) 제자 양육의 준비

(1) 제자 양육의 목적 (막 3:14-15)

'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는 주께서 열 두 제자를 뽑으실 때 인간의 관점으로는 선택 기준 이 전혀 없어 보이는 주님의 제자 선택은 그분의 선택 기준으로 열 두 제자에 공통되는 점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따른다는 점' 이다 (마 4:20, 22). 이 기준으로 부르신 그들을 전인교육의 훈련을 3 년간 하루 24 시간 일년 365 일을 집중 훈련하신다. 공생애 3 년은 양육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함께 있게 하는' 제일 우선하는 조건이 된다. 함께 있게 하는 공동체를 기독교 교육 (제자 훈련)의 이른 바 실천을 위한 문맥 (context)의 내용, 그리고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 Westerhoff 는 '종교 교수 (teaching religion)' 와 신앙 교육 (education in faith) 사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165] 말씀되신 그분과 함께 거함은 그 자체가 이미 귀한 제자 양육이 된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에서 위의 양육 기간 중에도 종종 둘씩 보내사 (막 6:7) 전도하는 실습 시간을 가지며 아웃리치 (outreach)를 위한 자세와 방법과 준비를 일일이 습득케 하신다 (막 6:9-10).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우 귀중한 교훈으로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

[164]Gladys Hunts,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Wheaton, Illinois: Harold Shaw Publishers), 38.

[165] 고용수, *신앙 공동체 중심 교육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494.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 18:19)고 약속하신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이 받은 훈련은 집약적이며 효율적으로 말씀 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훈련시키심은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권능으로 주님 승천하신 이후 많은 여러 곳으로 흩어진 일들은 성령의 역사이고 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 이 열 두 제자들의 성장은 그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구상에 말쓰의 놀라운 변화는 그가 부르실 때 '그를 따름'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지금도 그를 따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 이때 조심할 것은 본문이 말하는 정도 이상으로 과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절들만을 뽑아 그 책의 전체 뜻과 문맥에 상관 없이 설교한다. 그들은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신자들을 확신시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166]

(2) 제자 구성의 모델(마 10:5-2-4)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 은 지원이나 타의에 의한 요청이 아닌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부르셨다. 이 부른 제자들을 보면 어부들, 정치적 열혈 당원, 또 세리 등으로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특징도 없는 자들이다. 그들 중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반석과 우뢰의 아들이란 별명들을 주셨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비범한 사람들로 양육하여 쓰심을 보이신다. 즉 세상적인 기준은 전혀 관심을 쓰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 중 삶의 목표를 바로 주시도록 별명을 주어 그들이 이런 자가 되도록 처음부터 양육을 시작하신다.

우리의 제자 양육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자를 부르는 일에 선입견 없이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의 제자를 부르심에 공통적인 특징은

---

[166] Gladys Hunt*,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Wheaton, Illinois: Harold Shaw Publishers, 1994), 44.

그들이 즉시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가는 이 태도는 놀라운 것으로 이 행동은 충성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막 1:17-18)." 하시고 또 안드레와 요한은 부름을 받자 "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막 1:20). "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조건이 복잡하지 않고 불분명해 보이나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만 그가 원하시는 제자됨의 요건이다.[167]

이런 순종 뒤에 그들의 믿음이 뒷바침이 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게 제자되기 위한 자격으로 인간의 제한된 생각의 범주 안에서 판단하나 주님의 제자 택하심은 우리의 생각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3) 제자 양육의 운영 원칙

A 제자가 나아갈 지역 (마태 10:5-6)

이에 나타난 지역들은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 지시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택된 그들이 온 천하에 산재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며 그들에게 향한 중요한 지상 명령임이 틀림 없었다. 성경 말씀은 만국에 퍼져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에 이른다 (말 1:11)고 말씀하신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하라는 말씀에 깊은 뜻이 있을 것이나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마도 그분의 뜻 중 하나는 그들의 공통된 장점은 조상 중심과 선조의 믿음을 지금도 변개 없이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님은 이 장점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도 그렇게 그들의 좋은 전통으로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변함 없이 전파되게 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사료된다.

제자 양육의 모임을 '세포' 라고 할 때 그 모임은 구성원과 임무 라는 두 가지

---

[167] Juan Carlos Ortiz, *Discipe*김성웅 옮김 (Seoul: Tyrannus, 1989), 130.

국면이 있다. 임무는 말할 것 없이 귀중하며 구성원 자체도 또한 귀중하다. 제자로 사는 사람은 지위 고하에 상관 없이 세포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귀중하다... 세포 모임은 구성원의 사회적, 영적 심지어는 경제적 욕구도 충족시키도록 돕는다. 세포 모임은 그들의 고민과 문제들을 함께 고민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멍에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모임만이 물과 불같은 역사로 지상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임무를 이루는 그들의 존재 이유에 합당한 역사를 한다.[168]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관심은 지구상의 10-40 도의 창 (window) 을 지칭하며 이 지역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와 힌두교, 불교, 유대교로 채워져 있다. 이곳이 선교의 마지막 남아 있는 땅들이며 이곳을 위해 강한 훈련과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은 민족이어야 할 것이다. 중국 지하교회는 자기들이 이 남은 험난한 지역들의 전파의 적임자임을 자인하며 준비하고 있다.[169]

B 아웃리치의 내용(outreach, 마 10:7-8)

제자들이 세상에 전할 소식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세상의 천국으로 보고 이런 천국을 이룰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으나 제자들이 전파하는 천국은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이루워지는 천국으로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뤄지고 있다. 주님은 영적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 육신의 삶의 생활에서도 천국을 이루워 실천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사 61:1-3)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그들에게 병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심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 은혜와 이 복으로 모든 것을 받았으니 우리의 사랑과 시간과 소유를 나누워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파할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주님의

---

[168] Ibid., 160.

[169] 윈형제, 헤터웨이 폴, *백투 예루살렘* (서울: 홍성사, 2005), 171.

몸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과정들로 주의 성만찬을 기억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늘 전파하는 것이다 (요 6:51). [170] 이 전파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행 3:6) 것, 나눔이 outreach 의 내용이며 핵심이다 (joy of sharing).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요한일서 1, 2 장은 전함이라고 여러번 강조한다. 이것은 전도의 내용임을 말한다.

C 아웃리치 비용 (마 10:9-10)

8b 절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인도와 지도의 가르침을 거져 받았으니 .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9, 10 절)." 즉 오늘날 선교지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질을 미리 준비하지 말고 주께서 공급하심을 간구하며 절대적으로 주만을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10 절에 '일군' 이란 사역을 시키는 주인이 공급하신다는 뜻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믿지아니 하는 자들이나 듣지 못한 자들 (롬 10:-14)을 위해 '나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다. 이들을 영접하여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함이라 (요 3 서:7-8) 고 말씀하신다 .

톨스토이는 말년에 그의 이상을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데 고민하여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자 재산과 지위를 저버리고 일개의 농민으로 살면서 무저항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검소한 생활, 철저히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의 생활 직접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생활들을 실천했다. 그와 동시대 생존했던 헨리 죠지주의의 주장인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 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한 자기의 땅을 다 나눠주기를 시작했다.[171]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

[170] Gladys Hunt,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Wheaton, Illinois: 1984), 78.

[171]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서울: 예수원 편집, 1989), 292.

'보냄을 받은' 사람과 같이 그의 많은 땅과 재산에 '보냄을 받은 자' 로서, 단지 '일군' 으로 자의적인 가난을 실천하여 의를 자기 힘 닿는 대로 행하여 실천에 옮겨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는 자'로서 살고 자기 것같이 아무 것도 없이 살아도 마태복음 10:9-10 과 같이 주의 종으로 신실하게 생을 살았다.[172]

그는 아웃리치를 그의 재산에 시행함으로 보내심을 받은 일군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해 (눅 4:19)를 행하고 그의 저서들을 통해 주님을 전파하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양육시켰다. 이는 말씀의 일군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잠 19-17) 라고 하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가진 것, 다과에 관계 없이 그와 같은 태도를 본받아 보냄을 받은 자로 비용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런 보내신 자들의 궁함을 채워야 할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이며 (고후 8:4) 선한 뜻을 우리 안에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거져주고 필요를 받게함이 그분의 뜻인 공의이다.

(4) 제자 양육의 영적내용과 방법

A 접근 (마 10:11-15)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위와 같이 준비를 한 후에 그들을 접촉하는 과정을 설명하신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전도 받는 자와 만나야 하는 접촉부터 시작된다.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말씀 (골 4:3)을 부탁하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 기회를 갈구했으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비밀' 을 말씀할 수 있기를 간구하였다. 새로운 전도 대상 지역에 들어 가든지 또는 해야할 일들과 그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적용하며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는 곳에 대한 경고와 표적을 말씀하신다.

[172] 윤사무엘, *한국 교회의 경건 인물들* (Princeton, New Jersey: 보이시사, 2002), 144.

B 적대감과 성령의 역사 (마 10-16-23)

제자가 파송되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고 핍박은 친구나 가족 중에서 또 이 세상과 정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방해에 대해 우리의 갑옷은 예기치 않게 비둘기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 나가라고 요구 한다. 세상의 전투와는 크게 다른 전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갑옷으로 무장한 영적 전쟁이다. 이때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전파하는 말에서 나타나며 그분이 말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은 양날선 검 (히 4:12)과 같이 역사하며 가족간에도 믿음이 서로 달라 대적하며 죽이는 자리에 이르는 데까지 넘겨지나 끝까지 견디는 훈련으로 구원을 확보해야 하며 믿음을 위한 배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믿음은 영적 생명이 침체되기 시작하여 악취가 날 것이다. 지도자들이여 주의하라. 양들에게 어떤 양식을 공급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영혼을 향해 나아 가도록 어떻게 이끌었느냐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173]

이런 박해와 고난을 참아 가는 중에 구원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게 된다. 이때 또한 경고의 말씀 (22 절)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려움이나 박해 그 자체가 곧 구원을 의미함이 아니라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역의 현장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절대적이며 우리의 말에 전적으로 도우시며 시련과 박해 중에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적대적인 일에 직면할 때 성령의 도우심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 삶에서도 실제 존재하는 죄로 인한 고투를 죄 속에서도 발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도 능력이 없으나 우리 자신이 회개하여 기도할 때 사람들 위에 임한 강력한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거듭남을 확고히 할 때

[173]원형제, 해터웨이 폴, *백투 예루살렘,* 류웅렬 역 (서울: 홍성사, 2005), 192.

대로를 건설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사역의 근본적인 힘이 된다.[174]

C 영적 분별력의 사역(마 10:24-33)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이라 칭했다 (마 9:24). 그러면 그들은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취급했겠는 지 또한 그들의 위협함은 얼마나 심했겠는 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널리 드높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어느 상황에서도 시인할 것을 당부하신다. 우리가 이 낮은 곳의 삶을 떠나 저 높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나 그냥 공중으로 들려 올라 가는 것 아니고 험한 골자기 사이로 한걸음씩 딛고 올라서야 한다. 이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175] 우리 몸은 죽임을 당하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하여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175]

D 영적 무기(마 10:34-39)

화평이란 요한복음 14:27 과 같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고 하시며 다툼과 불일치가 있는 것 위에 피상적인 평강을 임시 방편으로 덮는 것보다는 검을 택하라고 권유하신다. 주께서 헌신하려는 제자들에게 가족으로부터 마찰이나 분열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있을 지라도 주의 군사된 제자는 그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되어도

---

[174] Dean Sherman, *Spiritual Warfare* (Seattle, Washington: YWAM Publishing, 1990, 181.

[175] W. Philip Keller,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김만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0), 89.

결국에는 그의 목숨을 얻게 된다. 인생의 삶을 가장 잘 즐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상급을 단단히 꽉 붙드는 손을 할짝펴서 자유롭게 된 손으로 주님을 불들고 따라야 하겠다 (마 16:25). 그러므로 영생을 상속 받게 되며 영적인 유익한 경험을 얻게 되고 또 이 세상 삶에서 버리고 놓아야만 참 진리를 붙드는 여유가 있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마지막 무기인 중도 포기 (quitter)는 않 되는 것이다.

" 너희에게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176]

E 영접의 원리(마 10:40-42)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면 그를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14 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 " 이는 제자들의 섬김 중 영접과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주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열 두 제자를 부르사(마 10:1)" 그의 제자 양육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마 11:1)" 로 끝내셨다. 이는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을 통해 말씀의 전파가 오늘날 기독교 사역의 모든 열매를 맺게 되었다.

2. 이 시대의 제자 양육

우리는 이 제자 양육 기술을 책이나 강의를 통해 습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

---

[176] 단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105.

[177] Dean Sherman, *Spiritual Warfare* (Seattle, Washington: YWAM, 1990), 196.

생활에서 이것을 배웠다. 따져보고 말 것도 없이 이 기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즉 '새술' 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려고만 한 것이다.[178] "주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 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막 3:14-15)." 이것은 주께서 열 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며 제자 양육의 내용이다.

이때, 원칙의우선은 먼저 그 안에 거 (居, dwelling) 하는 삶이다. 요한복음 15:4 에 거하는 것이 제자됨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7 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조건은 그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하는 삶이다. 이 근본되는 기초의말씀을 적용하며 살아 보아야 한다. 특이한 점은 주님이 제자 양육반을 따로 신설하고 선교갈 팀을 따로하여 신학을 가르치고 심리학과 상담학의 지식적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주님은 자기를 닮도록 그의 성품과 인격을 행하여 보이시고 함께 사심으로 전인격적인 삶을 공동체의 삶에서 보이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다.[179]

1) 제자도

신약에서 '제자' 라는 말은 헬라어의 마세테스 (marhethes) 라는 말로서 '배우는 자' 성도', '제자' 라는 뜻이다. 이 말은 만사노 (manthano) 라는 동사에서 유래되는 데 '발견해 내라' 는 뜻인 데 교훈보다는 '경험과 행함으로서 배우라' 는 의미이다. 제자란 어떤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승의 행동이나 삶을 배우는 사람이다. 스승의 전 인격을 통한 삶을 전수 받는 자를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사전에서 제자 (disciple)로 라틴어인

[178] Juan Carlos Ortiz, *제자 입니까*, 김성웅 옮김 (서울: 두란노, 1989), 153.

[179] 서정운, *예수의 제자 교육과 오늘의 신학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529.

디스키페레 (discipere)에서 유래되어 'to take a part completely' 로 어떤 것을 완전하게 분해하여 이해한다는 뜻이다. Disciple (제자)의 용어는 discipline (훈련하다)의 어원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자의 어원에 대한 두 단어의 뜻을 분석하면 주요 단어로 '배우는 자' '발견해 내다', '행함으로 배우라', 행동이나 삶을 배우는 사람', '삶을 전수받는 자', '분해하여 이해한다' 로 뽑은 말씀들의 뜻은 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습득한다기 보다는 배움에 참여하여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옮김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자를 제자라 하여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 함께 거하고 그를 닮기를 원하는 것이다.[180]

2) 제자 양육

(1) 소그룹으로

주님은 그의 공생애에 열 두 제자의 소그룹으로 집중하여 가르치셨고 그의 본을 보이셨다. 다수가 모이는 교회도 제자 양육이 예수님이 하신데로 자라가야 하되 참된 진리로만 전파하신 주님의 본을 오늘날 우리도 제자 양육에 적용해야 한다. 고대하며 메시아를 만남으로 감격한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빌립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곧 나다나엘을 찾아 그를 전도하는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는 자를 배가해 가는 기본적인 법을 배우게 된다. 온전하고 역동성 있는 진리로 그들를 터득케 하며 한번에 한 사람씩(one at a time) 으로 전파해야 한다. (딤후 2:2).[181] 소그룹으로 진리를 발견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소수에서 가하급수로 나가게 된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180] http:111720691.org?news-view,html?s-df5492s

[181] Ibid., 531

사랑하는 것이며(마 19:19) 이것은 이런 전파의 원동력이며 선지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대강령이다. 예수님이 열 두명의 소그룹으로 인격적인 집중적 교육을 시키셨고 특히 잡히시기 몇 주 전부터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드려 교육시키셨다.[182]

(2) 토의의 필요성과 역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 (man)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men) 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벧후 1:21). 여기에 밝히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수의 사람들이 성령 감동으로 '말한 것' 즉 서로 '토의한 것' 이다. 여기서 오늘의 기독 교육적으로 보는 제자 양육을 위한 모습은 성령의 감화받는 소수의 무리(small group)가 서로 이야기로 나누는 과정이다.[183]

토의를 통하여 피차간에 서로 듣고 그들 각자가 발견한 진리를 나눌 때 발견하는 기쁨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서로가 묻고 또 그것을 대답하여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구분된 것이 아닌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코이노니아적인상호 관계로 토의하여 가르친다.

(3) 성공적인 예습[184]

예습은 정신적 준비 운동이며 기계에 예열을 가하는 것이고 학습 공부에 기초를 제공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준다.[185] 필자의 경험으로는 주보에 다음 주일의

---

[182] Ibid., 532

[183] Marilyn Kunz, *The philosophy of Neighborhood Bible Studies,* 11.

[184] 본 논문의 Appendices #2 에 필자가 사용했던 주보(1998 년)에는 다음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과 중요 대지와 묵상 안내가 예고되있다.

[185] Howard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39.

설교 본문과 제목과 간단한 묵상 자료들을 본문에서 뽑아 각 교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예습하고 기도하므로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에 친밀해져 다음 주에 있을 말씀 공부와 설교에 대한 준비와 기대나 관심도가 높아지고 준비하며 기도도 하게 된다. 주님께 더 가까이나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된다.

(4)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법

Howard Hendricks, 하워드 헤드릭스는 제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하지 않는 다는 원리를 생각하게 했다. 잘못하면 제자를 교육학적 지체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해답을 묻는 데에 시간을 더 들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복음 10:25-37 에서 좋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듯이 율법교사는 이스라엘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가 묻은 질문에 주님은 단순히 대답하시지 않고 되물으시므로서 질문자가 답을 생각하도록 질문하심을 보게 된다.[186] 단답으로 해답되는 사고력이 없는 질문은 진리를 발견케 못하며,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절실한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인도하며 묻거나 대답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비춰이 일어난다.[187] 이런 질문이 오고 갈 때 우리는 스스로 심원한 진리의 대답을얻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생명력 있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

---

[186] 특히 누가복음 10:25-28 은 귀납적 성경 공부의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어 관찰, 해석 적용을 나타냄을 필자의 묵상에서 발견했다.

[187] 월치만 니, *말씀의 사역*,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1), 155.

VI. 프로젝트 실행

1. 연구반원 구성과 사역

본 연구의 참가 대상자들은 43-45 세 된 7-8 명의 부부들로 New Jersey 에 있는 모 감리교회에 출석해 온 집사들 이었다. 그들은 여러 해 교회에 참석하고 그들 중에는 열심히 교회 활동도 참여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에 부족함을 느꼈다. 또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는 권위적인 가르침이므로 이 귀납적 토의식 성경 공부를 처음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아주 기대감이 역력했다. 이 성경 공부의 소식을 접한 그들은 공부하기로 결정하여 그들을 수용하고 두 그룹으로 나워 한 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 저녁 7:30 부터 시작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리 탐구의 열정을 가지고 각자가 묵상해 온 말씀을 서로 나누며 토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지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었고 또 진리 발견으로 인해 기쁨을 나누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인생의 귀한 변화의 전환점을 가졌으며 매 시간 진지하게 임했다. 끝으로 그들은 참 놀라운 성경 공부임을 고백했다.

필자는 귀납적 성경 공부를 십 여년 전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 더 적합한 성경 공부 교재를 찾기 위해 여러 책방들을 방문했다. 이미 많은 주요 성경 공부들을 체험했고 그 교재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의 관심과 호기심을 계속 끌 수 없었으며 그것들은 일과성으로만 그치는 교재들 이었다. 그 것들은모두 연역적인 방법의 교재들임을 이 귀납적 성경 공부의 교재를 공부해 본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전의 공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귀납적 방법이라는 표제의 성경 공부이었으나 그것 역시

연역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귀납적 성경 공부의 참된 질문이 사용된 성경 교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발견된 귀납적 성경 공부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그 교재로 교우들과 금요 저녁 성경 공부를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로 시행했다. 이 이웃 성경 공부 교재인 Neighborhood Bible Studies Guide Book, 토의 안내서는 60 여 권의 토의 안내서로 그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발견' 이 주제이며 제일 먼저 이 책을 사용함이 가장 적합한 순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188]

필자는 나의 여생을 말씀 사역에 중점을 두고 특히 귀납적 접근의 말씀 묵상으로 한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배우는 우리 자신이 '진리 발견의 기쁨' 과 토의를 통한 '나눔의 기쁨' 을 함께 가지는 이 사역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2.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행

1) 교재

이를 널리 전파하려고 그동안 수회에 걸친 세미나들, 소그룹 성경 공부들과 교회에서와, 단기 선교 여행, 신학교 강의, 등을 통해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를 Neighborhood Bible studies guide book , 교재로 이행했다. 이때 참가자들은 이 성경 공부의 교재와 공부 방법에 놀라움을 표현했고 계속 배우기 위한 토의 안내서를 부탁했다.

이웃 성경 공부에 첫 번째 교재는 주제가 '예수님을 발견' 인 마가복음 교재로서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되었으며 배포 중에 있다. 또 번역 작업을 그동안 계속하여 마가복음 이후 누가복음, 사도행전 1,2 권 요한복음 1, 2 권 그리고 창세기 모두 6 권을 번역하여 수정하는 중에 먼저 해야할 일로 느끼게 된것은 국내외에 사는 한국인 교우들의

[188] Marilyn Kunz and Catherine Schell, *How to start a Neighborhood Bible Studies* (New York: N.B.S. Publishers, 2000), 9.

귀납적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여 (연역에만 익숙된) 이것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닫게 되어 본 논문을 속히 완성하여 책으로 알릴 필요를 느끼고 있다.

마가복음 교재의 목차는 전체 18 토의로 만들어 목차 이후 토의 안내서 사용법,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한 도구들, 효과적인 공부를 위한 지침 그리고 질문자를 위한 도움말이 설명되어서 이 토의 안내를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게 만들었다. 다음 마가복음의 소개를 함께 읽은 후 제 1 토의 , 마가복음 1 장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 을 공부하게 된다. 각자는 주 중에 먼저 이 토의의 머리말을 읽고 마가 1:1-8 를 읽고 묻는 대답을 본문에서 찾으며 묵상하여 그 대답을 발견하도록 한다.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기 일 주일 전에 예습하고 당일에는 이 안내서를 따라 공부하며 준비한 것을 서로 나누며 토의할 때 진리를 발견하고 이 각 과정에서 진리 발견과 나눔의 기쁨을 얻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7-8 명의 소그룹 토의를 하며 진리를 발견하고 나눔에서도 기쁨을 가짐으로서 공부의 목적이 이루워지게 된다.

2) 성경 공부의 실행

이것이 한국 교계에 우선 전파되면 우선 필요한 곳은 아직도 연역적인 말씀 공부를 하는 곳인 데 이 귀납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얻는 결과를 보고 그들이 선택을 결정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소그룹들은 구역 예배와 교회의 모임 등에서 이 성경 공부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실행하여 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교재로 교우들과 함께 금요 저녁에 찬양과 본 토의식 성경 공부를 했으며 또 특이해 보이지만 다음 순서는 매우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하는 순서가 있다. 이것은 지난 주 시간에 내려진 관찰 ,해석 그리고 우리 삶에서 효과를 일으키는 적용의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행하여서 온전함에 이르는 일(창 117:1)이 되는 적용을 하여 그 결과 이

적용의 성패 여부와 그 이유를 서로 나누며 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므로 성경 공부는 참가자들의 시간 여유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3) 성경 공부의 실제(Neighborhood Bible Studies Guide Book)

Neighborhood Bible Studies Inc. 에서 1960 년부터 시작한 성경 공부 교재는 토의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학습자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발견' 하도록 배려된 질문들이다.
이 질문에는 널리 그러나 자세하게 자신들이 관찰하도록 하게 하고 이렇게 이뤄진 관찰을 근거로 하여 성경이 쓰여진 때의 본 뜻을 발견케 하는 해석의 질문이 이어진다.
이 해석질문 후에는 이 진리가 오늘 '나 자신의 삶' 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지를 묻게 된다. 이 적용의 과정은 앞선 관찰과 해석을 경과한 것의 결실이다. 이 세 가지 종류로 이어지는 토의를 통해 우리가 속한 그룹에서 참가자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발견케 되고 또 그것을 그룹 안에서 토의해 나가 각 과정에서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때 그 주일에 질문자 (인도자)의 책임을 맡은 자는 안내서에 쓰여진 질문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필요하면 그 질문을 환언하기도 하여 그룹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대답은 자제하며 옳바르게 물음으로 토의를 진행을 도와야 한다. 본문에서 벗어나는 토의는 금물이고 해당 토의 성경에 집착된 생각과 토론만이 진리 발견에 도움이 된다.[189]

보통 한 그룹이 적절한 토의를 하려면 그 동안 토의 그룹의 결과를 실행해 본 결론으로 7-8 명이 적합한 토의 그룹의 숫자이다.[190] 그 날의 토의 질문자는 말하는 것보다 질문을 묻는데에 집중하면서 토의의 진행이 그 말씀 안에서 또한 참가자들 각자 모두가 다른 참여하는 지를 도와가며 토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번역본의 성경을

---

[189] 고린도후서 4:2-4.

[190] Discovering Truth & Building Friendship through Group.

그룹에서 읽는 것은 유익하며 오직 성경만이 권위자이다.

VII. 실행에 대한 분석

1. 말씀으로 인한 의식 변화

본 프로젝트는 먼저 교회 site team members 의 의식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의식 변화가 있어야 그 후에 적극적인 실행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 공부의 목적과 그 방법에 있어서 삶과 공부가 일치함을 추구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 방법과 본 논문이 추구하는 변화된 모습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차 설문 조사는 여러 해 전부터 실시했던 7-8 명이 한 그룹으로 된 두 그룹의 성경 공부를 하며 그 때마다 얻은 참가자들의 공부에 대한 평가와 논평들을 모았고 소수의 site Team members 들의 조사에 의지하였으니 이 결과가 모두 이런 성경 공부에 해당하는 경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한다. Site team members 선정 이전에 여러 해 동안 여러 곳에서 적은 그룹들이 서로 다른 때와 장소에서 이 공부의 개략을 듣고 시행되었던 성경 공부에 대한 것과 본 실행의 결과를 합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1) 신앙 생활의 기간

설문 조사에 응답하여 준 신앙생활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세례 후 2 년 이상이었다. 그들 모두는 신앙 생활에 년륜이 있는 성도들이었고 본 설문에 응한 분들의 신앙생활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1 년 미만: 0%
2. 세례 후 2 년 미만: 5%
3. 세례 후 2-5 년: 35%
4. 세례 후 5 년 이상: 60%

Site team members 의 신앙 생활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년 미만: 3%
2. 세례 후 2 년 미만: 5%
3. 세례 후 2-5 년: 25%
4. 세례 후 5 년 이상: 67%

위의 두 결과의 차이점에 나타난 것은 큰 의미가 없음은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였느냐고 하는 것에 크게 좌우되어 큰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다.

2) 성경 공부를 시행하는 수월성

기존에 연역적 방법으로 하던 때와 이 귀납적 성경 공부로 하는 본 프로젝트에서의 성경 공부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연역적 방법으로 공부할 때는 본문과 질문 안내서가 없음으로 예습이 불가능하다.

귀납적 방법으로 공부할 때는 본문과 질문 안내서가 있어 예습이 가능하여 준비하는 것 크게 권장한다.

1. 준비하지 못했다: 10%
2. 본문만 읽었다: 15%
3. 질문을 읽고 답을 준비했다: 55%
4. 답을 찾고 묵상했다: 20%

이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해본 이후 참가자들의 태도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토의 질문에 흥미가 생기고 그 질문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며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 않된다는 생각이 확고해 진다.

3) 성경 공부를 위한 준비(예습) 시간

이전의 연역적 성경 공부에서는 다음 주일 성경 공부를 예습하는 경우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 데 이번 site member 로서는 공부를 위한 준비를 권장함으로 숙제로 예정된 구절들을 읽고 이에 따라 묵상하며 주어진 토의 인도 질문에 대답을 생각하는 것이다.

연역적 성경 공부의 예습 시간은 전혀 불가능하다.

귀납적 성경 공부의 예습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0 분 미만: 12%
2. 본문만 읽었다: 15%
3. 30-50 분: 51%
4. 50 분 이상: 22%

그러나 연역적 성경공부에서는 공부의 질문자 (인도자)가 모든 준비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의 해답도 발견하고 (기쁨을 가지고) 다음 공부 시간에는이 발견되었던 기쁨을 참가자에게 나눠볼 생각을 하여 공부 시간에 참석하나 그들의 반응은 차가울 뿐이다.

4)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

공부하고 있는 본문을 읽어볼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 혹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더 나어가 이 뜻이 내 삶에서 무슨 뜻이 있느냐 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된다.

1. 무슨 말인 지 모르겠다: 3%
2. 무슨 말인 지는 알겠디: 15%
3. 무슨 뜻인 지 알겠다: 48%
4. 나의 삶에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34%

관찰을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보통 해석과 적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된다. 마치 형사와 같이, 혹은 큰 확대경 앞에나 현미경 앞에 있는 연구자와 같이 미세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전체 그림을 바로 보게 되는 결론자가 된다.

5) 소그룹 토의의 권위자와 말씀 묵상 (내용)

누가 진리 발견의 주 역할을 하는가?

소그룹 토의의 절대적 영향을 주는 권위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성경 교사가 아닌 성경의 저자시며 주인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진리를 (진리 혹은 그리스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다.

1. 성경: 65%
2. 성령: 20%
3. 다른 토의자들의 발견: 10%
4. 성경 공부의 권위자 : 5%

성경 본문 묵상이 가장 귀중하며 그분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거나 가르쳐 주시고 참가자들의 나눔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거나 직접 나눔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

6) 성경 공부의 발견의 기쁨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라고도 말하며 사물의 근본이 되신다. 성경 공부는 이분을 찾는 것으로 그를 발견할 때 얻는 기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며 그때 오는 발견의 기쁨은 다음의 네 경우이다. 먼저, 성경 공부의 예습을 할 때 (preview), 다음은 그룹에서 토의할 때 (discussion), 그 다음은 그룹에서 나눌 때 (sharing), 마지막으로 공부 후에 본문의 문제를 기억하고 묵상을 깊이 하는 것이다 (review).

1. 예습할 때 (preview): 5%
2. 토의할 때 (discussion): 35%
3. 나눌 때 (sharing): 45%
4. 다시 기억할 때 (review): 15%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은 위의 경우들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문제를 다루는 이 모든 과정의 분야로 함께할 때 이 진리 발견의 기쁨이

일어난다. 이런 과정을 지낸 사실들에 대한 기억으로 Princeton survey 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것을 듣기만 하는 연역적인 방법으로는 사후에 그 공부에 가르친 것의 10% 정도만 기억할 뿐이라고 한다.

7) 나눔의 기쁨

진리 발견에서 오는 일차로 큰 기쁨을 경험하고 나눔으로 인해 증폭된 기쁨을 더하게 된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벧후 1:20)" 가르치며 그 이유를 21 절 "...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라고 말한다.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 들은 바' 를 너희에게 전함은 곧 나눔으로 사귐이 있게 된다" 고 증언한다 (요한 1 서).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된다.[191] 우리의 이상향인 이 '코이노니아' 는 말씀의 진리 발견을 그룹에서 '나눔' 으로 시작하여 사귐(코이노니아, Fellowship) 으로 발전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눌 때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 이 증폭된다. 이로 인하여 사귐이 일어나 하늘 나라를 맛보게 되며 아버지와 진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천국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다.

1. 이 경험을 한번도 못했다: 9%
2. 전에 조금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24%
3. 지금 체험한다: 24%
4. 공부할 때마다 체험한다: 43%

8) 성령의 경험

---

[191] Jean Vanier, *Community and Growth* (New York: Paulist Press, 1989), 218.

말씀 공부하며 나눌 때 진리의 빛비췸인 성령의역사를 경험하게 된다.[192] 이에 대해 마음 속에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며 생각으로 떠오르는 사실들이 성령의 역사이다.

1. 전혀 느껴 보지 못했다: 10%
2. 느껴본 적이 있다: 17%
3.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낀다: 53%
4.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20%

9) 성경 공부의 목적(성령의 역사)

이런 귀납적 성경 공부를 계속하므로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지며 행동의 변화를 보게 되어 우리를 관찰하는 삶에서 변화된 그 이유에 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이 진정 변화되는 삶이 됨을 깨닫아 더 간구하게 된다. 마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 1:3) 이런 자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1.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5%
2.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35%
3. 대다수의 성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40%
4. 이 땅에서 온 성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0%

---

[192] 히브리서 10:32.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5 절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남과 동일한 빛이다.

2. 연구반원의 평가와 한계

우리 site team memberships 와 함께 이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 교회와 교인들이 이를 통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의 진실한 종됨에 있어서 한계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읽는 것에 대한 태도가 전적으로 변화되었고 성경을 더 애착하며 많이 읽어 본문을 다루는 습관도 관찰과 해석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며 끝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교육 계획을 만들어 아직 연역적인 태도에 도울 수 있는 교육 계획들을 더 참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경 공부에서 교회 성경 공부의 권위자가 성령과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 삶을 풀어놓게 한다. 그러나 이제껏 그런 분위기가 이니었던 교회는 성경 공부에서만이 아닌 교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또 모든 교우들의 의식 속에서도 그런 권위자 의식이 공부 시간에서나 제직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같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중요한 문제요 앞으로 추구해 나아갈 문제이다.

세째, 성령의 역사가 가장 귀중한 요소임을 공부에서 배우게 되었고 결론임을 보면서 교회에서 먼저 나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교우들 서로가 누리는 발견의 기쁨을 만끽하며 참다운 교제를 이루는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늘 나라를 잇대어 살아가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은 오늘 현대인들의 신 (God)인 탐욕 (Greed)에서 벗어나야 하는 데 이것의 반대는 기쁨 (Joy)으로, 이것은 바른 진리를 발견하는 참다운 성경 공부를 통해 이 기쁨을 발견케 된다.

VIII. 과제 평가

1. 의식 변화

우리의 관심 집중은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듣고 발견하는 것에 있고 이제 까지 이해해온 지식이나 느낌 혹은 감정들은 일체 내려놓아야 한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을 기울려야 하며 오직 권위자는 성령과 성경, 이 두 가지 뿐이다.

1) 사물을 보는 습관ㅡ 무엇을 말하는가 (마가복음 2:1-12)?

- o 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가?
- o 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가?
- o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왜 그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시는가?
- o 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 o 왜 서기관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 o 죄 사하는 권세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참가자들의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이 과정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 나눌 때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

2) 발견의 기쁨 (joy of discovery)[193]

- 마가 1:21 절 이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

- 주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세상의 아무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 절대절명의 귀한 시간이다.

- 친구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하나된 믿음과 사랑을 보신다. 이들의 믿음이 환자를 고친다.

- 서기관의 존재는 회의와 불신의 요소로 인해 주의 말씀은 더 굳게할
    - 기회가 된다.

- 신성모독은 주님의 뜻을 정반대로 보는 자로 늘 있을 수 있고 이때에 더 높은
    - 영광을 받는다.

3) 나눌 때의 기쁨 (joy of sharing)[194]

- 당신 자신이 발견한 기쁨을 써 보라.

- 이런 긴박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 말씀과 기도로 한몸된 그룹이나 교회는 주께서 공동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 나 자신도 때로는 불신하는 이런 신성모독이 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 주의해야 하며 이런 자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드릴 수 있다. 이
    - 권세를 진정 믿어 내 삶에 적용한다.

2. 구체적인 실제 참여활동 계획 (훈련 실시)

성경공부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진리를 서로 나눌 때 오는 기쁨으로 온전한 삶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보상이며 또

---

[193] Gladys Hunts, *The joy of discove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5), 7.

[194] Gladys Hunts,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Wheaton Harold Shaw Publisher, 1994), 26.

참가자의 보상인 것이다.

- o 시행 전략의 활동을 적용한다 (숙제로 준비하게 한다).
- o 그것들을 나눈다 (성경공부 하기ㅡ 교제, 마가복음 , 예수님를 발견)을 사용함.
- o 이것을 기초로 하여 기도문을 쓴다.

1) 기간

- o 사물을 보는 습관 (관찰)ㅡ 예, 첫 주의 모임을 위해 전 주에 숙제를 분배함.

각 주간 1 회씩 만남 (참가자들의 적합한 시간 혹은 주일 예배 후)

첫째 주ㅡ 구체적인 실제 참여 활동 계획에서 관찰을 숙제로 무엇이 쓰여 있고 내가

물을 수 있는 질문들

둘째 주ㅡ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이며 참가자들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째 주ㅡ 이 뜻이 나의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네째 주ㅡ 성경, 마가복음 2:1-12 의 말씀을 공부하기.

(guide book, 마가복음 책 p.15-16 을 참조)

2) 무엇을 하는가?

- o 소품의 관찰의 예로,

땅콩을 관찰할 때, 그 특성으로는 먼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 껍질의 가벼움과 적은 섬유질로 짜여져 이 껍질의 탄력성으로 외부의 충격을 쉽게 제거하여 알맹이의 단단함과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며 에너지를 주고 고소한 맛을 준다. 이 알맹이에서 싹이나 줄기가 나와 다시 땅으로 들어가 열매 맺어 그 결실을 맺을 때 그 낮아짐과 썩어짐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

- 성경구절에서 문제 만들기(예로, 눅 1:1-4)

  a) ‘이루어진’ 이란 말을 쓴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b) 어떤 처음인가?

  c) 목격자와 일군의 뜻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d) 전하여 준 이란 어떤 통로를 통했는가? 왜 전하는가?

  e) 모든 일 이라고 표현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가? 등.

- 각 절의 말씀들을 적용하기

이와 같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으로 복음이 시작되어 각자의 믿음과 결단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3. 제자 훈련의 구조적 연구

우리의 성경 공부는 새술이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이고 새구조는 우리가 날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 현재 우리의 교회에 구조 변화를 알아 보자.

  a) 새벽 기도회

한국 교회의 자랑인 새벽 기도회에 새부대가 필요하다.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을 관찰과 해석과 적용으로 나아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비추어 받아 들이고 우선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 성령의 지혜를 간구함이 우리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 없이 다수의 교회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은 다만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b) 주일 예배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푸는 것이 예배이다 (요 4:20-26). 이 영적 갈급함은 진정 예배의 내용과 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193]

신령과 진리만이 권위요 예배의 머리되시며 그외 모든 사람들은 도우는 자일 뿐이다. 또 말씀의 공포는 특수한 사람만이 먼저 보고 묵상한 것을 예고 없이 나눔보다는 온 교인들에게 미리 예고하여함께 참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준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주일 예배의 말씀은 적어도 한 주 전에 교인들에게 주보를 통해 알려 묵상하게 하고 준비 기도할 시간을 주는 것은 공평하며 또 예배 후에도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는 교인들에게나 혹은 질문자를 위한 토의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나눠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적절한 시간에 적용을 나눔으로서 기쁨을 더하게 해야 한다.

c) 성경 공부

창세기로부터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극대화한 가르침의 본을 보여 주신 귀납적 접근의 말씀 공부를 시행하여 가능하면, 전 교우, 각 분반에서도 같은 내용의 본문으로 통일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 주일 전에까지 공부한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다. 교회의 모임에서도 같은 본문 말씀과 전교인과 가정의 자녀들도 같은 내용의 본문으로 묵상을 가능케 하여 가정 예배나 또 구역 예배 또는 자녀들과부모간에 대화에서 같은 말씀이적용되어 깊이 묵상된 말씀의 체계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한다. 이 귀납적

---

[195] 요한일서 4:13-26, 수가성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해갈하고 목을 축이는 예배의 좋은 표본을 묘사하고 있다.

성경공부에서 가장 힘쓸 대목은 관찰 부분이며 이것이 풍부할 때 다음 단계인 해석으로, 올바른 해석이 나오게 되어 또 적용은 바른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 묵상은 늘 풍성하게 되어 우리 생각과 묵상의 틀의 구조를 올바른 말씀으로 이해하여 자라게 된다.

IX. 목회 유능성 개발

1. 발전과 개척의 발견 적용분야

귀납적 성경 공부와 그 제자 훈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진리나 영적인 원칙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더욱 풍성한 것으로 발견시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사역에 직접 적용하여보자.

1) 권위자: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에서 권위자는 오직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님 뿐이시다 (막 1:27).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의 권위도 나눌 수 있으나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케 하는 도우미일 뿐이다.

- 권위자의 확립의 발견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에서, 권위자의 확립 발견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더욱 확고히 하여 다른 어떤 교리나 교단의 지침 또는 세상적인 것들을 혼용함에서 구분되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이제껏 잘못 인정된 권위자의 역할과 우리는 성경 공부 지도자의 위상를

버리고 참가자로 임해야 한다.

- 권위자 확립의 적용분야

우리의 사역과 행함에서 권위자에게 묻고 받는 대답만을 근거하여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것들로 우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너무 많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권위자이심을 순간순간 확인하여 묻고 따라야 한다.

2) 도우는 자 (Helper)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우리는 돕는 자 (helper) 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요 14:26).[196]

- 돕는 자 확립의 발견

돕는 자는 권위자 아래서 순종할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세상의 직함을 따라 교회도 너무 많은 직함을 가지고 초신자들에게나 연약한 자들에게 혼돈을 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이라고 한 돕는 자는 상대를 더 좋은 것으로 섬기는 자로 이것은 실로 귀한 직분이며 사역인 것이다.

- 돕는 자의 적용분야

성경 공부에 가장 긴요한 것은 참가자들을 도와 진리 발견에 도움을 주고 이어서 함께 발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또 성도 간에 교제는 사역의 모임에 근본 정신이어야 한다. 제자로 품격을 갖추어 나가는 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는 직분을 너무 세분화 하여 돕는 자들의 사역이 제한되기 쉬우나 진리의 사역의 본 줄기는 이

[196] 요한복음 14:16, 26.

'도움' 에 있다.[197]

- 인용의 한계로 정해진 토의 (frame of reference)[198]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풀 때 기록된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을 억지로 과장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용의 한계' 를 지정하여 말씀을 바로 적용해야 하며 너무 많은 인용으로 말씀을 혼잡케 하고 그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의 문맥을 넘어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고후 4:2).

- 인용의 한계의 확대적 발전

토의 과정에서 성경 공부는 그 본문의 주제를 떠나 그 취지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이 토의를 주도하면 그 토의는 성령님이 권위자가 될 수 없다. 본문의 주제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분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치 못할 때 많은 불이익을 우리 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 주어우리 마음의 혼돈은 물론이며 성령님을 더욱더 근심케 한다. 그리하여 본문과 문맥에만 집중하며 또 비슷해 보이는듯한 (전혀 관계 없음) 조그마한 연관의 추가를 피할 때 그의 뜻을 온전히 알아 깨끗한 행함으로 나가게 된다.

- 인용의 한계를 적용

성경 공부, 설교, 각종 모임에서 인용의 한계를 적용해야 하며 이 한계는 성령님의

[197]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심을 본받는 다만 교회 안팍에서 우리의 직임 명칭은 종 (servant) 이상의 뜻을 가질 수 없지 않는가?

[198] Gladys Hunt,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Wheaton Illinois: Harold Shaw Publishers, 1984), 44.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3) 발견의 기쁨 (마태 2:10)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성령의 빛비췸이 우리 안에 들어와 기쁨이 충만해 진다 (벧후 1:19). 성경을 토의해 나가면서 이 기쁨은 더욱 넘친다. 이것은 먼저 진리 (보화)의 발견에서 일어나고 또 그것을 나눌 때 재차 일어난다.

- 발견의 기쁨의 확대적 발전

영적인 사역의 일군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기쁨이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한 기적을 주께서 행하실 때 연회장도 그 이유를 몰랐으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 2:9). 이 하인들은 주님이 하신 기적의 시종을 앎므로 기쁨이 충만하였다. 믿는 자들은 ' 하인' 으로서 행하는 자들로 이 기쁨을 알게 된다.

- 발견의 기쁨을 적용

전 교인이 '하인' 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 설교자들만이 홀로 말씀을 풀어 준비함으로써 갖는 기쁨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고 그들을 초청하여 기회를 나눠야 한다. 주일 설교에 대해 전 교인들이 주일 전에 본분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잘 쓰여진 토의 안내서 (guide book) 를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성경 공부 그룹이나 혹은 구역 모임에서 이 안내서를 가지고 미리 선택된 주제와 본문으로 공부하고 토의하면 이것은 교회가 준비한 주제에 도움을 준다. 또 좋은 책을 선택한 독서 모임을 만들어 이와 같은 요령으로 진리를 발견하여 받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지성에 활력소가 된다 (요일 1:3-4).[199]

---

[199] Ibid., 26.

4) 나눔의 기쁨 (joy of sharing)

- 나눔의 기쁨을 가져 오는 사역의 발견

이 기쁨은 사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 은 영적인 긍휼과 권능이었다. 중보 기도자의 사역은 긍휼로 베푸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지혜를 주셔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역으로 처음부터 목적을 정하여 꾸준히 기록하며 기도하여서 그 사역의 결과를 알 때 오는 기쁨과 이것을 간증으로 나눌 때 오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기쁨이 기초가 되어 사귐이 일어나고 이 사귐은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요 제자 양육이며 이 역사가 일어남은 우리의 교회이며 제자 양육인 것이다.

- 나눔의 기쁨의 적용분야

중보 기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가 있다. 중보 기도 노트에 그들의 이름과 중보 목적 등을 기록하고 이 노트는 성경과 함께 어디든지 지참하여 우리 삶에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연락도 하여 위로하며 그 상대자의 결과도 앎으로 기도가 더 확실한 간구를 하게 된다. 기도가 성취되면 노트에 표기하고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리라. 성경 공부를 가지고 내가 사는 이웃에서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좋은 교재들의 협력을 받아 나누는 토의를 주관하는 질문자의 역할을 돌아가며 할 때 (floating) 참가자들의 각자가 받는 효과는 새롭고 다르다[200]

---

[200] Gladys Hunt, *You can Start a Bible Study Group making friends & changing lives* (Wheaton, Illinois 1984).

5) 자신이 발견하는 법을 권장하고 가르쳐야 함[201]

말씀이 그리스도 임을 신뢰하고 그를 만나고 또 연구하도록 한다 (요 1:38). 그들은 탐험자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탐험하기 시작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발견하는 기쁨을 가진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증이 되셔서 앞으로 오게 되는 열매를 보장하신다 (고후 1:22, 갈 5:22).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 (deposit)으로 용기와 격려가 된다.

- 자아 발견 (self-discovery)의 능력

성경 공부, 교회 각 기관에 이것을 다 적용한다. 그러기 위해 그 나이에 맞는 대화체로 수정된 성경 묵상 안내서 (guide)를 재조정 편집해서 그 신급이나 학급에 적합한 교제로 문장을 변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전 교인이 같은 구절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여 다른 나이의 그룹과도 대화하며 토의 할 수 있게 한다. 질문할 좋은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성경 공부의 또다른 중요한 성숙 과정이 될 것이다.

6) 질문에 대답 이상 그 대답을 다시 되물음에 관심을 집중 (don't tell but ask, 눅 10:25-28)

예수님이 좋은 본보기시다. 율법 교사가 묻는 물음에 대답하시고 그 대답에 더 깊은 질문으로 다시 그에게 되물으신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답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할 지를 다시 되묻어 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122]

- 질문보다 해답에 대해 더 관심가지기

---

[201] Oletta Wald, *The joy of Discovery in Bible Study*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5), 7.

[202]하워드 헨드릭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55.

성경 선생을 통한 그간의 공부는 그 시간에 성경이나 공과책을 통한 질문하는 것과 이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 것으로 대개는 만족하고 말기쉬웠으나 이제부터 해답은 성경에서 본인이 찾도록 시간을 짜서 읽고 묵상된 성경 공부에서는 그답이 우리 자신의 오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도록 적용하느냐 하는 것에 강조하여 시간을 쓰는 일이다. 그 후 다음 주일에는 그 적용했던 결과를 서로 나누며 발견된 문제점과 의문점 등을 내놓고 토의하여 더 풍성한 대답을 얻게 된다.

- 적용의 결과를 재적용

위에 언급한 이야기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더 공부하고 실행한 후에 이것을 '성경 말씀 적용일지' (log of application) 을 비치하여 이후에도 늘 점검하고 묵상하여 재발견된 진리 말씀을 우리들의 인품이 되도록 추가 기록한다.

7) 종교적인 언사를 빼기(no in-house language).[203]

우리는 제자가 되며 또 그들을 제자삼는 자이다. 종교적인 언어 (jargon)를 성경 공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성경 공부에는 초신자들도 참석하므로 그들은 신급에 따른 명칭과 언어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 언칭을 씀으로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는 전문적인 혹은 앞선 믿음이 있어야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나 언행은 늘 겸손한 순종의 자세야 한다.[204]

- 이 원리의 적용 분야

---

[203] Discovering truth & building friendships through Small Group Bible Studies ⓒ 1993 Neighborhood Bible Studies Inc., Dobbs Ferry NY 10522 9/95.

[204] 우리는 문화와 체면의 영향으로 명칭들을 남발하는 경향이 너무 지나치다.

성경 공부 토의에서 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이웃과 사귐에도 꼭 이를 실행하며 특히 교회의 직분 명칭의 남용으로 인해 덕이 않되고 위화감만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 적용

성경 공부에 주의하되, 전 교인이 순수한 말로 돌아가야 하며 교인의 직분 명칭을 꼭 쓸 때는 '성도' 가 최고의 명칭이라고 본다 (빌 1-1). 우리는 직분 명칭을 꼭 써야 하며 누구를 위한 명칭인 지를 또 이 명칭들이 거침돌이 되게 하면서까지 사용해야 하는 지를 숙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8) 모든 일에 귀납적인 접근[205]

예수님은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눅 19:17) 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고 ... 다 이루시겠다 (마 5:18) 고 말씀하시어 '지극히 적은 것' 혹은 '일점 일획' 이라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귀납적 해석은 탐정가가 확대경을 가지고 사물을 찾아냄과 같이 조그마한 실마리들이라도 모아 전체의 뜻을 파악하는 겸허하고 신중한 태도이다. 주 안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이 똑같은 것이다.

- 귀납적 접근으로 새로운 방향 개발

귀납적 접근의 성경 공부를 논하여 성경에 이미 보이셨으나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귀납적 방법을 추가해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을 접근할 때 우선 말씀을대하는 태도는 성경의 구절부터 대하지 말고 한책, 한장(chapter) , 혹은 한단락이라도 전체로 일별하고 나서 A 본문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살펴 관찰하고 B 전후 문맥 안에서 A 에서 살핀 사실들의 뜻을 해석해 보고 C 오늘날의 내 삶에 이 원리를

---

[205] Kay Schell, "*Nurturing New Christians*," www.neighborhoodbiblestudy.org May 2005 Neighborhood Bible Studies.

적용한다.

- 적용

설교 이후 적절한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 받은 내용을 내 마음 속에 영적인 질문 혹은 더 확인해야 할 것들 또 그것의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등을 나누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2. 나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 설교

앞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교인들이 응답하는 설교 (responsive sermon)를 하여 교인들이 한 주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설교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을 가져 질문 등 추가될 적용을 나누는 시간도 갖으려고 노력한다. 20 세기 말에 신학계에서는 대화식(narrative) 설교가 강조되기 시작했고[206] 한 걸음 더 나아가 급진적인 일각에서는 반응하는 (responsive), 즉 대화하는 식의 설교가 나오고 있다[207]

- 성경 공부

묵상을 통해 귀납적 방법으로 여기 논한 대로 성경 공부를 실시하되 가능하면 유년부, 초 중등부, 고등부에서도 같은 본문으로 하여 토의 질문자 (인도자)는 그 그룹에 적합한 안내서를 가지고 질문을 변형하여 알아 듣기 쉬운 언어로 재편집하여 사용한다.

---

[206] Margaret A. Krych, *The teaching the Gospel Today* (Minneapolis: Ausberg Publishing House, 1987), 75.

[207] Paulo Preire, *The politics of education* (서울: 일월서각, 1986), 213.

- pilot plan

위에서와 같이 장년을 위한 토의 안내 질문서를 변형시킨 안내서를 유년 주일학교에 적합하도록 재편집을 해야 하는 데 이때 선생님들과 그런 필요를 의식하는 교우들이 이 pilot plan 을 만들어 각 학급에 적합하도록 재편집하고 이 시험적인 연습으로 하여 적합도와 거침 없는 응용성을 검토, 개발하여 각 주일 학급에 적용한다.

- 제자 양육과 인도자 훈련

위에 제자 양육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문제는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교우와 온 가족이 늘 함께함이 제자 양육이 되는 것으로 각 가정이 핵가족화나 도시 생활의 첨예화됨을 떠나 근본적인 삶의 터전 전체가 제자 양육이 되도록 노력하여 일찍부터 세워나가는 데 도움되는 사역을 한다.

가정이나 교회의 전인교육과 함께 교회 사역자와 교우들이 함께 거하는 삶에서 기독교육이 이뤄지고 그들 중에 지도력이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그들이 자라온 교회나 그들의 지역 중심의 지도로 양육한다. 그 지도자는 토착성 (indigenous)이 강하여 모든 무리들을 이끌어 지역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토착적 환경에서 양육된 제자는 토착 미생물과 같이 병충해와 싸워 이기는 지름길이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이 되듯이, 환난이나 시험의 어려운 환경을 거슬려 나가는 능력있는 제자들이다.

교육의 기회는 계획된 환경보다 오히려 자연 발생적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학생의 분명한 역할 구분이 없고 따라서 전문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207] 단지 배우고 가르치는 발견과 나눔이 목표가 되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은 같이 생활하며 함께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방볍과 분위기이어야 하며 권위자인 성경과 말씀에 순간순간 의존해야 한다.

3. 상담자의 능력 (잠 15:22)

귀납적 접근으로 토의하고 발견한 진리를 나눌 때 기쁨이 충만하고 묵상으로 더 나아가 높은 차원의 이해와 새로운 기쁨이 오며 이것은 계속되는 묵상과 행함만으로 가능하다. 진정한 상담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무장함으로 어떤 경우에 처한 자들이라도 적합한 성령의 뜻이 말씀을 통해 전할 수 있게 된다 (요 14:26). 우리의 모든 상담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매사에 역사하시는 그분께 묻고 들을 준비를 도우는 것으로 우리 상담자의 도우미가 할 일이다.

X.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전해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지난 20 여 세기 동안에 진리의 발견을 위한 탐구는 이방신의 종교적 침투와 우리 자신의 세상 신들에 대한 영적 간음은 빛되신 말씀의 태양을 멀리하며 어두워진 길을 헤매며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리하여 삼 세기에 걸친 초대 교회의 뜨거운 신앙을 지켜 나가기는 커녕 얼마나 침륜에 빠졌는 지 통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창세기 17:1 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우리에게 당부하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바르게 접근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어두움의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

[208] 고용수, *신앙 공동체 중심 교육론- John Westerhoff의 신앙 문화와 공동체 - 이종성 고희 기념 논문집 교회와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507.

이후의 오랫동안 헛되이 보낸 세월에서 너무나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신실한 주의 종들의 기도와 나를 보내소서 하는 헌신의 결단을 가진 선각자들을 보내사 주의 뜻을 궁구하여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시작했다.

세계의 교회는 20 세기 초, 1901 년에 Dr. Wilbert W. White 는 진리 발견의 새롭고 놀라운 길인 Inductive Small Group Discussion Bible Study, 귀납적 소그룹 토의식 성경 공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New York Biblical Seminary, 현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를 시작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진리의 말씀에 식상, stomach upset 해 왔던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공부 방법은 참으로 놀랍고 능력과 효력이 뛰어난 성경 공부이었다. 한국 교계는 약 30 여년 전부터 몇몇 소수의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공부에 눈을 떠 배우고 교회를 일으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걷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발견한 그 길을 주의하여 보고 성령의 도움으로 배워 어두움에 방황하는 많은 제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진정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209] 그리하여 진리의 빛비췸을 받고. 이 빛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여 삶에 고침을 받을 때 오게 되는 진리 발견의 기쁨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양식이 되며 이 발견된 진리를 그룹 안에서 나눌 때 오는 기쁨은 증폭 확대되고 이런 나눔으로 교회나 가정이나 소그룹은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어 사귐, fellowship이 충만케 된다.[210] 이런 성령과 말씀이충만한 삶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은 제자로서 양육됨이 자연스러운 결과며 열매이다. 창세기 17:1 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우리에게 당부하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바르게 접근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어두움의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

[209]조용기, *설교는 나의 인생*(서울: 서울 말씀사, 2005), 217.

[210] 요한일서 1:3.

APPENDICES

1. INDUCTIVE BIBLE STUDY in THE TWENTHIETH CENTURY (Attached)

   1900 ----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1965

2. Bulletin of Roslyn Korean Church (Attached)

3. 설문지

*본 설문지는 연구 논문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 문제에 4 개의 항목 중에서 가장 가깝게 생각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셔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분들의 신원은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1. 신앙생활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 2 년 미만 2. 2-5 년 3. 5 년 이상 4. 모태 신앙

2. 이 성경 공부를 시행하는 수월성

   1. 본문만 읽는다. 2. 본문과 질문을 읽는다. 3. 본문을 읽고 질문을 생각해 본다.

   4. 본문을 읽고 질문에 답한다.

3. 성경공부 예습을 준비하는 시간은?

   1. 10 분 미만 2. 10-30 분 3. 30-50 분 4. 50 분 이상

4. 귀납적 성경 공부는 진리 발견을 위해 질문을 사용한다. 이 질문은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는가?

   1. 최근 20-30 년 이후 2. 귀납적 공부가 시작된 1900 년 이후

   3. 그리스도 은혜시대 이후 4. 창세 이후

5. 소그룹의 권위자 (주관자)는 누구인가?

1. 공부 인도자 2. 토의자들 3. 성경 박사 4. 성경 말씀

6. 이 성경 공부는 진리 발견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 어느 과정에서 이것을 맛보는가 ?

1. 예습일 때. 2. 토의할 때. 3. 토의 후 나눌 때. 4. 내용을 기억할 때.

7. 이 성경 공부에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가?

1. 전혀 없다. 2. 조금 있었으나 지금 없다 3. 지금 경험한다. 4. 늘 경험한다.

8. 토의를 나눌 때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가?.

1. 전혀 없다 2. 느낀 적이 있다 3. 계심을 느낀다 4. 주님께서늘 나와 함께 하신다

9. 이 토의식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1. 전혀모르겠다 2. 애써 본다 3. 다른 점을 느낀다 4. 절대적이다

10. 이 성경 공부를 통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1. 전혀 없다 2. 가끔 있다 3. 허리에 넘친다 4. 그 뜻대로 산다

11. 이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고백하게 되는가?

1. 전혀 없다 2. 애써 보겠다 3. 조금씩 느껴진다 4. 절대적이다

12. 만약 당신이 그룹의 말씀 공부를 인도하기 원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는가?

1. 모르겠다 2. 연역법 성경 공부 3. 연역과 귀납을 섞어서 4.귀납법 성경

BIBLIOGRAPHY

A) 외국서적

Bennett, Golden C. *Readers theatre comes to church*. Colorado Springs, Colorado: Meriwether Publishing Ltd., 1985.

Bonheoffer, Dietrich. *Life Together*.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 1954Sherman, Dean.

Burkett, Larry. *The Coming Economic Earthquake*. Chicago: Mocky Press, 1991.

Dowson, Joy. *Intimate Friendship with God*. Old Tappan, New Jersey: A Chosen Book, 1986.

Dowson, John. *Taking our cities for God*. Florida: Creation House, 1989.

Doyle, Sir Arthur. *The Great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76.

Edman, V. Raymond. *They found the secret*.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0.

Foster, Richard J. *Celebration of Discipline*. New York: Harper & Row, 2002.

________. *Prayer*.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Publishing , 1996.

Galloway, Dale. *The Small Group Book*.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1977.

George, Henry. *Progress and Poverty*.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2001.

Hayes, John H. and Carl R. Hollaway. *Biblical Exeg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7.

Hendricks Howard G. *Teaching to change Lives*. Oregon: Multnomah, 1987.

Hughes, Robert Don. *Plays that'll preach*. Louisville, Kentucky: Broadman Press, 1985.

Jensen, Irving L. *Enjoy your Bible*. Wheaton, Illinois: Harold Shaw Publishers, 1994.

________. *Romans & Self-study Guide*. Chicago: Moody Press, 1970.

________. *Guide John, A Self-Study*. Chicago :Moody Press. 1970.

Joyner, Rick. *Epic Battles of the Last Days.* Lancaster Highway: Morning Star Publication, 1991.. .

________. *The final guest.* Lancaster Highway: Whitaker House, 1996.

________. *There were two threes in the garden*. Charlotte, North Carolina: Whitaker House, 1980.

Kimbell, Dan.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 Wilmore, Kentucky: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7.

Kunz, Marilyn and Catherine Schell, *Genesis.* Dobby Ferry, New York: NBS, 1995, 27.

Linthicum, Robert C. *Empowering the poor*. Monrovia, California: MARC, 1974.

McClung, Floyd Jr. *Effective Evangelism*. London: Marshall Peckering, 1988.

________. *Father makes us one.* Seattle Washington: Frontline Communication, 1989.

________. *Seeing the city with the eyes of God*. Tarrytown, New York: Chosen Book, 1991.

________. *The Father Heart of God*. Eugene, Oregon: Harvest House Publishers, 1985.

Moody, William R. *The life of D. L. Moody.* Murfreesboro, Tennessee: Sword of the Lord, 1900.

Morey, Earl Wesley. *Our God Reigns.* Vienna, Virginia: Agape Ministry, Inc.

Muller, George. *The Autobiography* . Springdale, Pennsylvania: Whitaker House, 1984.

Nee, Watchman. *Gospel Dialogue*. New York: Christian Fellowship Publishers Inc., 1991.

________. *The Mystery of Creation*. New York: Christian Fellowship Publishers, 1981.

________. *Spiritual Knowledge*. New York: Christian Fellowship Publisher Inc., 1973.

________. *Spiritual Authority*. New York: Christian Fellowship Publisher, Inc., 1972.

Nouwen, Henri J. M.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New York: Doubleday, 1992.

________. *Sabbatical Journey*, *The diary of his final year.*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8.

Sherman, Dean. *Spiritual Warfare of every Christian*. Kailua-Kona: YWAM Publication, 1995.

Simpson, A.B. *The Fourfold Gospel*. Camphill,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 1984.

________. *The names of Jesus*. Camp Hill,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 1991.

Smith, Ron. *Hooked on the Word- Changing your life through bible meditation*. Jakeside,

Montana: YWAM Publishing.

________. and Rob Penner. *Grace simply Grace*. Hong Kong: Jens co. Ltd, 1990.

Sorge, Bob. *Exploring Worship*. Canandaigua, New York: 1984.

Spurgeon, C. H. *The best of C. H. Spurgeon*.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7.

Stein, Robert H. *A Basic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1997.

Torry, R.A. *The Power of Prayer and the Prayer of power*.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Tozer, A. W. *The Tozer Pulpit*. Camphill, Pennsylvania: Christian Publication, 1994.

Trainer, Robert. *Methodical Bible Study*. Wilmore, Kentucky: Zondervan 1985.

Vanier , Jean. *Community and Growth*. New York: Paulist Press, 1979.

Ward, Oletta. *The Joy of Discovery in Bible Study.*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Wilkerson, David. *Hallowed be thy names* . Lindale, Texas: David Wilkerson Publishers, 1981.

B) 한국서적

김철손. *요한계시록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김동호. *예수 있는 작은 사람, 예수 없는 큰 사람.* 서울: 규장, 1994.

________.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 1999.

고용수. *신앙 공동체 중심 교육론.*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대천덕. *토지와 자유.* 서울: 도서출판무실, 1995.

________. *나와 하나님.* 서울: 도서 출판 예수원, 1989.

________.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서울: 국민일보사, 1990.

________. *산골짜기에서 외치는 소리.* 서울: 한국양서, 1992

________.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서울: 한국성서, 1987.

________. 헨리 죠지 공저. *토지와 자유.* 서울: 생명의 샘터, 1984.

박아론. *현대 신학은 어디로.*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1.

서정운. *예수의 제자 교육과 오늘의 신학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3.

이상근. *주경학의 제문제.*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이상현.*삼위일체, 은혜 그리고 믿음.*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3.

홍성건.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서울: 예수 전도단, 2000.

________.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서울: 예수 전도단, 1999.

조용기. *설교는 나의 인생.* 서울: 서울출판사, 2007.

최형섭. *성령의 학교.* 서울: 예수 전도단, 1997.

최용호. *성령의 30 가지 은사를 아십니까.* 서울: 쿰란출판사, 2001.

현영일. *작은 거인 이야기.* 서울: 쿰란출판사, 2001.

________.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 서원 편집부, 1989.

C) 번역 서적

Aikman, David.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 김미수 옮김. 서울: 좋은 씨앗, 2005.

Dan, H.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서영훈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Gruff ,Norman P. and Rees, Howells. *중보기도자 리스 하월스* 윤무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1.

Hagin, Kenneth E. *성령의 기름부음.* 1997.

Hartman, Jack .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 입니다.* 오태용 옮김.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6.

Hattaway, Paul. *백투 예루살렘.* 류홍렬 옮김. 서울: 홍성사, 2005.

Keller , Phillip W. *양과 목자.* 김만풍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0.

Long, Brad. *대천덕 신부에게 배우는 영성.* 배성현 옮김. 서울: 요단 출판사, 2005.

Moody, D.L. *성경연구의 기쁨.* 생명의 말씀사 역간, 1982.

Nee, Watchman. *말씀의 사역.*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Neuwen, Henry J. M. *영적 발돋움.* 이상미 옮김. 서울: 두란노, 1998.

________. *사막의 영성.* 신현복 옮김. 서울: 아침 영성지도 연구원, 2002.

Ortiz, Juan Carlos. *제자 입니까.* 김성웅 옮김. 서울: 두란노, 1989.

Preire , Paulo. *실천 교육학.* 김쾌상 옮김. 서울: 일월서각, 1986.

Ross, David E.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양혜원 옮김. 서울: 예수 전도단, 2005.

Torrey, R. A.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천덕 III 신부. 서울: 한국양서, 1987.

D) 간행물 (Publication)

Kunz, Marilyn. “Bible Studies That Bring Them to Belief.”

________. “To evaluate a Bible Study Guide ask yourself these question.” New York: NBS.
Schell, Kay. “Nurturing New Christians.” www.Neighborhood Bible Study.org. New York

________. “Discovering Truth Building Friendships Through Small Group Bible Studies” ⓒ Dobbs Ferry, New York: NBS, 1993.

________. “Core Values.” Dobbs Ferry, New York: NBS.

________. “Group Dynamics- How to Maintain a Healing Group.” Dobbs Ferry, New York: N.B.S. Inc, 1992.

Kunz, Marilyn. “The Philosophy of Neighborhood Bible Studies.” Dobbs Ferry, New York: N.B.S.

________. “Characteristics of inductive study.” Teaching the Bible From the Inside Out ⓒ David C. Cook Co, 1978.

________. “School of Biblical Studies: the Basics of Bible Studies.”

________. “Inductive Bible Studies.” Neighborhood Bible Studies.

________. “How Keep Your Group Healing.” ⓒ Dobbs Ferry, New York: N.B.S., 1995.

________. “observing a Bible Study Communication Pattern.” N.B.S.

________. “How to select Bible Study Guides.” Dobbs Ferry, New York: N.B.S.

________. “The 12 Most Common Problems in Discussion Group.” ⓒ Dobbs Ferry, New York: N.B.S., Inc. 1993.

________. “To evaluate a Bible Study Guide ask yourself these question.” Dobbs Ferry, New York: Neighborhood Bible Studies, Inc.

________. “Group Effectiveness Checklist.” ⓒ Dobbs Ferry, New York: N.B. S.

________. Westgren, Cliff. “Why I like Neighborhood Bible Studies the Best.” Dobbs FERRY, New York: N.B.S.

________. “How to select Bible Study Guides.” Dobbs Ferry, New York: N.B.S.

________. “Neighborhood Bible Studies.” ⓒ Dobbs Ferry, New York: N.B.S.

________. “Observing a Discussion Bible Studies.” ⓒ N.B.S., 1993, 11-93.

________. “Considering there characteristics of adults, How can we create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learning?” ⓒ N.B.S., 4/95.

Graham, Mary. “Specific Purpose of inductive Bible Study Network.” Pasadena, California: Inductive Bible Study Net Work, Spring, 1992. No. 4.

________. “Goals in teaching inductive Bible Study.” Pasadena, California: Inductive Bible Study Net Work, Spring, 1992. No. 5.

________. “The terminology of IBS is not standardized.” Winter, 1993. No. 6.

________. “You can help to further IBS.” Spring, 1993. No. 7.

________. “Inductive Bible Study in other countries.” Spring, 1994. No. 10.

________. “Why I believe the use of inductive method in Bible Study is of great Importance.” Winter, 1997. No. 18.

________. “Eugene H. Peterson on contemplative exegesis.” Winter, 1999. No. 24.

_______. “Hermeneutics for lay people.” Fall. 1999. No.25.

________. “The History of inductive Bible Study within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Fall, 2000. No. 28.

Gray, Frances Mecca. “Dr. Wilbert W. White-Man of Prayer.” Fall, 1998. No. 23.

Schell, Catherine. “Neighborhood Bible Studies.” Fall, 1994. No. 11.

Yoder, Joanie. "Finding the God-dependent Life." Spring, 1998. No. 22.
E) website

http://www.neighborhoodbiblestudy.org

http:111720691?news-view,html?s-df5492s

Http://www.sarang.org

Archives of The Biblical Seminary and Wilbert Webster White Acquire...
http://www.nyts.eud/lastest-news/52-archives of the-biblical-seminary.

http://www.precept.org/site/pageserver?pagename-101_whatisinduct...

http://www.allaboutfollwoingjesus.org/christiandiscipleship.htm.

http://www.discipleshiptools.org/pages.asp?pageid-64809.

http://www.religion-online.org/showarticle.asp?title-1308.